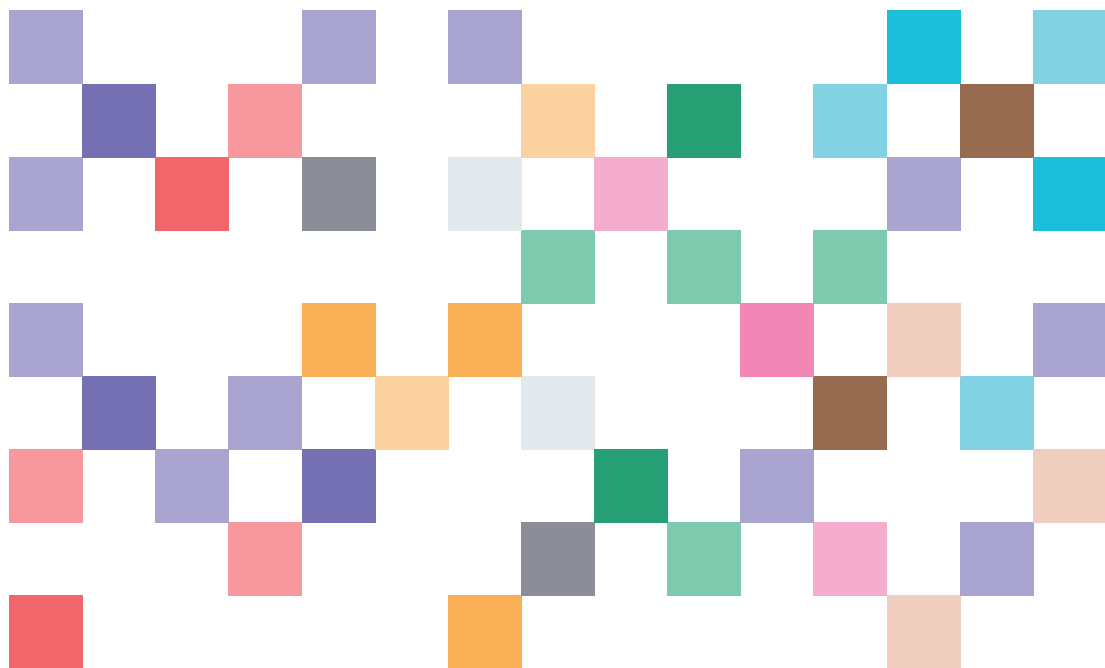




**인천시립미술관
건립·개관 사전홍보 프로젝트**



인천시립미술관 건립·개관 개요	005
1차 전문가 연구세미나	007
국내외 미술관 건립·개관 사례와 변화 양상	
2차 전문가 연구세미나	031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미술 담론	
3차 전문가 연구세미나	059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미술관	
시민 공개포럼	083
공개포럼 발제	084
다양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술관	126



인천시립미술관 건립·개관 개요

“다양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인천시립미술관”

인천시는 시민 및 지역예술계의 오랜 염원을 담아 시립미술관을 건립 중입니다.

인천시립미술관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해서 단계별로 콘텐츠 개발(2019), 소장품 정책(2022), 운영 방안(2023) 등 연구를 추진하고, 관계 전문가들과 미술관의 방향성을 다각도로 모색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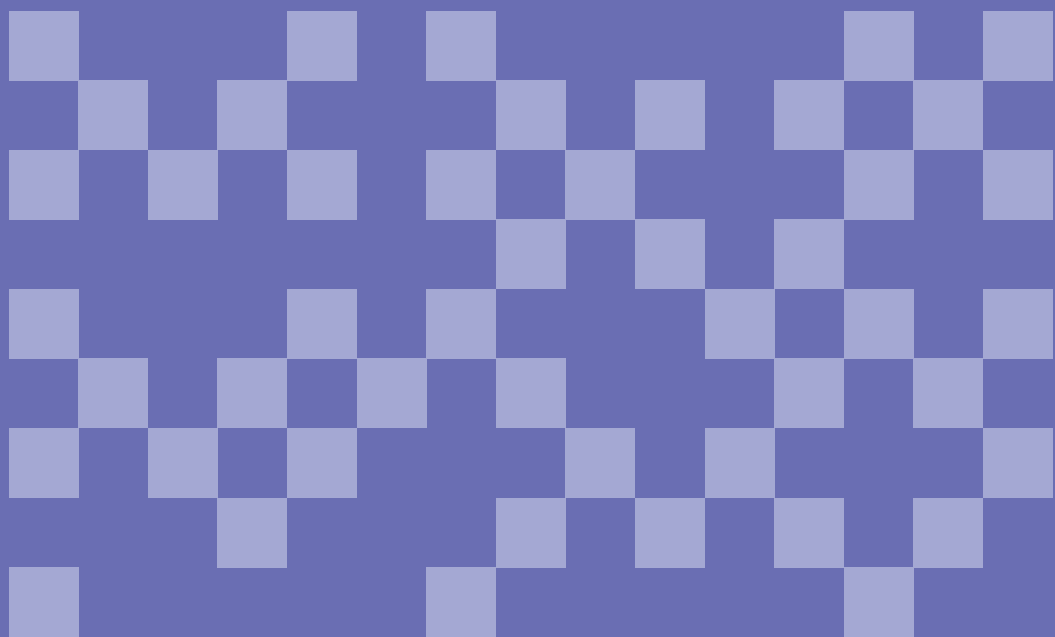
인천시립미술관의 건립·개관 준비 과정을 시민, 지역미술계, 전문가 등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사전홍보 기반 구축 및 운영’ 사업을 미술관 개관 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첫 출발인 2024년은 사전프로그램 ‘전문가 연구세미나’와 시민참여 ‘공개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미술계, 공립미술관장, 미술비평가 등이 참석하는 ‘전문가 연구세미나’는 3차례에 걸쳐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세미나를 진행한 이후에는 시민참여 ‘공개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관계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하면서 소통·협력하는 ‘열린 미술관’으로서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인천이 가진 지역 특수성인 ‘개항과 이민의 역사’를 중심으로 ‘DEIA : Diversity, Equity, Inclusion, Accessibility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접근성)’에 대한 주제를 미술 비평적 관점에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주제와 가치를 포용하는 인천시립미술관의 논의를 토대로 시민, 지역미술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미술관 개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전프로그램, 세미나와 공개포럼에서 제시된 내용들은 아카이브북으로 제작해 인천시 홈페이지와 사전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www.incm-project.com)에 게시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1차 전문가 연구세미나

국내외 미술관 건립 개관 사례와 변화 양상

2024.07.26.(금)

코스모40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

윤의향 대전시립미술관장

전승보 경기도미술관장

서진석 부산시립미술관장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 모더레이터





1부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안녕하십니까? 인천시립미술관 건립·개관 사전홍보 프로젝트 1차 전문가 연구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업의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무소속컴퍼니 임성연 대표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전문가 연구세미나는 현직에 계신 공립미술관 관장님 다섯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2028년 개관 예정인 인천시립미술관의 방향성을 가늠해보는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참석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 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 관장님이십니다. 그 옆에 자리하신 윤의향 대전시립미술관 관장님이십니다. 제 오른쪽에 앉으신 경기도미술관 전승보 관장님이십니다. 이어서 서진석 부산시립미술관 관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명숙 인천광역시청 문화기반과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한명숙 과장님께서 개회사를 준비하셨습니다. 함께 들겠습니다.

한명숙 (인천광역시청 문화기반과장)

안녕하세요 문화기반과장을 맡고 있는 한명숙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 내어 연구해주시고 발표를 위해 멀리서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다섯 분의 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은주 관장님, 이지호 관장님, 윤의향 관장님, 전승보 관장님, 서진석 관장님 고맙습니다. 인천시립미술관 건립과 개관에 관심을 갖고 세미나에 참관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천 시민과 지역예술계의 오랜 염원을 담아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인천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8년 개관목표 까지는 시민, 지역 미술계, 전문가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서 지역 대표 시립미술관 위상을 강화하고자 매년 단계별로 공론화 과정과 다양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국내의 미술관 건립 개관 사례와 미술관의 변화 양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계신 관장님들의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지고 실질적인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들려 주실 고견들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10월 말 진행할 시민참여 공개토론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며 성공적인 미술관 개관 준비의 초석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미술관을 조성해서 글로벌 탑텐시티 도시의 품격과 인천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장님들과 여기 계신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네, 한명숙 문화기반과장님의 개회사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권오승 시립미술관 팀장님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권오승 (인천광역시청 시립미술관팀장)

반갑습니다. 시립미술관팀장 권오승입니다. 지금부터 인천시립미술관 건립·개관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립미술관 건립은 미추홀구 학익동 587-53번지 일대에 기존 시립박물관 확장 이전과 함께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문체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통과, 2021년 6월 행안부 중앙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2022년 8월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하여 2022년 12월 토문건축사 사무소 컨소시엄의 <경관의 기억>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설계 완료됐으며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시립미술관 개관 건립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2019년 12월 시립미술관 콘텐츠 개발 학술용역, 2022년 4월 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 연구용역, 2023년 11월 시립미술관 운영방안 연구용역 그리고 2023년 12월 인천미술사 콘텐츠 발굴 연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인천미술사 조사연구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건립과 개관 과정을 공유하기 위한 사전홍보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네, 감사합니다. 권오승 팀장님의 소개 잘 들었습니다. 먼저 최은주 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내 전반적인 큰 틀에서 동시대 미술관의 흐름과 변화 양상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지역의 미술관이 추구해야 할 미래 지향점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인천은 서울, 부산과 함께
대한민국 3대 도시이고, 근대와 개항, 이민의
역사와 문화적 자산을 많이 가진 도시이다.”**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

제가 최근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다닐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말씀 드리면서 논지를 펼쳐내겠습니다. 발표가 있어서 타이페이, 아부다비, 샤르자, 두바이, 방콕, 홍콩 등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작년 7월에는 중국의 아주 오래된 옛 수도 중 한 곳인 청도에 갔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는 것은 미술관장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적인 미술관들과 미술관의 행보들은 어떤지, 소장품은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또한 교류 가능성은 무엇인지를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청도는 중국 내부 깊숙이 있는 곳이죠. 세계테마기행 같은

프로그램에서 가끔 나오죠. 이곳에 너무 근사한 현대미술관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개관한 지 얼마 안됐는데 청도비엔날레 개막을 보기 위해 갔죠. 건축물을 얼마나 훌륭하게 지었는지, 중국 국화를 지붕에 얹고 안에는 인테리어를 완벽하게 나무로 다 싸서 외부에서 보면 내부로 들어가는 너무나 근사한 미술관이 세워져 있었어요. 코로나 때 개관 계획이 있다 보니 전 세계에 알리지 못하다가 지난 7월에 알리기 시작했죠. 완전히 새 미술관이에요. 사실 미술관이라는 건 도시 기반 내 문화기관이라고 봐야 해요. 어느 나라나 국립미술관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있고 중국 베이징에도 국립미술관이 있어요. 기와 지붕을 얹어 지은 굉장히 고전적인 미술관이에요. 홍콩을 가든 상하이로 가든 청도까지도 완전히 현대적인 건축물을 세웠다는 사실이 흥미로워서 이 움직임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물어보니 중국의 경제 흐름이 베이징에서 상하이, 광둥으로 갔다가 지금 청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같은 흐름도 반영하고 청도시가 갖고 있는 부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관광객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근사한 미술관을 세웠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 또 대만으로 가서 푸본미술관을 봤어요. 역시 개관이었어요. 그런데 푸본은 어떤 미술관이나 하면 국립이나 공립이 아니예요. 대만 최고의 금융기업이 푸본, 한자로 했을 때 부의 봉우리라는 뜻이에요. 그 기업이 대만에서는 현대미술품 컬렉션을 최초로 시작한 기업이에요. 심지어 그 컬렉션 중에는 최정화 작가 등 여러 한국 작가의 작품도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컬렉션만 하다가 이번에 현대미술관인 푸본을 개관하게 된 거죠. 설계는 렌조 피아노가 했어요. 건축물 자체를 너무 자랑해요. 수장고부터 미술관 구석구석까지를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부다비를 갔어요. 그곳에서는 왜 이렇게 문화예술기관을 설립하는데 노력하는지를 질문했어요. 거기에는 지금 싸디야트 섬이라는 뮤지엄 섬을 만들고 있어요. 이미 5년 전 아부다비 루브르가 문을 열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구겐하임이 문을 열

것이고 또한 노먼 포스터가 설계한 국립박물관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주로 중동의 화려했던 문화유적들을 거기에 집어넣을 것 같아요. 아직 현대미술관은 없어요. 구겐하임이 들어오면 그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토록 집중적으로 우리가 상상 못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써서 그렇게 하는가 물었어요. 모든 사업을 리드하고 있는 뮤직앤아트파운데이션 대표에게 이것을 물었더니 너무 명쾌하게 답변해요. 자기들에게 부를 갖게 해준 화석연료, 석유는 고갈되는 시기가 너무 명확하다는 거예요. 40년, 50년, 이렇죠. 이 화석연료가 고갈되면 우리는 뭘 먹고 살지 고민했다고 해요. 그래서 화석연료로 벌어들인 돈을 문화예술기관을 설립하는데 쏟아 부어서 국가정책으로 설정한 거예요. 우리는 문화예술로 먹고 살겠다, 미래세대를 위해 이렇게 한다고 명확하게 답변하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운 비전이지요. 그 다음 마지막 사례로 말씀 드릴 것이 지난달 갔었던 홍콩이에요. M+뮤지엄이 작년 10월에 개관했을 당시에 못 갔기 때문에 한 달 전에 가서 살살이 돌아봤습니다. 그 뮤지엄을 설계한 사람은 헤르조그 앤 드 피롱, HdM이라고 알려진 스위스 출신의 유명 건축가예요. 홍콩은 굉장히 작은 땅인데 M+뮤지엄의 규모는 굉장히 크고 혁신적입니다.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모두 현대미술의 중심지가 되고자 하는 야심을 기꺼이 드러내는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인테리어를 보니 처음에 몰랐다가 가까이 가서 보니 질은 녹색이고 세라믹 스킨을 갖고 있는데, 모양이 대나무 모양이었어요. 인테리어까지도 이곳이 중국에 있는 국가 미술관이며 중국의 문화를 이런 식으로 드러내겠다는 노력을 기울인 거죠.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관광객 역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금 여러 사례들을 말씀 드렸는데 이 사례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국가 미술관 혹은 도시 미술관이 그 도시에 기반한 무엇인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지난번 보내주신 건립계획 자료를 다 읽어보고 왔는데, 굉장히 오래

준비하셨고 이 미술관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하고 계시고 미술관이 가져야 하는 아이덴티티를, ‘디아스포라’ 개념까지도 집어 넣어서 굉장히 열심히 살펴보고 계신 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디아스포라’ 개념이 적합하지 않다는 논의도 나왔다는 것 역시 잘 알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인천시립박물관은 이미 있잖아요. 그런데 인천시립미술관을 건립하면서 과연 어떤 목표를 향해 갈 것이냐를 말씀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그 목표점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목표를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앞서 말씀 드린 사례 중 청도시립미술관, 대만의 사립미술관인 푸본미술관, 홍콩 국립미술관인 M+미술관 등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방향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현대미술은 어차피 글로벌하죠. 그들은 현대미술을 다루는 자신들의 현대미술관이 절대로 그 지역의 작은 혹은 쪼그라든 미술관이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야심은 자신들의 미술관은 반드시 세계적으로 움직일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물도 세계적 수준에서 건설할 것이고 소장품도 그런 방향으로 하나씩 하나씩 구축해 나가고 활동 역시 글로벌하게 진행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야심이 다시 그 지역으로 들어가면 꼭 가봐야 하는 정말 중요한, 매우 흥분감을 주는 근사한 컬추럴 뮤지엄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천은 서울, 부산, 다음으로 3대도시잖아요. 그런데 인천은 그냥 3대도시만으로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문화적 자산을 가진 도시예요. 예를 들면 많은 근대 미술인들이 이곳 출생이고 개항이라는 역사와 이민이라는 역사가 있는데, 사실 이런 콘텐츠들을 잘만 버무린다면 지금 말씀 드린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 미술관의 사례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천이기 때문에. 그리고 잘은 모르실 수도 있고 또 아주 잘 아실 수도 있는데 현대미술관은 아니지만 이 도시 곳곳에 뿌려져

있는 여러 문화적 자산들, 인천시립박물관, 차이나타운 그리고 근대의 고유성, 이경성 이런 여러 인물들의 흔적들까지도 현대미술관에서 잘 아카이빙하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으로 전개시킬 수만 있다면 한국의 인천시립미술관을 세계 곳곳에서 보러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인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견지에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도시 미술관이어서는 그 차별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인천시립미술관은 현대미술관으로서 아주 독특한 성격을 구축해 놓아야 이 미술관이 앞으로 30년, 50년, 100년, 500년, 100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미술관이 그 정체성을 처음부터 얼마나 잘 구축해 놓느냐가 건립 또는 개관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많은 도시에 왜 불러 다녔느냐, 두 번째 챕터로 들어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독특한 서울시립미술관 운영 체계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요청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대만 가셔도 발표를 했고, 아부다비에서도 발표를 했고, 태국에 가셔도 발표를 했던 겁니다.

서울시립미술관에 대해 말씀 드릴게요. 서울시립미술관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시죠? 서울시청 주변에 있는 이 미술관은 크지 않아요. 굉장히 작은 미술관이에요. 부지와 전시관 용적을 다 봤을 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이점이 있다면 1920년대에 설립됐던 법원의 파사드를 갖고 있는 전경이 굉장히 매력적인 미술관, 또 천경자 상설전시관을 보유한 미술관, 가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를 하는 어떤 때는 첨단의 미술을 보여주는 미술관 정도로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립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삼성리움미술관이나 혹은 지방의 여러 공공미술관과는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분관 체제입니다. 현재 7개 분관이 있습니다. 서소문의 본관, 북서울미술관, 남서울미술관, 그리고 평창동에 작년 4월에 문을 연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그리고 숨겨진 공간인 여의도 벙커,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등등 해서 7개인데, 매년 외국의 파운데이션 관장들이

저에게 묻는 것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예요. 전체로 봐서는 저희 미술관 안에 큐레이터가 40명 있고 정규직원은 102명입니다. 그리고 전체 계약직 직원까지 더하면 2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개의 브랜치를 더 열 예정이에요. 올해 말에 준공되는 창동의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내년에 준공되는 서서울미술관 두 개를 더 개관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곳들을 매니징하는지 계속 물어요.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줬죠. 만약에 그냥 질서 없이 시스템 없이 운영한다면 쓰러지겠죠. 너무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각각의 브랜치들이 각각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천재 조각가라고 알려진 권진규 조각가의 가족에 의한 기증 작품 영구 상설전시장이 설치된 남서울미술관은 주로 한국 근대미술 혹은 권진규의 예술을 해석하는 용도로 쓰여요. 북서울미술관은 커뮤니티 아트입니다. 노원구라는 지역 중심의 미술관이어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여요. 미술아카이브는 말씀 드렸듯이 한국 현대미술 혹은 서울시립미술관과 관련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그에 기반한 전시를 보여주거나 그 유형을 보여주는 전시관입니다. 사진미술관은 사진을 보여주구요. 그럼 각각의 서브 디렉터들이 있는데 제가 그들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궁금하지 않세요? 외국에서도 그것을 궁금해합니다. 저희는 큐레이터들이 만들어내는 의제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전시 의제와 기관 의제를 정해요. 그래서 올해는 전시 주제가 '건축'이었고, 기관 의제는 '연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끝난 노먼 포스터 전시를 기획했고 그 전시에 18만 4천명이 방문했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자산을 공유해서 아젠다로 나눠주는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 하에서 7개 분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국내에서도 하고 외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의제를 통해 해마다의 주제들도 정하지만 의제 설정 자체가 미술관의 중장기 활동 지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고 미래도 준비할 수 있는 체계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활용해서서 미술관을 급하게 지으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또한 예산과 타협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지으시겠다는 마음도 버리시고 제대로 인천을 대표하되 세계적인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감사합니다. 정체성을 초반에 잘 잡고 운영체계 역시 잘 잡자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 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21년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도립미술관의 초대관장님을 맡으시고 현재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립미술관 개관 과정들과 운영 사례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천시립미술관의 선배로서 어떤 것들이 어려웠으며, 우리가 겪었으나 인천에서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는지 등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



"충분한 시간과 예산을 갖고 개관전시의 기회를 최대한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만나 뵈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10년 전인가요. 아마 대전시립미술관 관장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인천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공청회가 있어 그 때 나간 기억이 있고 그 이후 이렇게 본격적으로 인천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해 말씀 나누게 돼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 드려야 하는데 제 경험이 인천시립미술관 건립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응노미술관을 건립했었어요. 대전시립미술관 관장일 때입니다. 공립 아티스트 뮤지엄이고 작가미술관이죠. 그리고 전남도립미술관은 공립미술관이죠. 지역의 미술사를 키우는 미술관인데, 두 미술관은 차이가 있겠죠. 현재 전남도립미술관 초대관장으로서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중 몇 가지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서진석 관장님도 울산시립미술관 건립추진단장이셨죠. 저도 마찬가지로 전남도립미술관 관장이 아니라 전남도립미술관 건립추진단장이었었어요. 제가 있기 전에는 공무원인 과장님이 계셨던 자리예요. 2020년 4월 6일 개관을 앞두면서 본격적으로 미술계 전문가인 관장을 영입한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시점이 늦었어요. 인천시립미술관은 늦지 마시고 일찍 관장을 선정하셔서 미술관의 건축 뿐 아니라 조직 그리고 전시장 공간 구성까지 건축의 세밀한 내용까지 관여하고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진단장으로 왔을 때, 도에서 10월에 개관을 하고 바로 개관전을 해야 한다고 해서 매우 놀랐었어요. 준공이 계속 늦어지기도 했고 시간상 불가능했기 때문이에요. 9월이 준공인데 한 달 만에 전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관전과 개관을 2021년 3월 22일로 정했습니다. 당시 공무원 분들이 저에게 아예 연기해야 한다고, 지사님과 협의하라고 하셨어요. 진행하고 계셨던 분들이 협의하셔야 하지 않겠느냐 되물었더니 아무래도 전문가가 설득해야 한다고 해서, 지사님에게 우리가 왜 개관 늦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지사님 입장은 미리 정한 개관 일자가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를 어기기 힘들니 되도록이면 지켰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죠. 저도 더 생각을 해 봤어요. 지사님은 공무원 출신이시기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득할 것인지 연구를 해야 했죠. 급하게 미술관을 열게 되면 아직 사용해보지 않은

건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체크하지 못하고 바로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을 예로 들었어요. 미술관처럼 규모가 큰 건물들은 환경호르몬, 누수 등 시설이 가진 약점들이 많고 이 점들을 미리 보완하지 못하고 개관하게 되면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개관일을 늦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 개관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개관전은 그야말로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잖아요. 미술관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결과가 될 것이라는 조바심을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개관전에 대한 부담도 참 많았죠.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세계적 확장성, 시대 흐름을 보여주는 시민들의 체험형 전시 등 아주 흔히 하는 형식의 전시임에도 그 틀 안의 디테일한 내용은 그야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관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관전 준비 과정을 일찍, 지금이라도 시작한다면 앞으로 2~3년 후 개관할 때 훨씬 더 파워풀한 개관이 될 것 같아요. 저희처럼 갑자기 1년 만에 똑딱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시다시피 해외 작가를 섭외하는 데는 절대적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물론 개관전이라고 하니까 웬만한 유명 작가들 대부분이 제안을 수락하더라고요. 짧은 기간이라는 점과 더불어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유명하다는 작가들이 거의 다 참여 의사가 있었어요. 이 역시 참고가 되실 거예요. 미술관 정체성에 맞는 유명 작가를 초대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개관전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개관전의 기회를 최대한 살리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개관전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공간 구성이었어요. 공간이 기능적으로 구성돼야 해요. 그래서 설계 변경 등을 통해서 가능한 한 공간 구성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투여하셔야지 나중에 개관 후 공간을 사용할 때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 전시관은 그야말로 아주 넓은, 천 평 정도의 현대미술을 하기에

훌륭한 공간이에요. 조명 역시 8억에 달하는 많은 예산으로 최고의 조명이라는 에르코 조명을 설치해 굉장히 좋지만 전시에만 중점을 뒀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점이 생깁니다. 요즘은 미술관이 전시도 전시이지만 체험형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새로운 미술관의 형태가 처음에 설계 되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현재 트렌드인 몰입형 영상 공간이 새로운 형태의 예시가 되겠죠. 처음부터 개관전과 함께 전시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공간 배분을 할 것인가에 대해 철저하게 협의하셔서 건축 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다양한 요소들이 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카페테리아 등의 서비스 기능이 굉장히 확대되어야 합니다. 미술관의 내부도 있지만 외부 조경 등도 해당됩니다. 과거의 미술관, 모더니즘 미술관과는 다르게 요즘의 미술관들은 안과 밖이 모두 중요하고 미술관 조경 역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미술관 조경이 처음부터 같이 추진되어야 아름다운 미술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인천시립미술관은 놓치지 않고 진행하셨으면 하고요. 요즘은 또한 현대미술에서 AI라든가 융복합 퍼포먼스 등 새로운 장르의 예술들이 미술관에서 분명히 수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새로운 미술관으로서 형태를 갖추어야 될 것 같아요.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점까지 체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미술관 건립추진팀에서 잘 체크하셔서 21세기에 맞는 현대적인 인천시립미술관의 건축이 완성되기 바랍니다.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관장을 빠르게 섭외해서 개관전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말씀해주셨고, 공간이 건축이 끝난 후에도 현대미술관에 맞는 공간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으니 이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시간 확보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더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 관장님 말씀 듣고 마지막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의향 대전시립미술관

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대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도 광역시이니 인천광역시와 유사한 도시의 위상이 있을 것 같은데, 광역권의 대표 미술관의 특화전략 같은 것이 있을까요? 그런 것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윤의향 (대전시립미술관장)



“지역과 작가 아카이브 작업을 오랫동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카이브는 미술관의 중요한 자원이 된다.”

안녕하세요. 대전시립미술관 관장 윤의향입니다. 저는 2024년 1월 1일에 부임을 해서 다른 관장님들보다 조금 경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특화전략은 저희 미술관 사례를 가지고 파악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지역미술 아카이브를 파악하고 처음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민과 미술인들과 미술관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부터 전통이 될 수 있는 기획을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에서만 가능한 대전과학예술허브의 사례 네 가지를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은 서울보다 작아요. 사실 인천보다도 작을 수 있지만 공간이 작으면 작을수록 서로 더 잘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술인들의 관계가 더 끈끈합니다. 이 관계성을 잘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분들의 정체성을 알려면 아카이브

정리를 잘 해야 하죠. 다행히도 저희 미술관은 1998년도에 완공했는데 당시의 한 학예사 분이 아카이브 정리를 참 잘해놓으셨어요. 이를테면 제자들을 잘 못 알아보실 정도로 연로하신 한 작가분께서 그 학예사분만은 알아보시고 유품 정리를 할 때에도 그 분을 부르실 정도로 가깝게 다가갔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자료들을 꼼꼼히 정리할 수 있었고 이것을 토대로 190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자료로 보는 대전미술이라는 미디어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대전미술의 모든 자료를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대전의 동구청, 중구청, 송촌도서관, 한밭도서관, 대전시립미술관 등에 시스템을 마련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대전미술을 알 수 있게끔 정리를 확실하게 했죠. 그리고 이를 계기로 저는 지역미술조명사업을 기획했습니다. 대전 지역의 원로작가 15명 정도를 선별해서 3년간 연초마다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올해에는 <가고>라는 제목으로 진행됐죠. 다섯 명에서 여섯 명 정도를 선정해서 진행된 이 원로작가전은 전시가 시작되면 작가들의 선배들, 제자 등 모든 분들이 와서 잔치가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관장이 미술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아카이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전미술 직거래 플리마켓을 기획했습니다. 사실 신진작가, 청년작가들은 팔로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전예술고등학교부터 중장년에 가기 전으로 연령 제한을 두고 그 분들의 작품을 부스 140개를 마련해서 대전시립미술관 잔디광장 앞에 설치하고 버스킹, 캐리커처 등 여러 행사를 했어요. 또한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원하는 미술품을 쉽고 빠르게 사기 쉽지는 않기 때문에 가격도 제한을 뒀서 직거래를 통해 미술품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 학생들과 전시 관람을 1년에 두 번씩 갔었어요. 그런데 미술관에 가면 생각보다 관람객이 너무 적습니다. 항상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방법을 모색한 것이 바로

미술관 행사를 야외에서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전시립 미술관에서 전시되는 미술품을 관람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었어요. SNS에 현장을 찍어 올리면 선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사를 해서 관람객을 많이 늘리고 시민과 작가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초기부터 운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대전에는 차세대 작가들의 창작을 지원하는 청년작가지원전 <넥스트코드>가 있습니다. 1998년도 완공된 대전시립미술관이 1999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로 25년째 운영 중입니다. 현재 151명의 작가들을 발굴했는데, 이 작가들이 지금은 곳곳에서 정말 유망한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보람을 느껴요. 올 7월 25일에도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오픈했습니다.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는 2000년도부터 시작됐죠. 이것은 대전의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인프라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과학예술 융복합의 진정한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 비엔날레가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보니 국가의 과학 분야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는 대전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져가는 동시에 과학과 문화도시 대전을 목표로 예술과의 다양한 만남과 확장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대전만이 가진 특화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천시립미술관 역시 아카이브를 초반부터 제대로 정리하며 시작했으면 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 작가들을 처음부터 내 가족처럼 모시며 소통하고 그 분들의 역사가 곧 인천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지역의 작가들을 발굴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의 전략 역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덧붙이자면 전시는 도록이나 팸플렛 디자인, 홍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 역시 전시를 위한 인쇄물 디자인,

홍보에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인천시립미술관도 홍보비를 많이 책정하셔서
홍보에 최선을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윤의향 관장님은 네 가지 전략, 특히 홍보예산을
많이 확보하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세미나 역시 홍보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립미술관 홍보 앞으로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부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전승보 경기도미술관 관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경기도미술관과 인천시립미술관의 공통된
정체성은 수도권의 미술관이라는 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지점에서 수도권
미술관으로서의 차별성이나 운영전략에 관한
많은 고민과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미술관의 공공적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 설정이 중요하다.”**

전승보 (경기도미술관장)

반갑습니다. 경기도미술관장 전승보입니다.
우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저에게 질의해 주신 주제가 ‘수도권 미술관의
차별성과 운영 전략’인데 간략하게 먼저 말씀
드리면, 주제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문제이고
앞서 차별성에 관해 말씀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차별성과 함께 공간 운영
전략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천시립미술관의 현재적 준비 단계가 좀
시급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
기본설계가 나오고 물론 실시설계까지 나와야
하는데, 실시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몇 가지
개념들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먼저 수도권 미술관의 현황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수도권 소재
미술관은 모두 102개 소가 됩니다. 이 중
사립 미술관이 77개소, 공공 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을 포함해서 25개소 정도가
됩니다. 저는 수도권 공공미술관으로
한정해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국립미술관들이 분관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차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덕수궁은 근대미술관으로
차별화해 운영하고 있고요. 청주는 개방형
수장고를 이미 잘 운영하고 있고, 현재 대전
충남도청사를 수장보존 센터로 해서 미술관의
지역 편중을 해소하고, 차별성을 강화하는
국립미술관으로서의 (공간)운영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 서울관 개관 이후에
말 그대로 (물적, 인적)자원의 부족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다만 과천관이
상대적으로 성격이 좀 모호해지고 침체에
빠진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아마 내부에서는
준비가 열심히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미술관은 최은주 관장님께서
잘 소개해 주셨고요. 2013년 북서울미술관이
지역주민 친화형과 수장고 문제로 북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특화된 미술관으로 설립이 됐는데,

이후 10년 동안 말 그대로 중단 없는 추진이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또 (서울 도심지)개방형 수장고 사업 계획에 이르기까지 서울은 골고루 분관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에는 경기도립미술관, 그리고 백남준 미술관이 역시 함께 미술관 성격으로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화성이라든지 여러 지자체에서 특례시를 포함해, 그런 공공미술관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정부 시에서도 기존의 사립 백영수미술관을 의정부시립으로 편입시키면서 특화된 미술관으로 올 초에 전환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희 경기도미술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것이고,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경기도미술관은 지난 2006년 개관해 1년 반 후 2008년도에 경기문화재단으로 위탁 운영이 됐습니다. 도의 직할 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경직된 행정체계라든지 더 활발한 공공미술관 활동을 하기 위해서죠. 다만 현재까지 16년간 재단 소속의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데, 장점이 있겠지만 여러 문제점들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텐데요. 첫 번째가 아마 이 문제는 인천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문화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이라고 하는 것과 공공미술관의 고유목적사업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근 2023년 새로 개정된 『미술진흥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령이 실시돼서 의무적으로 시청과 도청에서 미술 진흥에 관한 정책 수립과 추진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미술진흥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공미술관도 포함하지만 문화재단의 사업이나 소위 아트마켓에 관한 지원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죠. 하지만 다행히 이미 미술관에는 상위법인 박물관·미술관법과 문화재단의 규정에 따라서 공공미술관으로서 추진해야 할 정책 개념과 종합발전계획안을 추진하는 책임이 저희 미술관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방금 말씀 드렸던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고유목적사업과 공공미술관의 고유목적사업에 관한 이해 충돌되는 지점들을 현재까지는 잘 갈무리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공공미술관이 반드시 국립 또는 시립, 도립뿐 아니라 문화재단이라 하더라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 현재 예산 및 조직 직제 편제라든지 또는 단기사업계획에 있어서 아무래도 재단에 있다 보니 불안정성이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할 사업소일 경우에는 바로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가지만 재단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재단 중심의 사고라고 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일례로 보면 조직 직제들이 재단의 필요에 의해 변경이 생기는 등 불안정성이 나타나죠. 또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텍스트를 읽는 것이 아니라 콘텍스트를 읽어야 합니다. 그 자체의 짧은 말이 아니라 긴 시간 속에서 어떻게 흘러 가느냐를 읽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예산과 조직을 바라보고 미술관을 본다는 것은,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래야겠죠. 하지만 이견 기능적 관점이라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규정이나 법제적인 시스템 마련도 중요하지만 공공미술관의 미술관 문화가 성숙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말하자면 법이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들을 지정해 놓은 것이 규정이고 조례이고 헌법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규정이나 조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희망하는 최대의 목표치로 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조례라든지 직제라고 하는 기능적 관점에서의 접근법보다는 미술관이 존재해야 하는 목적 그 자체를 지향한다고 했을 때 미술관 문화의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관점을 먼저 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항상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 권한을 주게 될 때는 책임이 부여되어야 하고 책임을 줄 때에는 권한이 부여가 되어야 될 겁니다.

바로 이런 지점에 있어서 공공미술관에 있어서의 책임경영 문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런 지점에서는 현재 경기문화재단 소속으로 저희들이 16년이 지났는데 많은 지자체에서 미술관들에 대한, 최근에는 대구가 대구미술관을 문화예술진흥원으로 이관을 시켰는데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특히 신생 공공미술관일 경우에 콘텐츠에 있어서의 전문성과 질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미술관 문화가 성숙해야 한다는 것, 이 지점에 있어서는 신생 미술관은 충분히 트레이닝을 거치고 좋은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하고 자기가 경험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죠. 실례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 ‘내가 미술관에 대해 모르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었죠. 미술관에도 많이 가 봤었고, 여러 면들을 봤을 때. 그런데 이제 햇수로 한 10년차를 공공미술관의 디렉터를 경험했는데요. 이런 콘텐츠와 관련된 것, 전시기획과 관련된 것, 작품 안목, 작품 가격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부분들은 미술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체 비중의 50%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절반 이상은 관리와 경영, 또는 지역과의 관계 설정들 조직 내부의 문제, 조직 외부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공공미술관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읽거나 여러 가지 선행사례들을 듣고 하는 것과 직접 미술관을 운영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천 같은 경우 제가 먼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미술관의 핵심 목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각계의 민감한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공공영역이 해줘야 하는 겁니다. 미술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고 또한

여기에서 키워드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모두를 위한 미술관’입니다. 계층과 연령, 다양한 취향 모든 것을 고려한 것을 흔히 차별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칫 잘못해 특정한 미디어 매체나 또는 장르 또는 주제에 특화된 것으로만 갔을 때 광역 지자체가 가져야 하는 광범위한 시민 계층을 끌어들이 수 있는 종합미술관으로서의 면모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성과 결합되어 있는 주제 분야 속에서 또는 그 지역과 관계된 매체분야와의 특화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전의 과학비엔날레, 수원의 주제가 되는 여성미술 나혜석 선생 등이 그 예시가 되겠죠. 광주 같은 경우 역시 지역적 특성을 살린 민주인권평화라는 특화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매년 크게 이뤄지기보다 강약 중간약 식으로 이뤄지면서 중장기적으로 하나의 특화성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정체성은 발전되기 이전에 있는 거죠. 결국 오늘 지금 우리가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단정하거나 규정지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난 30년 동안 미술계 현장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현장의 모습들이 실제 선진국의 미술 생태계의 시스템 모델과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 졌어요. 이 미술 생태계 시스템 모델은 2003년 잉글랜드 아트파운데이션에서 제시한 미술 생태계 모델인데, 이제야 우리나라가 생태계의 형태라고 하는 꼴이 비슷하게 갖춰졌구나 싶고,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내용을 채워나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별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국·공립미술관들을 보면 길게는 35년, 짧게는 20년 동안의 크고 작은 실패와 성공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천시립미술관 또한 선행사례들의 성공 뿐 아니라 실패도 소중한 자산으로 여겨 공부해 나갔으면 하고, 또 인천시에서 역시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별성과 운영전략 중 차별성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고, 공간 운영전략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안소현 선생 발표문에서 ‘인천시립미술관은 오픈포트(Open Port)로서 기능해야 한다, 공간 구분에 있어서 목적성을 지니고 확고하게 구분 짓지 말자, 개방형 공간으로서 얼마든지 가변성이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미술관 공간의 역사적 변화를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897년도 테이트 갤러리가 세워졌을 때 갤러리의 공간 설계, 그리고 100년 후 테이트 모던의 공간 설계, 또 2004년도에 오픈한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의 공간 설계 등을 보면 각 미술관들마다 그 시대에 합의하고 있는 미술관의 기능에 맞는 공간 설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테이트 모던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는 보다 관람객들을 위한, 문화관광 등의 효과들을 더 노리고 있다라고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포용성과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역의 미술관 같은 경우에 지역 성장형 프로그램 전시와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공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가나자와(21세기 미술관)의 사례를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미술관의 공간 운영 전략이 콘텐츠적 측면에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고, 다음으로 첫 부분에 언급했던 300만 인천시민에게 서비스하는 미술관, 쉽게 말해서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미술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한 고민에서부터 항상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감사합니다 관장님. 이어서 서진석 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서진석 관장님께서서는 작년에 운영방안 연구용역 세미나에도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미술관 컬렉션에 대한 주제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인천시립미술관을 위해서 실무론적인 관점에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천이 시립미술관 후발주자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오히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이자 전환의 기회라고 볼 수 있다.”

서진석 (부산시립미술관장)

서진석입니다. 제가 공공로써 대안공간을 한 15년 이상 운영을 했고 또 울산시립미술관도 마침 개관 준비를 위해서 건축적인 것부터 경험을 했었고 또 부산도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부산도 이제 재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공사를 들어가는데요. 제가 예전에 대안공간을 운영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주로 관심이 많았던 것이 미래형 매개 공간의 새로운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미술관의 역사적 개념을 한번 살짝 훑어본다면 19세기 이전 미술관의 개념은 캐비닛과 갤러리였고 특권층만 문화 정보와 지식을 향유했었죠. 비로소 우리가 계몽주의 시대에 서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기술적 근대화와 사회적 근대화가 일어났을 때 비로소 퍼블릭 미술관 우리가 잘 아는 루브르,蓬皮두가 가장 선도적으로 나왔었고 그 다음은 또 패러다임이 뉴욕으로 넘어가면서 수정 자본주의가 대두하면서 또

유미주의 시대에 모마, 구겐하임 미술관이 대표 미술관을 자처하며 그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해왔죠. 신자유주의 80년대 이후에는 상업주의 시대의 런던 테이트 모던을 세계를 리딩하는 대표적인 미술관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미술관 저널리즘, 화랑 시스템, 그리고 미술상 시스템이 사각의 서클레이션으로 와이비에이(YBA: 영국의 젊은 작가들) 무브먼트를 만들어내는데 테이트 모던이 큰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미 60년대부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계몽주의 미술관, 유미주의 미술관, 상업주의 미술관을 벗어나서 새로운 21세기의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에 걸맞은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하는 새로운 미래형 미술관이 필요하다는 화두가 대두되기 시작했죠. 후퍼 그린힐이 ‘포스트 뮤지엄’이라는 개념을 얘기하기도 했었고, 니나 사이먼이 ‘사회 참여적 미술관’이라는 개념을 만들기도 하며 이미 20세기 말부터 전 세계 미술관이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21세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루브르, 폼피두, 모마, 구겐하임 또 테이트가 아닌 새로운 비엔날레 시스템이나 아트페어 시스템이나 미술관 시스템을 대체하는 새로운 무브먼트의 미래형 미술관이 나올 텐데, 저는 공유와 공공의 시대라고 지칭합니다만 그러한 시대적, 미술사적 미술관이 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 미술관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카를스루에 예술과 미디어 센터(ZKM)이 <오픈코드(Open Codes)>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또 테이트 모던도 <노 소울 포 세일(No Soul For Sale)>이라는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지금 실험을 하고 있죠. 요지는 21세기에 들어서 미술관이 가지고 있던 전문성이라는 권위와 권력이 대중들에게 이양되고 있고 문화 위계도 하위 문화, 상위 문화가 없어지며 장르 자체도 융합적으로 바뀌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미술관의 개념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미래형 미술관이 대두돼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미술관들마다

그 이름을 선점하려고, 시대사적 미술관에 있어서 과거 미술관의 브랜드를 선점하려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시립미술관에서도 그런 시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오히려 후발 주자가 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 시대사적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부산시립미술관은 경쟁 상대가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서울시립미술관이 아니라 모마나 구겐하임이고 우리는 향후 21세기에 히스토리를 써 나아갈 새로운 공유와 공공의 미래형 미술관을 최초로 시도하는 선도적인 미술관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고 너무 중요한 기회의 시기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학생들한테 뭐라고 이야기 하나 하면 ‘단군 이래 최대의 기회가 왔다’라고 합니다. 농담 삼아서, ‘나는 한방론이라는 걸 믿는다, 단 한 방에 갈 수 있다’고도 하죠. 여러분 요즘에 보면 노키아도 한 방에 가고 코닥도 한 방에 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과 애플이 한 방에 뒀단 말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미술적 활동의 서클레이션도 굉장히 빨라졌어요. 옛날에 30~40년 걸릴 게 20세기에 와서는 5~10년으로 단축이 됐고 지금은 5년 안에 다 결판이 납니다. 하나의 작가가, 하나의 미술관이, 세계적인 작가로서 신진에서 기성 작가로 가는 그리고 신진 뮤지엄에서 유명한 미술관으로, 브랜드가 있는 파워풀한 미술관으로 가기 위한 서클레이션이 과거에는 20~30년 걸렸던 게 지금은 5년 안에 다 판가름 나는 시기거든요. 굉장히 빨라졌죠. 더군다나 ‘The winner takes it all.(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간다.)’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이 좋은 기회의 시기, 또한 시대적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아젠다들이 다수 창출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19세기 근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새로운 사회적 이슈와 아젠다가 나왔고 그것을 서유럽이 다 선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공부하고 있죠. 저는 시대적 아젠다와 이슈들이 나올 때 그걸 먼저

선점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좋은 시기에 인천시립미술관이 미래형 미술관을 지향한다면, 지역의 게토 안에서 지역민만을 위한 미술관이 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콘셉트를 그렇게 안 잡고 로컬리티의 세계적 미술관을 지향을 한다면 미래형 미술관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째가 운영의 순발성이고요. 그리고 둘째가 조직의 유기성, 유동성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기획의 선도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장르의 확장성입니다. 이 네 가지 기본 전제를 가져가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형 미술관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적 서포팅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하나 제가 다시 설명을 한다면 운영의 순발성, 안돼요. 저도 공공기관에서 일을 해봤지만 아까 비행기표 하나를 끊더라도 일주일 내지 2주 심지어는 한 달이 걸립니다. 계획 보고 올리고 다 결재를 받아야 되죠. 제가 갑자기 출장 일정이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다음 주에 싱가포르 미술관 관장 아니면 하쿠다 켄이 일본에서 보자고 한다면 한 달 안에 또는 1주 안에 못 갑니다. 출장 보고해야 되잖아요. 심사 다 받아야 되잖아요. 한 달마다 한 번씩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연가 내고 가는 상황이 돼버리겠죠. 근데 제가 해외 미술관들한테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가, 특정 미술관을 지칭해서 죄송하지만 국립현대미술관에 프로포절을 냈는데 한 달 뒤에 답이 왔대요. 자기네는 안 하는 줄 알았답니다. 그리고 벵크아트라는 일본의 사립미술관이 ‘우리 쪽에서 비용을 모두 부담할 테니 크로스 크리티크, 작가들 교환 프로그램을 하자. 너네 돈 안 내도 돼’ 하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입니까? 그런데 한 달이 걸렸어요. 그걸 결정하는 데. 제안한 쪽에서는 안 기다리죠. 호주에 아트스페이스라는 곳과 체결해버렸죠.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디지털 시대는 엄청난 가속도의 세상이지요.

엄청나게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고 특히 금융 쪽에서는 1초 안에 클릭 안 하면 몇 백억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들은 이미 80년대 이후로 치프 인베스트먼트 오피서 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권한과 권리를 팀장 개개인들에게 다 부여를 해서 그 안에서 바로 실행을 해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 운영의 순발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조직의 유동성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내부 조직에 있는 큐레이터가 외부 프로젝트를 할 때나, 내부 프로젝트에 기획자를 부르는 것이 우리나라 운영 시스템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국공립 미술관에서는 큐레이터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요. 스타 큐레이터가 없어요. 모리미술관의 마미 카타오카, 뉴뮤지엄의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네이밍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마미 카타오카는 모리미술관에서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해외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비엔날레 감독도 맡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미는 나가서 자기 브랜드를 키우죠. 비엔날레 총감독을 하고 그 인프라를 모리로 다 가지고 오죠. 그래서 모리미술관이 일본에서 브랜드 있는 미술관으로 성장하죠. 우리나라는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됩니다. 저도 외부에 나갈 때, 하물며 강의 나갈 때도 신고하고 나가야 됩니다. 겸직 신고도 해야 되고 강의 신고 해야 하고. 우리도 외부 기획자를 쓰고 싶죠. 테이트 모던만 하더라도 외부의 탑 기획자들을 어소시에이트 큐레이터, 어소시에이트 디렉터 시스템으로 부릅니다. 지금 미술계 생태계에 핫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렀다가 내보냈다가 불렀다가 내보냈다가 하면서 조직의 유동성을 가지면서 미술관 네트워크와 인적 인프라가 확장이 되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하물며 외부 큐레이터한테 큐레이션 피를 줄 수조차 없어요. 업체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울산시립미술관에 있었을 때 전시 4개를 기획했는데요. 그 중 절반은 외부 기획자를 썼습니다. 아데 다마완 카셀 도큐멘타 디렉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그러면 우리 기획자들도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가 확장이 되죠. 그래서 조직의 유동성이 있어야지 기획자를 키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람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사람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획의 선도성은 당연한 거죠. 우리가 1년 단위로 잡지 않습니까 스케줄을. 근데 해외에서는 보통 전시 계획을 하나 할 때, 어떤 동시대 아젠다가 가장 핫하고 중요하고 선도적인지 1~2년을 먼저 연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시를 준비하는 기간은 6개월밖에 안 돼요. 6개월에서 1년밖에 안 됩니다. 연구 기간이 길고 전시 실행 기간이 더 짧은데 우리 나라는 반대가 됐죠. 기획은 금방 해버리고 실행 과정은 오래 걸리죠. 그런 시스템 안에 있어서는 기획의 선도성이 힘들죠. 뒷북치고 해외 전시만을 가져오게 되죠. 해외에 좋은 전시들을 수입하지 우리가 좋은 기획과 아젠다를 잡아서 수출하는 전시는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전시는 딱 한 건 있었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 제가 ZKM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아시아 미디어 페스티벌>이 그렇게 진행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르의 확장성은 당연한 거죠. 이제 미술관은 모든 장르들이 융합적으로 보여줘야 되죠.

운영의 순발성, 기획의 선도성, 조직의 유연성, 장르의 확장성 이 네 가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이 돼야 할까요. 저는 과거의 피라미드 조직에서 공동체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평적 공동체’를 지향해야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권한과 의무가 관장한테 다 집결이 돼서 관장의 지시에 의해서 내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어떠한 비전과 아젠다와 방향성, 미션을 공유한 사람들끼리 모인 공동체 그래서 권한과 권위도 권한과 의무 책임도 나눠 갖는 그런 공동체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세계 미술계는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트페어도 조직적 개념에서 공동체 개념으로 바뀌고 있죠. 베를린 갤러리 위크 같은 경우가 좋은 예입니다. 비엔날레의 경우에도 지금 트라베르세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하나의 아젠다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40명의 큐레이터가 모이죠. 이 같이 조직에서 공동체 개념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드웨어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재건축을 하면서 미래형 미술관을 가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어떤 구조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건축적 구조를 가져야 하느냐 제 나름대로 연구했던 것이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저탄소 미술관, 로우카본 뮤지엄 그리고 두 번째가 유동적 가변성입니다. 유동적 가변성이라는 건 제가 ‘트랜스포밍 스페이스’라고 명명하고 싶은데요. 미술관 안에 어떤 기능들이, 벽 어떤 공간의 구조가 트랜스포밍을 하면서 그 기능에 따라서 전시 공간도 될 수 있고 스토리지도 되기도 하는 등 기능이 다변하게 변하게 되는, 화이트 큐브가 될 수도 있고 블랙 큐브도 될 수 있는 가변의 유동적 공간을 말합니다. 세 번째가 경계 해체성입니다. 리미널 스페이스. 그래서 부산시립미술관은 안과 밖 위 아래 수직적 수평적 구조가 시각적으로 다 해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경계가 없게 만들어버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의 다면성, 멀티 컬처럴 스페이스라고 해서 저희는 문화 편집샵, 다시 말하면 문화 위계가 없는 하위 문화, 상위 문화 다장르가 결합된 공간적 특성을 갖게끔 이 네 가지 원칙으로 지금 공간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역 미술관에서 일을 하면서 매우 안타까웠던 부분인데요, 아마 유사한 부분이 인천시립미술관에도 발생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시 행정과의 소통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과의 이해관계입니다. 아마 지금부터 지역의 미협 심지어는 여류 수채화 동호회, 수석협회 등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전화를 받으실 겁니다. ‘지역 미술관은 지역인들의 것이 돼야지 왜 외지인들의 것이냐 우리 세금 가지고 하는데’ 와 같은 반응들일 겁니다. 실질적으로도 지역 예술인들은 우리 미술관이 생겼으니 마음껏 전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술관의 비전과 미션이 ‘지역민들을 위한 미술관’이라면 그렇게 가서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만약에 시 문화 생태학적으로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미술회관도 있고 인천아트플랫폼도 있고 이미 다양하게 있으니 시립미술관 정도 하나는 세계적인 미술관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관람객 비율이 인천시민 40~60% 가량, 나머지 한 30~40%가 외지인이 되도록 말입니다. 테이트, 구겐하임도 다 그렇거든요. 그러려면 저는 지역 미술계와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관장의 역할도 있겠지만 항상 소통을 해야 할 것이고, 게토가 되면 안 되죠. 자칫하면 게토가 돼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 행정과의 소통 관계를 볼 때, 현재의 행정제도 내에 예술행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미술관들은 시 행정 제도를 씁니다. 예술행정이 아니죠. 그렇다 보니 어떤 행정국장님이나 행정팀장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너무 일이 쉽고 또 어떤 때는 일이 너무 어려워요. 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부터는 그 이해관계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미래형 예술행정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부산시립미술관은 내년에 전 세계 미술관에 행정팀장님을 불러다가 미래형 예술행정 매뉴얼 북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법인 문제도 얘기가 나왔고, 사업소 개념, 재단 밑으로도 한번 넣어봤고 또 책임운영기관도 한번 해보고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범위 내에서 예술행정이라는, 진정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아직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돼야지 아까 말씀드린 기본 전제조건 네 가지가 다 성립이 되고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서진석 관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관장님의 발표는 다 들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더 질문을 하고 싶거나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먼저 질문을 받기 전에 제일 처음에 발표하신 최은주 관장님, 마지막에 운영 체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싶으셨을 텐데 너무 짧게 딱 끊어진 것 같아요. 서진석 관장님께서도 조직과 운영에 대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다 말씀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그런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시립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다가 중간에 끊겼는데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

서울시립미술관은 대형 미술관에 속하죠. 구조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큰 미술관에 속하는데 이런 미술관을 운영을 하려면 사실은 들어가 봤을 때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서울시립미술관은 책임운영기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3급 기관장 아래 책임 운영 체계를 갖추고 관장이 책임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물론 서울시하고의 많은 역할 분담이 있죠. 특히 신규 미술관 건립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서울시 안에 박물관과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박물관과에서는 미술관 건립 같은 큰 사항을 정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미술관장은 미술관의 운영과 관리 감독 역할을 가져요. 그래서 이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서울시 박물관과에서 서울시립사진미술관 건립 계획을 약 4~5년 세우죠. 그리고 지금 공정률이 95%까지 갔거든요. 다 지어졌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아마 시 체계도 비슷할 텐데 프로세스의 큰 틀에서 보면 기본 계획, 미술관을 하나 세우겠다는 기본 계획을 용역을 주죠. 그 다음에 설계할 사람 선정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전개가 되죠. 인천시립미술관도 그 단계를 넘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 그 다음 기타 등등 돼 있는데 그 과정까지의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을 세우고

운영하기 위한 임시 조직을 박물관과에서 갖고 있게 돼요. 미술관으로 안 넘깁니다. 그러다가 이달 7월 1일에 박물관과 조직에서 떨어져 나와서 정식으로 직제를 인정을 받아서 5급 기관으로 승인이 됐고 5급 사무관 급이 이제 관장을 할 겁니다. 관장 공모해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7월 1일자로. 그 사람이 향후 몇 년간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의 관장으로 활동을 할 텐데 그들이 지금 임시 조직에서 정식 조직으로 되면서 미술관으로 조직이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돼서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이 완전히 준공되고 그 다음에 개관할 때까지의 모든 디테일을 살피고 있고 그 다음에 개관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계속 그렇게 해온 것 같아요. 이렇게 분관이 설치되면 먼저 인큐베이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 여러 행정적인 일들을 할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전문기관, 여기서 중요한 건 전문기관이라는 겁니다. 현대미술 분야에서 사진 영역을 개발해 낼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이관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오는 범례들이 있는데 이 범례가 내년에 준공될 서서울미술관도 똑같이 준용이 될 것 같아요. 거기도 5급 기관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장황하게 드리냐 하면 결국 시립미술관이란 시 행정과의 아주 긴밀한 협력 체계가 없으면 분쟁만이 남아요. 그러니까 분쟁이 없어야 예산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고 분쟁이 없어야 성공적인 개관을 할 수 있습니다. 제 목표는 서울시하고 어떻게 하면 긴밀한 관계를 계속적으로 잘 유지를 할 것인가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국공립 미술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사진전문미술관이 내년 5월 정도에 개관전을 하게 될 예정이거든요. 저는 전문직 출신 관장으로 그 미술관이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고 전 세계 현대 사진계하고도 동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진전문미술관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회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목표의 선명성을 쥐고 새 미술관의

건립을 향해서 차근차근 스텝을 밟다 보면 저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작년 3월 30일에 서울시립미술관장으로 부임을 했어요. 금요일이었어요. 그 다음주 월요일인 4월 3일에 서울시립미술관 아카이브가 개관식을 했습니다. 부임한 지 3일밖에 안 된 관장인 제가 개관식을 주도했어요. 지금 서울시립 아카이브는 1년 동안 운영이 되면서 국내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인 견지에서 미술 아카이브 미술관으로서의 제대로 된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공무원 체계에서 행정력과 전문적인 영역이 함께 만나니까 이것이 가능했다고 봐요. 좋은 사례들을 서울시립미술관이 보여주고 있으니 특히 인천시립미술관 건립단에서는 더욱 유심히 보시고 이어서 서서울미술관도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건립 진행하시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건립과 관련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질문1

박선홍 (더인천 발행·편집인)

인천이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시립미술관이 이제야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자존심도 상하지만 한편으로 기대감도 큼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진행 상황에 대해 아쉬움도 많습니다. 미술관 설계 공모를 비롯해 하드웨어 측면이나 인천시민 대상 홍보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인천시립미술관에는 인천시민뿐 아니라 공향을 통해 유입되는 외국인도 있을 테고, 서울과 경기권에서도 올 것이라고 봤을 때 인천만의 지역성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또한 많습니다. 관장님들께서 지역성과 국제성 등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해주셨는데,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디아스포라’의 경우 인천시에서 이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떤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승보 (경기도미술관장)

큰 범위 내에서의 그런 지점이라고 봤을 때, 인천이 가지고 있는 위상과 다시 만나게 되는 ‘허브’적인 역할로서의 인천공항이 ‘노마디즘’적 의미에 있어서 ‘디아스포라’라는 유의미한 주제를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미술관의 정체성을 ‘디아스포라’에만 한정하라는 것이 아니죠. 여러 주제들 속에서 하나의 정체성으로 ‘디아스포라’를 아카이빙하고 자료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글로벌리즘을 지향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의미한 주제입니다. ‘디아스포라’, ‘이산’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인천 외)지역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부산 정도인데요, 인천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21세기의 노마디즘’을 재해석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구과제로 계속 형성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서진석 (부산시립미술관장)

아까 앞서 말씀 드렸던 것을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시립미술관을 만들 때는 시립미술관만 보거든요. 그런데 인천이라는 도시의 개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에는 다양한 문화 공간들이 있고 각각의 문화 공간들은 각각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고 각각의 미션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각각의 차별성이 있고요. 이 부분들을 생태학적으로 맵핑해서 각각의 차별성을 획득하고 협업과 차별, 협동과 분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립미술관을 만들면 사람들이 미술관이 뭘해야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A부터 Z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신진 작가부터 기성 작가까지 모든 걸 다 포용할 것을 요구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른 공간들은 시립미술관 때문에 장사가 더

안 돼요. 차별화가 되면 각 곳의 관람객들이 늘기도 하고 상호 상생이 되는데, 시립미술관의 막강한 예산과 권력으로 뒤편이 돼 버리면 기존 한식집, 일식집, 양식집은 다 망하게 되는 원리죠. 그래서 제가 울산에서도 그랬고 부산에 가서도 처음 했던 것이 어느 정도 느슨한, 공동체 조직이나 협의체가 아닌 가칭 ‘부산미술 번영회’를 만들어서 지역 문화 공간들과 소통을 한 것입니다. 한 곳은 미디어 아트를 하도록 하고 현대미술관은 다른 분야를 하고, 때로는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점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립미술관에 어떠한 위치가 만들어지겠죠. 로컬과 글로벌 측면에서 각각 역할이 있을 겁니다. 로컬에서는 다른 공간들이 못하는 것을 대안해주면 되는 거고요. 저는 예전에 인천아트플랫폼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인천을 나름대로 경험을 좀 많이 했습니다. 부산하고 인천을 볼 때 비슷한 점도 많지만 특히 인천의 장점은 이곳은 지역이라기보다 수도권역이죠.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 작가라는 경계가 너무 모호하더라고요. 정주, 출생, 출향 작가를 구분할 때도 너무 모호하죠. 인천시립미술관이 수도권을 대안할 수 있는 미술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참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고, 공항은 전 세계인이 다 모이는 곳이니 엄청난 메리트가 있습니다. 또한 문화 생태계도 상당히 좋아요. 파라다이스시티부터 지금 이 공간도 그렇고 대안 공간들도 여럿 있고 문화적 자산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윤의향 관장님도 추가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향 (대전시립미술관장)

대전도 제2시립미술관을 추진 중입니다. 역시 처음부터 세계화를 할 것인가 지역을 대표할 미술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콘셉트가 따라줘야 될 것 같아요. 대전 제2시립미술관은 빌바오의 구겐하임처럼 예산을 따로 세우지

않고 건축부터 먼저 설계해보고 예산을 맞춰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유명한 미술관들, 빌바오 구겐하임, 테이트모던, 나오시마 이런 곳들의 건축가들은 다 건축의 노벨상 프리츠커상 받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 건물 자체만으로도 브랜드화가 돼 세계적 명성을 가지죠. 그런데 역시 프리츠커상을 받은 우리나라의 DDP에는 아쉽게도 휴식의 공간이 없어요. 빌바오 구겐하임 앞에는 네르비온 강이 운치있게 흐르고 관람객들은 평화를 느끼고 안식을 느낍니다. 나오시마도 또한 세토내해 라는 평화로운 휴식공간을 갖추고 있죠. 테이트 모던도 템즈강이 앞에 흐르고 있고요. 시멘트 같은 딱딱한 건물 곁에 물이 함께하면서 사람들이 편안함과 특별함을 느끼게 됩니다. 전시 역시 특별해요. 그곳에만 있는 전시를 합니다. 테이트 모던에 있는 터빈홀에 전시되었던 미끄럼틀을 보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관람객이 오죠. 뚜렷한 콘셉트를 가지고 설계부터 마무리까지 작은 부분들도 꼼꼼하게 다루며 진행된다면 지역의 미술을 번영시키면서도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발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2

권오승 (인천광역시청 시립미술관팀장)

네 감사합니다. 여러 의견들을 듣고 나니가 생각이 더 복잡해지네요. 건립 예정인 미술관 부지 옆에 선교사 사택이 있어요. 8개 동이 있는데 미술관에서 4개 동을 활용하고, 다른 4개 동은 박물관에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거라 공간도 그렇게 넓지는 않아서 저희가 어떻게 이곳을 활용해야 할 지 고민 중입니다. 좋은 방안이 있을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윤의향 (대전시립미술관장)

미술관 건물 옆에 또 다른 공간이 있군요.

작가 지원 공간으로 만들고 전시도 같이 할 수 있게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에도 신진 작가들의 창작을 지원하는 창작센터가 있는데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청년 작가들이 전시 기획을 하니까 제목도 트렌디하고 다양한 주제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형식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

사실 장소를 봐야 될 것 같고 규모도 직접 봐야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막연하기는 합니다. 쉽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들로는 레지던시, 다양한 협업 공간으로의 활용, 교육 운영 공간 등이 있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어떤 크기인지를 알아야 적절한 대안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개관전 이야기도 여러 번 나왔잖아요. 개관전이라는 것은 사실 딱 한 번의 전시가 아니라 그 미술관에서 개관 1년간의 전시를 개관 전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진석 (부산시립미술관장)

‘오픈 플랫폼’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리미술관에 ‘맘 프로젝트’라는 게 있고요. 모마에는 ‘프로젝트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공간들은 젊은 작가, 젊은 기획자, 글로벌 기획자,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언제든지 들락날락하면서 자기 작업을 보여주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소통하고 공유의 장이 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입니다. 선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서구 문물이 들어오는 하나의 메인 플랫폼이었으니까 그런 오픈 플랫폼으로, 젊은 큐레이터, 넥스트 큐레이터, 넥스트 작가들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저는 지역 문화 정체성이라는 것에 대해, 잘못하면 우리가 그것에 발목 잡힐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적 문화 정체성 자체와 그것을 반영해야만 한다는 집착에서 아예 해방돼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현재도 정체성이지만 현재부터 미래에 만들어 나가는 것도 정체성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바우하우스 데사우라는 도시도 20세기 초반에 정체성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뉴욕이라는 도시도 엄밀히 말하면 19세기에는 정체성이 없었어요. 20세기 이후에 뉴욕의 정체성이 만들어졌듯이 저는 진짜 괜찮은 아젠다와 이슈, 동시대성을 잡는다면 그것을 가지고 향후 21세기의 문화 정체성을 인천이 지금부터 만들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윤의향 (대전시립미술관장)

제가 또 하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뭐든지 완벽하면 다시 만들 필요가 없고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지원을 하실 때 어느 한 장소를 만들더라도 예산을 잘 꾸려서 전혀 부족함이 없이 완성도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술관에 많은 이들이 오게 하기 위해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완성도 있는 건물, 작품,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너무 아쉬워서, 인천시립미술관을 위해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전승보 (경기도미술관장)

저는 아까 선교사 사택 같은 경우, 타 지역에서 이것저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광주 같은 경우에 중심 건물인 선교사 사택 건물은 물론 100년도 더 된 근대 문화재죠.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일반 목사님들의 관사는 작가들의 레지던시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은 공공재산은 아니고 신학대학 소속인데, 저는 인천 개항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도 되겠지만, 한국 근대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선교사들이 호남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코스와 인천 지역으로 들어오는 코스가 가장 오래됐고 둘 중 인천이 더 오래됐죠. 한국의 근대 역사의 한 부분을 문화관광의 역할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기독교 근대 유산인 선교사 사택을 기독교 선교역사 기념관 등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지던시나 여러 가지 기타 공간들은 새로 만들 수도 있고 또 그외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지만, 선교사 사택은 정말 귀중한 인천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니만큼 역사적 특색을 보여주는 공간이 됐으면 합니다.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미나는 선교사 사택 근처에서 진행하고 사택을 직접 본 후 토론토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요. 전문가분들에게 의견도 듣고 공간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1차 세미나를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2차, 3차 세미나도 일정이 공개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이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영상 및 자료집으로 제작되어 인천시립미술관 건립·개관을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 전문가 연구세미나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미술 담론

2024.08.27.(화)

(구)OCI사옥, 선교사 사택

- 김재업 인천예총 회장
- 박진이 인천미술협회 부회장
- 정평한 인천민예총 미술위원회 위원장
- 차기울 인천대학교 교수
- 이병수 인하대학교 교수
- 이장원 인천카톨릭대학교 교수
- 이보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 류은규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교수
- 염지희 2024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
- 조경재 프로젝트 스페이스 코스모스 대표
-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모더레이터





1부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안녕하십니까? 인천시립미술관 건립·개관 사전홍보 프로젝트 2차 전문가 연구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무소속컴퍼니의 임성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전문가 연구세미나는 인천과 인천 예술을 사랑하는 인천의 대표 작가님들 열분을 모시고 2028년 개관 예정인 인천시립미술관의 방향성을 가늠해 보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참석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발제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재업 인천예총 회장님입니다. 박진이 인천미술협회 부회장이십니다. 정평한 인천민예총 미술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차기울 인천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이병수 인하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이장원 인천카톨릭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이보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류은규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교수님이십니다. 염지희 2024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님이십니다. 프로젝트 스페이스 코스모스 대표 조경재 작가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제 옆에는 이 모든 사업을 총괄하고 계신 한명숙 인천광역시청 문화기반과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한명숙 과장님의 개회사를 들겠습니다.

한명숙 (인천광역시청 문화기반과장)

안녕하세요. 인천시 문화기반과장 한명숙입니다. 이번 사전홍보 프로젝트 2차 전문가 연구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바쁘신 중에도 연구해 주시고 발표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인천예총 김재업 회장님, 인천미술협회 박진이 부회장님, 인천민예총 미술위원회 정평한 위원장님, 인천대학교 차기울 교수님, 인하대학교 이병수 교수님, 인천카톨릭대학교 이장원 교수님, 경인교육대학교 이보라 교수님,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류은규 교수님, 염지희 작가님, 조경재 작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립미술관 건립·개관에 관심을 갖고 세미나에 참관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천시민과 지역 예술계의 오랜 염원을 담아서 28년 개관을 목표로 인천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년 개관 시까지 시민, 지역 미술계 전문가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서 지역 대표 시립미술관 위상을 강화하고자 매년 단계별로 공론화 과정과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들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미술 담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말씀해 주시는 고인들은 우리 시 홈페이지와 10월 말 시민참여 공개포럼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공적인 미술관 개관 준비에 초석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미술관을 조성해서 글로벌 타운시티 도시의 품격과 인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네, 다음은 권오승 시립미술관 팀장님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승 (인천광역시청 시립미술관팀장)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시립미술관 팀장 권오승입니다. 지금부터 인천시립미술관 건립 개관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립미술관 건립 장소는 지금 이 자리인데요. 미추홀구 학익동 587-53번지 일대에 기존 시립박물관 확장 이전과 함께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사업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뮤지엄파크 연면적은 39,625㎡이고요. 미술관 시설 연면적은 13,739㎡이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입니다. 2019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 그리고 2021년 6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2022년 8월 국제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토문건축사 사무소 컨소시엄의 <경관의 기억>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건축 설계는 완료되었고요. 곧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 올 하반기에는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2차 심사가 예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3개년에 걸쳐 인천미술사 조사·연구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건립과 개관 과정을 공유하기 위한 사전홍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미술관 건립, 개관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처음 파트로는 인천예총, 인천미술협회, 인천민예총 대표 작가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인천 지역작가연합을 아우르고 계시는 만큼 지역미술계의 현황과 지형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김재업 인천예총 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인천예총을 중심으로 인천 미술계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소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재업 (인천예총 회장)

안녕하세요. 인천예총회장 김재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광역시의 경우 보통 한 10년에서 20년 전에 미술관을 다 보유하고 있는데 늦게나마 인천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잘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미술과 관련한 분야별로 얘기를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인천에 시각전문예술법인 단체와 그 다음 전문법인 미술단체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전문예술법인에 예술인들과 미술시장의 규모나 메세나 활동 이런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시각예술법인은 대략 한 5개 정도로 나뉩니다.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인천지회, 사단법인 인천미술협회로 칭했습니다. 인천미술협회와 사단법인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사단법인 미술협회 강화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지회가



“인천시립미술관이 인천 작가 활동과 미술시장 성장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있고 건축사협회가 인천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천민예총 미술위원회 등이 시각예술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1년도 기준으로 볼 때 전문예술법인 인천미술협회와 사단법인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조직위원회 그리고 인천사진작가협회에서 정말 행사를 거의 많이 주도하고 있고 특히 건축가협회는 사업이 6개 이상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미술, 사진, 건축 모두 협회당 한 4개에서 6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고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필요한 분한테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활동하는 자원을 보면 미술협회의 경우 2024년도에 회원이 1,200여명 이상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20년에 910여명에서 300여명 가량이 근래에 증가했습니다. 사진 분야도 증가하고 있고 건축 분야에서도 보면 작년도에 한 450명에서 올해 510명 정도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천의 미술시장의 상황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미술 구입을 안하고 전에는 서울에 가서 구입을 많이 했는데 근래에 인천의 미술인들과 협회 그리고 인천의 기업인들이 많이 노력을 한 결과 인천에서 좋은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고 또한 메세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인천코리아아트페스티벌 부스전이 송도에서

개최되는데 한 130개 부스로 전시도 하고 또 거기서 메세나도 일어나고 하는데, 22년도에 금액적으로는 약 2억 5천만원 정도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때 작품이 159점이 판매가 됐는데 23년도에는 금액은 높아졌어요. 2억 9천만원, 3억 가까이 판매가 되었는데, 작품점수는 120점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무래도 22년도에 인천에서 미술 작품이 많이 구매하는 인구가 늘어났고 23년도에는 기존에 서울로 가야 될 좋은 미술 작품들이 인천에서 전시되면서 판매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협회와 작가 그리고 후원사, 우리 인천에 있는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계라든지 또는 관련 있는 이런 분들이 후원을 많이 해 줍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인천의 전문 법인 미술단체하고 단체별 활동작가 현황, 진행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인천의 미술 작품 메세나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인천의 미술관이 개관되고 많은 미술 분야의 작가들이 참여한다면, 사실 서울에 가려져 있던 인천 미술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시민과 함께 가치를 인정받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진이 인천미술협회 부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미술협회 중심으로 인천 미술계의 현황과 지형도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진이 (인천미술협회 부회장)

네, 안녕하세요. 인천미술협회 부회장 박진이입니다. 작년 인천미술협회 주간 행사 중 전시 기간이 총 4일간 진행된 행사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7일 정도 진행되는 전시였지만 전에는 보기 드문 뽀뽀한 전시 일정으로 급하게 마무리되어 아직도 그 여운은 길게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인천의 작가라면 인천광역시의 전시 공간이



**“인천 작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니
인천시립미술관이 구심점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턱없이 부족하다고 인지되는 것이 비단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먼저 말씀 드렸습니다. 2023년 기준 인천미술협회 총 회원은 1,091명입니다. 인천미술협회는 11개 분과로 나뉘져 있으며 한국화 141명, 서양화 483명, 수채화 149명, 조각 36명, 평론 1명, 공예 53명, 디자인 15명, 판화 6명, 서예 126명, 문인화 66명, 민화 15명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을 보면 회원이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 인천미술협회 사업 내용을 말씀 드리면 문화예술단체 보조사업 4건과 육성 지원사업 2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까 인천예총회장님이 말씀하셨기에 시간 관계상 제가 2건의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미술한마당아트페스티벌은 인천의 미술인 동호인, 학생, 일반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문화축제 행사입니다. 총 422명이 출품하였으며,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인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가온갤러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59회 전국 공모 인천미술대전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미술대전으로 전국의 신진 작가를 발굴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천 미술의 위상을 알리는 미술대전입니다. 286명이 수상하였으며 기간은 2023년 12월 9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인천수봉문화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천미술협회는 인천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큰 행사를 치러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5월부터 2024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인천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길어지면서 그 대안으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인천수봉문화회관, 민간 갤러리 등 전시 공간을 찾아 전전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술인으로 근간의 인천 뉴스를 접하면서 공공 유휴 공간 활용성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2009년 개관한 인천아트플랫폼, 인천서점 자리에 건물 외벽을 빨강계 장식한 인천맥주 호랑이굴을 혹시 보셨나요? 뉴스는 접해보셨나요? 저는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합니다. 과연 보편적인 생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아트플랫폼의 기둥 하나가 부러져 흉한 모습으로 남은 꼴이 매우 씁쓸합니다. 전시장1, 전시장2와 더불어 전시장3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을 텐데 하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렇듯 인구 320만의 규모와 전국 최대 면적을 보유한 광역시인 인천은 그 위상에 맞는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여 인천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타 광역시와 비교하면 인천광역시에는 시립미술관이 부재하여 지역 시민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가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립미술관이 건립된다면 인천의 구심점이 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하며 시민들의 문화 예술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술관의 좋은 전시 기획은 문화예술인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전시, 교육, 네트워크, 마케팅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 나가면 시민의 삶의 질이 수직 상승될 것입니다. 끝으로 미술관 건립 추진 관계자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천시립미술관의 조속한 완공을 위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계속 확장돼 가는 인천 미술계의 턱없이 부족한

공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평한 인천민예총 미술위원회 위원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예총을 중심으로 인천 미술계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인천 미술계의 가장 큰 문제는 전시공간 부족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정평한 (인천민예총 미술위원회 위원장)

반갑습니다. 우선 인천민예총 미술위원회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테니 이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인천민예총 소속 산하 여러 문화예술위원회 중에 미술위원회가 있습니다. 미협에서는 회원이 한 1천여 명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인천민예총 미술위는 아주 소박하게 5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원이 50명이라고 해서 결코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인천민예총은 94년에 출범을 해서 지금 30년이 되었습니다. 인천민족미술인협회가 단체로 인천민예총 미술위에 참여하면서 전문 미술단체로 활동을 해오다가, 22년에 인천민미협이 단체로서의 활동의 한계성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활동을 접고 개인 작가이자 회원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 주 무대를 인천민예총 미술위원회로 무게중심을 옮겼습니다. 정리하자면 인천민미협은 인천민예총의 소속 단체로 활동을 하다가 정식으로 해산을

하고 그 회원 개인 개인이 인천민예총 미술위원회로 옮겨와서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인천민예총 미술위원회는 인천민미협과는 또 떼려야 뗄 수 없어서 인천민미협 활동과 인천민예총 미술위 활동이 겹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민미협이 처음에 출범할 때는 인천 지역의 문화예술운동의 지평이 보다 새롭고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갈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지역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19번의 황해미술제를 열었고, 기관지이자 미술 잡지인 <황해미술>을 30여호까지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인천노동문화제 및 인천평화축제에 참여를 했고, 회원 개개인의 예술적 성과를 지금까지 계속 축적해 오면서 의미 있는 기획전을 기획하는 등 인천의 문화예술 현장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황해미술제 같은 아주 중요한 기획전에서는 타 지역 작가들을 참여시켜서 우리 인천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 정체성을 넘어서서 보다 더 확장된 시선으로 기획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충북민예총이라든지 충남, 전북민미협, 서울민미협 등 타지역과의 교류전 등의 활동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회원 개인의 성과들을 보면 인천민예총 대표를 역임했던 이종구 회원 같은 경우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한국의 대표 작가로 선정되어 전시되기도 했고요. 정정엽 회원 같은 경우는 이중섭 미술상을 수상하는 등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한 많은 회원들이 쌓아온 시간의 개인적인 역량들이 바로 지금의 인천민예총 미술위원회 성과이기도 합니다.

또 인천민예총과 미술위는 인천문화재단 출범에 어느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던 것도 사실이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그 중심축을 잃지 않도록 견제와 협력을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기금전을 시작으로 그간 미술관 건립에 관련된 세미나 등에 꾸준히 참석을 해오고 있으면서 애정을 가지고 지금 출범하고자

하는 공공기지로서의 인천시민의 미술관이 잘 개관되도록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식으로 개관하기 전까지 많은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할텐데 인천민예총 미술위는 이 과정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비판을 할 때는 아주 맵게 하며 대안을 내놓을 때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술협회 부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인천 미술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공간의 문제이죠. 저도 언급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만 정말 인천 미술인들한테 고향과도 같은 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이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고 담은 지가 2년을 넘어가고 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시장 리모델링 만을 위해서 담은지 저는 그게 참 의문입니다. 아까도 잠시 나온 말씀이지만 아트플랫폼에 정말 경악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 흥측한 술집 간판을 내걸면서 어떻게 문화 도시 인천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시립미술관에 대한 기대도 사실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만 미술 관계자들 또는 작가들이 시립미술관만을 학습고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제 지친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의 온갖 논의들이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보여진 것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반성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지금의 현 주소를 시립미술관에 고스란히 옮긴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가지고 있는 공간마저도 그렇게 전문적인 성격을 갖지 못하는 시각으로 미술관을 준비한다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네요. 오는 미술관의 방향성이라든지 소장 작품이라든지, 그 다음 준비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간단하게 민예총 미술위의 현황을 말씀드렸고, 전문가들이 느끼는 또는 현장에서 작가들이 보는 미술관에 대한 기대 같은 것들을 앞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인천시립미술관의 역할이 앞으로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부족한 만큼 새로 생기는 시립미술관은 더욱 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협회에서 활동하는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학교 안 교수님과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천 소재 대학의 교수님들을 오늘 여러분 모시게 됐는데요.

인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인천시립미술관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좋은지 미래 인프라 전략 같은 것들 의견들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인천대학교 차기울 교수님께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미술관 건립 절차와 추진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 전문가들의 참여를 권장한다.”

차기울 (인천대학교 교수)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차기울입니다. 인천 미술의 인프라라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인천에는 예술대학도 없고 미술대학도 없습니다. 인천이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예술대학이 없는 도시입니다. 인천은 매우 열악하기에 저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데 그런 걸 시 관계자들에게, 여기 시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수도 없이 얘기했고 제안했고 여러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일단 우리가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자산이 될 수 있는 이야기 속에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었어요. 요즘에는 시민들이 모여서 음악대학 설립에 대한 걸 논의하는 걸 기사로 봤습니다. 음악대학 논의 역시 이전 피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도 제안을 많이 드렸었는데, 송도에 인천아트센터가 있으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래서 음악대학을 만들면 좋겠다는 것을 수 차례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에서 음악대학을 가져오겠다 라든지 퐁피두 미술관 분관을 유치하겠다는 등의 계획은 현실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시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주로 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한 6년 전쯤 뮤지엄파크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에 저도 갔었습니다. 그러니 현재의 상황은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시립미술관의 논의가 나온 지는 거의 30년이 된 걸로 기억합니다. 본격적 논의가 이뤄질 때 제가 학교 조형연구소 소장이었고 당시 시립미술관 관련해서 제가 좌장을 맡아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는데 그 역시 오래 전 얘기죠. 현재 중투심 1차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에서 기존 박물관 매각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안이 과연 통과할 수 있는지도 또한 의문입니다. 인천시가 진행하고 있는 행정적인 절차에 이상은 없나? 이러다가 또 어그러지는 건 아닌가 등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정보가 제가 입수하기에는 매우 파편적인 방식이에요. 미술관의 국제공모가 진행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신문에서 투시도를 처음 봤습니다. 공유가 수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미술대학의 교수임에도 모르는데 일반인은 더더욱 모를 것이고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 속에서의 정보 공유, 그리고 시민을 설득하고 의향을 묻고 하는 그런 절차가 과연 존재하는가 라는 의문에 휩싸이기도 했고요. 지역에도 전문가가 많으니 지역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가 운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학과에서 참여한 교수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학계 전문가분들을 배제하고 추진위원회가 진행되는 안되죠. 지역에 계시는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들이 배제된 상황이다 보니 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오해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소장품 정책에 관해서 ‘디아스포라’ 개념을 가져가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용역을 다시 한 번 발주한 것으로 언뜻 들었는데 ‘디아스포라’로 결정이 된 건지 아니면 2차 용역에서 결정된 내용은 무엇인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미술관 개관 관련해서 개관준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인천 지역의 어떤 현안과 관련해서 지금 ‘디아스포라’ 개념도 물론 이주에 관한 것들, 이민의 역사와 하와이 이민이 인천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지만 이는 근대기에 있어서 제국주의가 소멸하는 등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대한민국의 문제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것이 인천의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주제로 선택된다는 거는 조금 어색하다고 느껴집니다. 인천은 평화도시입니다. 평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인 곳이죠. 저는 자주 이런 방향으로 제안을 드려 왔습니다. 경기만에서 강화에 이르는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이죠. 그래서 평화와 생태의 화두 안에 ‘디아스포라’를 충분히 품을 수 있거든요. 너무 ‘디아스포라’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확장성에 문제가 있고 역사를 회고하는 방식이기에 한계가 있어요. 평화나 생태의 주제 안에 ‘디아스포라’의 문제도 담고 인천의 개항의 역사 등도 담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같은 질문으로
인하대학교 이병수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인천에서 축적해 온 인천아트플랫폼 같은
문화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병수 (인하대학교 교수)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재직 중인
이병수입니다. 먼저 초청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 드리고요. 저한테 주어진 부분은 인천
지역의 문화적 자원과 미술 인프라에 관한
것입니다. 옆에 차기울 교수님도 계시지만 저의
짧은 경력으로 이 주제를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벅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선 메일에서
용역 자료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인천의
문화적 정체성이라든지 미술 인프라 같은
것들은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작가이자 교육자로서 제가 경험한 것들
위주로 인천아트플랫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가로서 인천의 미술 씬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인천아트플랫폼인데요.
아시다시피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이려저려한 부침이 많은 와중에도
현재까지 무탈하게 운영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넘어서면서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국내에 굉장히
활성화되었고 작가들을 양성하는 어떤 기관이자
또 작가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커리어 같은 공식 아닌 공식처럼 여겨지면서
인천아트플랫폼도 역시 굉장히 큰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나 국립현대미술관 산하의
고양 그 다음에 창동미술창작스튜디오라든지
서울시립미술관 산하의 난지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모기관이 있는 상태에서 운영이 된
반면에 인천아트플랫폼은 시립미술관이 부재한
채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 중심으로 굉장히 큰
성적을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요인들을
쫓아보자면 다들 비슷하게 느끼시겠지만
인천의 어떤 지리적인 장점이죠. 수도권이라는
그리고 또 레지던스가 위치한 곳에 교통의
용이성이라든지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또 나아가서 아트플랫폼 주변으로
대안 공간이나 또 작가의 스튜디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면서 일종의 예술
군집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곳에
오면서 많이 알게 됐는데요. 인근에 위치한
아트플랫폼 인근에 위치한 임시공간이라는
전시장이라든지 20분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동인천역까지 포함하면 스페이스빔이나
공간운술, 공간부연, 잇다스페이스, 프로젝트
스페이스 코스모스 등의 전시 공간들이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인천아트플랫폼과 연결된 아트
클러스터가 됩니다. 이 정도면 꽤 규모 있는 미술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점 미술관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의 미술 인프라가 구축되어서
현재까지 지속되어 온 어떤 큰 이유 중에 하나로
인천아트플랫폼의 역할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전시 공간 그 자체가
아니라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미술 창작의 주체인 작가를 불러들였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공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용역 연구를 보면서 저는 인천의
굉장히 훌륭한 문화적 자원이라든지 미술
인프라가 곳곳에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서 발표를 해 주셨지만 많은 다양한 미술 행사들이 매해마다 펼쳐지고 있고요. 각 인천의 구별로 문화재단이 다 있고 그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전시장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그램도 굉장히 알차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자원의 발생과 운영이 자율적이나, 자생적이나 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미술기관 현장의 제도적인 후원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을 비롯해서 제가 앞서 언급했던 작은 대안공간 역시 문화재단에 기금을 신청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성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저도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2024년 2월 20일자 기사입니다. 인천서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정서진아트큐브 임시 휴원, 2019년 전시 공간으로 문을 열었으나 접근성이 열악하고 방문율이 저조하여 올해 예산 전액 삭감 1월부터 휴관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어찌 보면 매년 반복되는 지자체의 행태라고 볼 수 있고요. 아트플러그연수도 인근에 위치 하고 있는데 비슷하게 지금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보기 어려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아트플랫폼이 부침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이렇게 힘들게 쌓아온 미술자원이 사라지면 시립미술관이 건립되더라도 이를 채울 수 있는 알맹이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인적자원 미술계 종사자의 활동 거점이나 사라진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천 지역에서 일정 기간 정주하며 인천과 관련한 그 무엇에서 영감을 받고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장이 마련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원해야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담론, 문화 생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지역적인 경계는 없어야 될 거고요. 다만 일시적인 이벤트나 지역을 이용하는 그런 이슈 물리로 이용하는 이런

행태는 지양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어떤 머무름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논의하게 되고 무언가 이야기가 만들어지고요. 창조적인 개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이야말로 문화적인 자원을 생산하는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예술가를 끌어들이 수 있는 매력적인 바탕을 만들고 유지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요약하자면 중요한 것은 그간의 어떤 역사적인 유산과 인프라를 재해석하고 큐레이팅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일정 기간 머무름의 장소로 역할을 하고 지역의 정체성 그리고 개인에게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천에 위치한 교육기관의 중요성도 부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에서 교육받는 미래 세대의 작가, 예술 기획자들을 우대하고 지역에 묶어두자는 차원은 전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그들의 시선은 늘 서울 그리고 바깥에 메인 스트림을 향해 있습니다. 근래 5년 내에 졸업한 인하대 출신 작가들도 역시나 서울에서 왕성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당연한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배경이나 마음속에 인천에 대한 애정, 자부심 이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유무형의 요소들이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예술가의 출발점이 된 곳을 인천이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그들이 훌륭한 인적자원이 되어서 다시 되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가 지원 프로그램 등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립미술관이 어떤 정체성을 수립할 것이고 나아가 방향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어떤 지역성이나 문화적 자원을 대하는 관점은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고정자산으로서 인프라가 있다면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인적 자원의 양성과 활용을 고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단기적인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인천의 예술가들을 모을 수 있는 매력과 포용력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모인 예술가는 비교정적이고 유동적인 자산이 되어 때가 되면 돌아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아가는 인천의 미술 인프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감사합니다. 학생들에게 첫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인천시립미술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인천이라는 도시가 사실 오래된 도시지만 또한 공항도 있고 그 다음에 송도도 있고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동아시아의 미술의 허브가 이 시립미술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가톨릭대학교의 이장원 교수님께 부탁 드립니다. 인천시립미술관이 어떤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천 미술 허브로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체계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장원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

인천가톨릭대학교에서 학생들 지도하고 있는 이장원입니다. 일단 동아시아 미술 허브 역할 및 네트워크 전략이 사실 제 전문 분야량은 조금은 벗어나지만, 굉장히 제너럴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게 왜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유추가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것에 대한

전문 연구자가 아닌 상태에서 뭔가 어설픔게 학술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제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많은 분들이 아마 더 해석의 여지를 갖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한 10년 이상 서울 기반으로 작가 활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 송도에 위치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에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느꼈던 생각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동아시아 미술 허브, 이것은 사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한 문제고 또 인천공항이 어떤 허브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오래 전부터 듣고 있어 함께 짝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도식적으로 인천시립미술관에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비전 선포 정도의 느낌으로 접근해야지 처음에 너무 미술관을 건립하는 입장에서 탑다운으로 짝 내려와서 설계나 모든 인프라를 그것에 맞춘다면 오히려 약간은 의도와 결과가 겹도는 느낌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도 가만히 보면 단계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허브 공항으로서 위치를 차지했다고 보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 제가 서울에서 성장하던 작가로서 공부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실험하고 또 뭔가 대중들에게 인정받고 또 비평가들로부터 이론적인 부분, 비평적인 부분을 고민하면서 성장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크게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에서 제가 그런 과정을 겪었을 때 그래도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부했던 시절, 아까 이병수 교수님께서도 얘기했었지만, 많은 미술관들에서 작가들을 키워야 된다고 해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나 여러 펀딩 같은 것도 문화재단 측에서 왕성히 해주던 시기여서, 선배들로부터 너네는 그래도 복 받은 세대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녔고 저도 작가 생활을 하면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 그리고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 및 여타의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또 해외 프로그램까지도 자유롭게 이용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서구의 많은 영미권 작가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조금 핸디캡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제 성장 과정에 저 혼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과정과 인프라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저희는 회화 전공과 환경조각 전공의 순수 미술의 학생들에게 학교에서만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외부 환경을 잘 이용도 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우리는 성장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주변을 찾아보니 인천에 있기는 한데, 열심히 하시는 많은 기관들과 전문 기관들이 있기는 하지만, 통합되는 지점이 없었어요. 컨트롤타워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불경기가 오면 예산이 축소되거나 하는 기관 말고, 마치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이 공공자원의 투자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좀 비껴가면서 큰 비전을 실천해 나가는 기관이 부재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학교에 부임한 지 한 1년 차에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인천은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잘 되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인천아트플랫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영정도 쪽에 가면 많은 기업에서 운영하는 블록버스터 전시 같은 것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인천 내에 자생하는 문화 유적이나 그런 것들을 기반한 자생 공간이나 대안공간 같은 것들도 있고요. 물론 작가군은 너무나 많고요. 그런데 제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학기에 한 번 학생들을 데리고 가고 또 서울의 리움 미술관 같은 대표적인 미술관들에 학생들을 데리고 가게 되면 항상 고민하는 게 너무나 좋은 경험이지만 그것들이 좀 너무 멀리 있고 거기에서 인천으로 돌아왔을 때 무언가 허전함이 있어요. 그러면 인천에 어딜 가야 하지?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인천시립미술관이 개관하면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분명히 중요할 거예요.

인천은 왜냐하면 너무나 블록버스터 도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유지하는 소프트웨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지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상향 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저는 보통 요즘에 너무 관례적으로 이야기 많이 하는 ESG 같은 체계를 초기 설립시에 시스템화 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많은 이런 너무나 많은 욕망, 혹은 팬데믹 같은 상황이 다가올 때, 이런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위태로워 질 수 있어요. 지금 보면 경기창작센터, 인천아트플랫폼, 그리고 아트플러그연수만 봐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버넌스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그런 것들 속에 오히려 미술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내는 어떤 기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학교에 학생들에게, 선생님으로서 후배 작가들이 여기(미술관)를 통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서울의 많은 작가들이나 사람들이, 이미 서울은 글로벌 하거든요. 인천을 찾는다면 그건 이미 동아시아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감사합니다. 사실 노력하지 않아도 인천은 이미 인터내셔널한 도시인데 또 뭐 하러 그렇게 큰 힘을 쓸 필요가 있냐 그렇게 들렸는데요. 경인교육대학교 이보라 교수님께 문화예술교육과 미술교육 전문가의 관점으로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보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안녕하세요. 경인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이보라입니다. 저는 ‘보라리’라는 작가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주제를 접했을 때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의 전문 분야가 아니었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동아시아 미술 허브 역할과 네트워크 전략’에 대해 개괄적으로 요약하자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



**“동아시아를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인천 미술이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필요하며, 문화 외교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작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장님께 직접 찾아가 전달하고 싶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예술가와 문화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후 전시나 다른 활동을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차 세미나에서 많은 기관장님들이 강조하셨던 부분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가로 활동하다가 공무원 사회라는 경직된 구조 안으로 들어가면서 세미나에 참여하기 위해 여러 개의 출장 보고서를 결재받아야 하는 시스템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작가들은 자유로운 영혼을 지니고 있어 더 많은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립미술관 같은 공공기관은 행정가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공공기관과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점은 단순히 “안 된다”는 행정적인 답변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짧게는 두 달, 길게는 1년씩 지연되곤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작가로서 가장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저희도 예술가로서 행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설명 없이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태도가 공무원들과 작가 사이의 갈등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학교 입장에서 미술교육의 강화에 대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는 전국 교육대학 중 유일하게 미술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미술관에서 전시를 기획하고, 저희 미술교육과 학생들이 초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을 대상으로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학기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대학교에서는 이런 운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학교에 미술관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시립미술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작은 규모이지만 운영해왔고, 반응은 매우 좋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1~2학년에는 미술교과가 없습니다. 이 시기에는 미술교과와 음악교과가 통합되어 이루어지며, 3~4학년부터 미술교과가 시작됩니다.

시각언어를 처음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미술관이어야 하며, 미술교육 프로그램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동아시아 미술 허브 역할과 네트워크 전략’이라는 주제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이미 시립미술관이 오픈하는 순간 그 자체로 미술 허브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위상과 작가들의 수준이 이미 뛰어나기 때문에, 시립미술관의 역할은 시작하는 순간부터 허브의 중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라는 단어를 지리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문화 정체성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더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 뉴욕에서 동아시아 미술이 주목받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동아시아 현대미술계의 예술가, 기획자, 기관들이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위에 독창적인 작품과 기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서구권에서 동아시아 미술의 특징으로 주목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은 개항의 역사와 공항 등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시댁이 프랑스에 있어서 외국 손님들을 자주 맞이하는데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처음 발을 내딛는 곳이 인천입니다. 서울도 유명하지만 인천을 지나지 않고서는 입국할 수 없습니다. 문화 역시 인천을 기반으로 전국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디아스포라’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확장성이라는 작은 단어에 동의하더라도 일반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은 정말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인천은 시작의 문이자 통로입니다. 문화로 시작되는 미술의 시작이 꼭 이곳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작가님들이신데, 더욱 더 작가 입장에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은 인천을 거점으로 대외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님 세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 번 언급됐던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오랫동안 작업을 해오신 류은규 작가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디아스포라’는 인천시립미술관이 추구하고자 하는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미술관이 해야 할 역할이 어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류은규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교수)

안녕하세요. 류은규입니다. 저는 작가도 하고 기획도 하고 학교에서 학생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허브인 중국에서 십몇 년 동안 살면서 작업을 해왔고 특히 ‘디아스포라’에 대한 작업을 주로 많이 해왔죠. 그래서 제가 인천에서 동아시아 국제사진페스티벌 초기에 작업을 시작해서 지금도 해마다 열고 있습니다. 제목은 〈하늘과 바다가 인천을 준비하다〉입니다. 왜냐하면 공항과 배가 있기



“인천을 거점으로 국제적 미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예술행정과 노력이 필요하다.”

때문에 인천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 서울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이면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제게 주어진 발제는 미술관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나에 대한 이야기이니 기획이나 이런 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경험했던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근무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술대학에는 사진과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코로나 전에는 보통 13개 대학교 100개 학교 전시를 인천에서 전시를 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오게 했습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이죠. 제 생각에 세상에는 A, B, C, D의 학교가 존재합니다. 제일 좋은 학교들, 그리고 B급 학교 C급 학교 D급 학교가 있죠. A급 학교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자발적으로 옵니다. B와 C는 누군가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면 그들은 자기 이력서 첫 줄에 무슨 사진전, 미술제에 참가를 했다는 이력을 쓰게 되겠죠. 그게 인천의 중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하게 됐고 반응도 굉장히 좋았어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C, D의 미술대학이 많아요. 그들은 참가할 기회가 많지 않죠.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참가할 수 있게 되고 이력서의 첫 줄에 인천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아마 그런 걸 한다면 굉장히 빨리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 작가로서 느끼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인천시립미술관이 빨리 건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벽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말할 수밖에 없죠. 모두 아시겠지만 아트플랫폼도 있고, 인천문화재단도 있고 여러 재단들이 있는데 그 벽이 너무 두껍고 담이 너무 높아요. 아트플랫폼을 가면 벽이 너무 두꺼워서 인천 시민들이 그 안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저게 뭐 하는 거야 하는 의문부터 갖게 되고 들어가서도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10년, 15년, 일을 하다 보니 너무 관료화가 돼가지고 작가 위에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걸 많이 느낍니다. 너무 고압적이다. 그런 걸 원활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작가로서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높고 벽이 두껍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시민과 예술가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정도가 되도록 벽이 얇아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전문가들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인천 시민이 봤을 때 ‘나도 조금 공감대가 있네,’ ‘나도 이런 걸 한번 눈여겨보고 싶네,’ ‘나도 이런 걸 사봤으면 좋겠네, 소품이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 벽이 얇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은 무얼 의미하는가 하면 원로작가들은 서류 쓸 줄 몰라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해를 못해요. 서류 받아서 공모전에 되더라도 나중에 정산 처리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공모대로 하십시오, 뭐 이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거 못합니다. 인천의 원로들 적어도 60이 넘으신 분들인데, 젊으신 분들은 무조건 공모하세요. 공모하는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분들은 못합니다. 담이 생기는 거죠, 두꺼운 담이. 이를테면 우리가 식당의 담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보게 되면 ‘저 집은 음식을 깨끗이 하는구나’ 하는 등의 사실들을 바로 느끼고 소통할 수 있듯이 담이 없어지고 낮아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작가로서의 입장입니다.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문화재단에서 선정할 올해의 작가, 축하 드립니다. 염지희 작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작가로 선정되신 만큼 인천에서 많은 작품 활동을 앞으로 하게 되실 텐데 청년 작가이자 라이징 스타로서 미래의 미술관에 기대하는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의 로컬이라는 학술적 용어는 향토성이 아니라 탈중앙화로 보아야 한다.”

염지희 (2024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

네 안녕하세요. 염지희입니다. 수상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천에서 거의 태어나다시피 한 저의 경험 위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2015년에 인천아트플랫폼에 입주한 바 있습니다. 인천아트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소 부족했던 인천의 예술 인프라가 새롭게 만들어지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인천에서 활동하시는 예술가분들과 네트워킹을 하게 되고 그것을 구심점으로 한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하며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의 작품 활동이 모두 인천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인천에서의 활동도 작가로서의 성장에 일정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예술적인 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먼 곳을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장소에도 예술인 네트워크를 만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예술적 경험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는 ‘염희희 작가는 인천 작가지?’라는 반응과, ‘인천 작가들’이란 네이밍이 있었어요. 저는 좀 생소하기도 하고 왜 꼭 인천이라는 지역명이 붙어야 될까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당시 인천아트플랫폼을 구심점으로 조성된 환경과 그러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통해 자생적으로 혹은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을 통해 ‘인천 작가’, ‘인천 공간’이라는 말들로 그러한 새로운 문화를 주목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듯 예술적인 환경의 구심점은 그곳을 중심으로 자생적이며 자율적인 새로운 문화들을 조성하기 때문에, 인천시립미술관이 건립되어 인천 예술 생태계의 핵심적인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예술적인 환경과 인프라가 더욱 적극적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포럼의 주제를 바탕으로 인천시립미술관에 기대하는 역할 제안이라고 한다면, 저는 예술가로서 그리고 싶은 말씀입니다만, 말 그대로 ‘미술관으로서의’ 역할에 핵심적인 정체성을 두고 학술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희망합니다. 예술 기관이 예술적이고 학술적인 역할에 충실할 때, 인천의 예술을 이끄는 주체인 예술인들과 예비 예술인(학생)들에게도 많은 영감주며 장기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끄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작가로서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요, 예술인들의 자율성과 자생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술 기관과 프로그램 지원 사업들에 ‘주제’가 만들어지는 경향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조심스럽게 말씀 드리자면 ‘지역’이라는 것조차도 한편으로는 주제 제한적인 카테고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역이라는 것은 ‘로컬’이라는 학술적 용어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로컬이라는 것이 향토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탈중앙화’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립미술관이

바라보는 지역은 탈중앙화로서의 지역이기를 바랍니다. 인천시립미술관 건립 연구 자료에서 눈여겨보았던 부분이, 인천이 서울과 같은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지역이었다는 언급이었습니다. 저의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곳에서의 활동을 준비하던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이곳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충분히 있고요. 미술관이 가져야 할 주제와 철학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제에 제한된 미술관이기보다 인천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동시대성과 자율적이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특유의 문화를 담을 수 있는 곳이기를 바랍니다. 인천은 특정한 역사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인천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전 연구 세미나의 ‘문화 개항지’라는 주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천시립미술관이 문화 개항지로서 시대의 변화를 담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면, 예술적 동시대성을 담은 다양한 담론을 나눌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자,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어 모두가 인천을 바라보는 미술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감사합니다. 로컬이 향토성이 아니라 탈중앙화라는 표현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아트플랫폼 추천 작가이기도 한 조경재 작가님은 프로젝트 스페이스 코스모스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공간 운영자로서 인천시립미술관에 기대하는 바가 또 특별하실 것 같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조경재 (프로젝트 스페이스 코스모스 대표)

안녕하세요. 조경재입니다. 저는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입주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제안을 주셨던 것이 ‘인천시립미술관에 기대하는 역할’인데요. 제



“좋은 전시를 하기 위한 조건들과 환경이 만들어지는 미술관이기를 바란다.”

기대는 아주 단순합니다. 진짜 좋은 전시를 하는 미술관이 만들어졌으면 싶습니다. 누가 하든 어떤 주제를 하든 어떤 소재를 하든 상관 없습니다. 좋은 전시를 하기 위한 좋은 전시의 조건이 되고 환경이 될 수 있는 미술관이 만들어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전시를 얘기할 때 영화를 많이 빚대서 얘기를 합니다. 좋은 영화가 꼭 좋은 배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듯 전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작가들을 데리고 와도 좋은 전시가 안 만들어질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편집부터 기술력, 촬영까지 너무 많죠. 섭외도 해야 되고 행정적인 역할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듯이 전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한 13년간 활동을 했었거든요. 과연 미술관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 경험상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미술관의 역할과 독일 미술관의 역할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경험을 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학예사들이 기획을 합니다. 되게 좋은 시나리오로 되게 좋은 아이디어로 기획을

해요. 그러면 공간 분할을 하게 되겠죠. 어떻게 기획하고 연출할 건가,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면 외부 업체에다가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 업체가 와서 전시를 만들고 그 상태에서 작가들이 투입이 돼서 만들어지는 형태예요. 그런데 전시는 절대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생물 같은 존재입니다. 전시라는 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순발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굉장히 순발력 있는 행정력도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국 행정력으로 이런 순발력 있는 전시를 만들어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안적인 방법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미술관이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기술력을 탑재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작가들이 전시를 꾸미고 싶어서 뭔가 이런 모양새로 전시를 만들고 싶었다고 쳐요. 어떤 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시라는 게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어서 외부 업체를 불러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작업을 갖다 놓으면 다른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외부 업체한테 다시 이렇게 좀 해주실래요? 절대 안 됩니다. 행정적으로 그리고 금액적으로 다시 오버가 되고 그러면 이걸 누가 하나 현재 한국에서는 작가들이 그걸 다 떠맡아서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미술관이 직접 주도적으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몸이 굉장히 유동적으로 건강해져야 돼요. 미술관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깡통처럼 겉만 번지르르하게 있는 멋진 건물 지어놓고 거기는 아무런 동작이 될 수 없는 시스템 속에서 좋은 작품만 가져와서 관념적인 이념만 집어넣어서 대단한 작품인 것처럼, 대단한 전시인 것처럼 하는 것은 현대의 미술관이 만들어지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구시대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외부 업체가

왔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는 행정적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학예사님들은 아마 100%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면요. 한국에서 작가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작가님 죄송합니다, 이걸 행정적으로 절차로 지금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듣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 학예사님도 너무 하고 싶죠. 못해요. 외부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그걸 작가가 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이 보통이 아니죠. 다 폐기해야 되고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 예산적인 것도 문제면서 폐기물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시 퀄리티입니다. 전시 퀄리티가 좋냐 한다면 외부 업체가 와서 깨끗하게 만들긴 해요. 아주 깔끔하게 그런데 학예사님들도 이거에 대한 제약이 되게 많아요. 리스크를 걸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분할만 해놓고 작가들의 1대 1대 1로 해서 박람회처럼 전시를 하게 됩니다. 관객들은 명확해요. 전시가 재미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떠한 기획도 상관없어요. 어떤 내용도 상관없이. 전시가 재미있으면 성공합니다. 그 미술관은 전시를 어떻게 좋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실성이 없겠지만 제가 생각을 해본 게 뭐냐 하면, 독일 같은 경우 아주 작은 극장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그들은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다 탑재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시스템을 전부 다 탑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없습니다. 있긴 합니다만,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관리팀에서 유지 보수만 합니다. 그 팀들이 하는 역할은 작가들이 왔을 때 다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저것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역할만 합니다. 현상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전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작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가장 모순적인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설계가 다 됐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공간 분할이 진짜 중요해요. 한 20%에서 25%는 제작할 수 있는 제작팀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공간과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탄소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듈 제작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요. 가벽을 세울 때 다 각목으로 만들어요. 각목 만들고 합판 치는 거거든요. 그 각목은 다 프로파일로 충분히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균일하게 다 잘라서 크기 별로 만들 수 있고요. 바닥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의 건물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 제작이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합판을 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합판은 100% 재활용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 폐기물이 95%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듈만 제작이 돼 있으면 연출도 너무 다양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작비도 아예 안 들죠. 그리고 행정적 절차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팀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이런 조건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잘 뽑아야 되고 좋은 팀을 만들어야 되고 각각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삼각형 형태로 지금 미술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직도가 가능하면 가장 수평적인 걸로 만들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독일에서 전시를 하잖아요. 미술관 큐레이터랑 만날 일이 생각보다 없어요. 설치 팀장님이랑 만납니다. 어떠한 행정적 절차가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재료 다 갖고 있고요. 자재 다 갖고 있고요. 같이 의논해가지고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단순한 하드웨어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이것만 갖춰져 있는 인천시립미술관이 만들어진단. 작가들의 꿈의 세상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작가들이 전시하고 싶은 미술관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좋은 전시가 만들어지고 관객은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생각을 해요. 너무 빠른 원리입니다. 또한 저는 1차 세미나를 경청했는데 서진석 관장님이 하셨던 말 저는 너무 좋게 들었거든요. 운영의 순발성, 그러니까 이 팀이 만들어지면 행정적 처리가 굉장히 없어지니까 굉장히 순발력 있게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기획의 선도성, 시간을 굉장히 많이 버는 거예요. 행정적 처리가 미친 짓입니다. 실제로 해보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절차가 없어지면 시간을 버는 겁니다. 학예사가 그 시간을 벌면 뭐 하겠습니까? 더 좋은 전시에 대한 기획을 하는 겁니다. 시간을 벌 수 있고요. 그리고 장르의 확장성, 미술관이 작품만 거는 미술관은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장르가 굉장히 확장될 거예요. 앞으로 엄청나게 확장이 될 겁니다. 미술관이 극장 같은 역할도 해야 됩니다. 굉장히 퍼포먼스적인 것도 옛날에는 그냥 퍼포머 분들이 와서 어떤 공간에서 했지만, 이제 극장이 갖고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조명부터 무대 같이 다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는 미술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감사합니다. 공간 유지를 위한 시립미술관이 아니라 좋은 전시를 만들기 위한 시립미술관이 되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나 내부 인력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미술관 부지를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선교사 사택을 활용해서 미술관의 한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데요. 보시고 공간 활용에 대한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아림 (인천광역시청 학예연구사)

안녕하세요. 인천시 시립미술관팀 학예연구사 김아림입니다. 처음 이 사전홍보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좋은 의견을 들어야겠다는 기획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많이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번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지금 다음 일정이 선교사 사택 투어를 하는 일정이에요. 오늘 이곳 (구)OCI 사옥에서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는 이유는 여기가 저희 시립미술관 전시관이 생길 예정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과 같이 선교사 사택도 인천시립미술관의 하나의 별관 건물로 만들어져서 각각의 역할을 부여해서 저희가 시립미술관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이동하기 전에 선교사 사택에 대한 기획 목적이라든지 연혁 부분들을 간단히 설명하고 공간을 투어하고 와서 각각의 선교사 사택에 대해서 의견을 교류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에 나온 이 지침안은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는 건립과 개관을 준비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확정해서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외부 전문가들 의견을 수용하고 듣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과정 중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확정된 것이 없고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개관을 목표하고 있는 2028년에는 좋은 미술관을 그리고 작가님들이 원하는 미술관을 최대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함께 보겠습니다. 선교사 사택은 기존에 1955년도에 건립되어 있는 미국식 벽돌 건물이에요. 1955년에 지어진 건물이 2028년에 새롭게 시립미술관으로 어떻게 보면 재창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사택에 있는 옛날 과거 이야기를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지금 현재 아니면 미래 세대에 어떻게 잘 전달하면 좋을지 그걸 목적에 두고 저희가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교사 사택이 다른 공립미술관에서는 없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 건물보다 인천시립미술관 선교사 사택에 있는 건물 너무 좋더라 보러 가자 라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님들의 좋은 의견들 한 말씀씩 듣고 조금 더 다듬어 갈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955년에 한국 복음주의 방송이 세운 미국식 벽돌 건물로, 현재는 여덟 동이 남아 있어요. 한 동은 극동방송 사옥 그리고 일곱 동은 선교사 사택입니다. 인천뮤지엄파크가 박물관이랑 미술관이랑 같이 조성된다는 사실은 작가님들 모두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 극동방송 사옥 한 동과 선교사 사택 세 동, 미술관에서 선교사 사택 네 동을 나눠서 운영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박물관을 운영하는 전시와 어떻게 같이 교류를 할지, 아니면 어떻게 미술관만의 색깔을 낼 지 하는 것들을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김아림 (인천광역시청 학예연구사)

선교사 사택은 현재 일반인들에게 개방이 안 되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작가님들 보시고 좋은 의견 듣고자 특별히 장소를 이곳 (구)OCI 사옥과 선교사 사택에서 하자고 저희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공간 보신 느낌은 어떠셨나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선교사 사택 활용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운영할 때 의견들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동방송 사옥 한 동과 선교사 사택 일곱 개 동이 지금 현재 남아 있고, 총 여덟 동의 건물을 보고 오신 겁니다. 극동방송 사옥 한 동과 선교사 사택 세 동은 박물관에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네 동은 미술관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임의로 선교사 사택 1, 2, 3, 4 이런 식으로 지금 네이밍되어 있는데 이 명칭은 나중에 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그 역할에 맞게 재설정할 예정입니다. 처음에 들어갔던 입구가 선교사 사택 1이고 2, 3, 4 건물을 동선대로 보셨습니다. 선교사 사택 1과 2, 그리고 선교사 사택 3, 4 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박물관에서는 상설전시관 그리고 선교사 사택을 보존해서 하는 공간으로 하는 운영을 기획 의도를 두고 지금 운영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도 박물관 근처에 있는 선교사 사택 4동과 3동을 상설전시 공간으로 만들어서 운영의 묘미를 살려보고자 합니다. 박물관이랑 미술관이랑

나눠서 운영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일반 관람객에게는 여기가 미술관에서 운영하는지 박물관에서 운영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전시와 저희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전시를 같이 보면서 인천 미술의 역사 그리고 인천시립미술관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공간 구성을 이런 식으로 한번 배분을 해보았습니다. 전시 공간 한 동은 상설전시 공간으로 만들어서 인천 미술의 역사 그리고 지역성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만들 예정인데요. 선교사 사택 3이 1층 2층의 복층 구조의 건물로 되어 있어서 1층은 상설전시 공간, 2층은 미술관이나 저희가 연구하는 자료들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사택 4 같은 경우에는 기획전시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 공간에는 작가님들이 말했던 순발성, 적극성 이런 것들을 구현하고 싶습니다. 동시대 미술에 아마 미술관 행정으로 들어오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저희도 학예사로 근무를 하면서 느낍니다. 그래서 미술관 본동에 있는 전시와는 조금 차별화된 공간으로 선교사 사택 기획전시실은 조금 더 순발성이 있고 조금 더 동시대성이 있는 것들을 연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기획전시실 공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사택 앞쪽에 있는 공간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해서, 여기가 개관 목표인 2028년에는 아파트 대단지가 많이 생기게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인천 시민들이 미술관에 있는 공간을 조금 편안하게, 공원에 놀러 오듯이 아마 스며들 수 있는 매개체적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런 큰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역민들이 편안하게 운영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한 동 만들었고요. 하나의 공간은 미술관으로서 전문성을 갖고자 연구할 수 있는 연구관 역할을 해서 이를 기반으로 나온 여러가지 미술담론들을 갖고 기획전시실에서 순발성 있게 전시를 펼칠 수 있는 공간, 아마 그리고 인천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미래의 기획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뭔가 플랫폼적인 역할, 그리고 국제적인 큐레이터들이 인천에 와서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 기획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조금 더 좋은 의견 있거나 여기서 더 덧붙여서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홈페이지에 영상으로도 그 내용이 나오고 결과 자료집, 연구집으로도 나올 예정입니다. 여러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작가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이보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교사 사택을 보면서 느낀 것은 아무래도 저희 학교가 초등교육에 특화된 학교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너무 제격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 조감도 보면서 물이 있으니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직업이 그렇다 보니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조경이 아직 안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혹시 실시 설계에 들어가신 건가요? 아직 조경 안 하셨죠? 하실 때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무나 턱이 많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이 커뮤니티 공간이 저는 특히 마음에 드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들도 다 같이 뛰어 놀 수 있고, 혹은 주말에 가족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으로 운영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재 (프로젝트 스페이스 코스모스 대표)

너무 멋있네요. 작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그냥 관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쉬는 공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앉아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내도 지금 실내에 콘텐츠가 다 들어가게 되면 앉기가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잖아요. 꼭 모든 콘텐츠가 건물 속에 들어가야 되냐에 대한 의문점이 살짝 있고요.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이 한 동은 존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염지희 (2024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

기능적인 면에서 다목적관, 연구관, 상설전시관, 기획전시관 등 크고 작은 형태로 유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공간이 미술관 내에 마련된다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연구관의 교류를 위한 큐레이팅 등 지역 연계와 나아가 국제적인 발전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이자면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상은 지역 내 작가의 국제적 성장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저를 비롯해 현재 작가들이 국제적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인천시립미술관이 장기적인 면에서 국내 작가들이 국제적인 활동의 첫 걸음을 마련할 수 있는 국제적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류은규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교수)

저는 오늘 사택을 본다는 게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저희 집도 100년 된 집을 개조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고주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아요. 건축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많아서 이 사택은 꼭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보존이 너무 잘된 상태였기 때문에 참 고맙습니다. 그걸 또 활용해 주신다는 것만 해도 그리고 더 나은 거라기보다는 먼저 지금 말씀하신 것만이라도 건립이 4년 후잖아요. 정권도 바뀌고 뭐도 바뀔 테니까 그 얘기가 변하지 않게만 해도 대단한 성공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변화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만 진행을 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항상 매일매일 변화가 있다 보니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지금 하시는 거는 사택이 보존된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장원 (인천카톨릭대학교 교수)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공기도 조금 달랐던 것 같네요. 다만 제가 하나 우려되는 점은 인천에 비슷한 스탠스의 공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접근하는 거라면 저는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것을 보존하고 완전히 하이테크놀로지적인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여 외형은 최대한 그대로 둔 채로 에너지를 아예 제로로 써버린단든지, 밖으로 드러나는 기술은 최소화하지만 신기술이 기저에서 작동하는, 예를 들면 솔라 패넌을 외부에 막 붙이고 이런 거 말고, 정말 근본적인 뭔가 하이테크놀로지가 들어가서 조용히 완성되는. ESG를 제가 또 얘기하는데, 뭔가 그런 부분을 엠블럼으로써의 ESG가 아니라 실제로 워킹되는 부분이 기저에서 돌아간다면 이거는 성공적이고 정말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고, 예술적이지만 그것이 그 안에서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기술적 변화를 모색하는. 그러면 성공적이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시간이 짧아서 얘기를 다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를 보면 자연도 되게 훌륭하고, 새로운 도시도 있고, 유구한 역사도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인구 유입이 있는 이 지역에서 지금 가장 간과하고 있는 지점이 기업과의 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 국립미술관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현대차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로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소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천의 오래된 헤비 인더스트리적인 부분과 송도에 위치한 글로벌한 IT나 바이오 기업들과의 연결을 모색한다면 굉장히 좋은 방향성을 갖추어, 아까 얘기했던 서울과는 차별되는 동아시아 예술 허브로서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국제적 네트워킹도 다 있고 이미 전 세계에 자신들의 헤드쿼터나 홍보 지점이

있잖아요. 그런 명망있는 기업과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미술 문화 이런 것만으로 접근하면 여러 지자체에 존재하는 그냥 원 오브템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병수 (인하대학교 교수)

저도 비슷하게 느꼈습니다. 되게 신선하고 새로운 공간이고요. 물론 비슷한 느낌의 근대 건축물들이 인천에 많긴 하죠. 근대 뮤지엄파크랑 같이 이렇게 묶여 있는 측면에서 또 아파트가 눈에 너무 많이 띄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 살고 아이랑 같이 있으면 우리 미술관 작품 보러 가자가 아니라 그냥 그 공원에 놀러 가자 그러다가 미술관에도 들르자 약간 이런 식의, 미술관으로 초청하는 어떤 매력적인 공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역할 분담을 각 공간마다 해 놓으시긴 했는데 사실은 안에 굉장히 깔끔하게 흰색 벽 치고 조명만 하고서 거기가 작품 걸면 전시장이 되는 거고 테이블 깔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면 교육관이 되는 거고 사실 운영하는 주체들의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지. 오히려 박물관 쪽에서는 여기를 상설전시관으로 쓰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상설전시관이 되면 뒷방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에 가봤는데 상설이 되면 관리만 하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요한 전시는 대부분 박물관 메인 건물, 미술관 메인 건물에서 이루어지고, 별관은 그냥 아카이빙 목적의 자료나 역사, 그런 것들만 놓여 있다고 한다면 공간 자체는 매력적인데 사람들의 발길이 그리로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장소가 돼야지 그냥 오래된 어떤 것을 보관하는 역할로만 머물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기울 (인천대학교 교수)

전체가 선교사 사택이죠. 저는 그걸 둘러보면서 선교사가 왜 거기 와서 살게 됐을까 그러니까 선교사가 거기에 머물게 된 이유, 선교의 역사라든지 하는 부분이 궁금해집니다.

장소성이라든지 그것이 거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시하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장소를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하게 됐고요. 그냥 물리적 하드웨어로서의 건축물이 아니고 그 지역이 갖는 정체성이랄까 일종의 그런 것들이 확연히 드러나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환경 친화적인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수목들이 있고 또 잡초도 자라고 여러 환경을 그냥 놔두서는 안 되겠죠. 근대 건축적 안전문제 라든지 여러 가지 개수 공사를 해야 될 텐데, 될 수 있는 한 기존에 있는 큰 수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최대한 살리고 동선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살리고 가운데 보니까 벽수라고 돌로 된 장승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치우지 말고 미술관의 역사적 장소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냥 보존해야 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이 건립되면, 인천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서 국회도 설득하고 예술대학 건립에 총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이 거대한 갯벌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습 환경, 습지인데 이런 조수간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습지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기반으로 한 생태학적 비엔날레가 창설되면, 그것이 이제 미술관과 연계되겠죠. 나중에는 그래서 시립미술관이 향후 해야 되는 연계 사업으로, 생태학이라면 요새 평화의 개념과 다 연결이 됩니다. 세계적인 거대 담론이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생태학적 비엔날레의 창설을 이루어내는 것까지 아마도 1차적인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평한 (인천민예총 미술위원회 위원장)

돌아본 선교사 사택 굉장히 좋았습니다. 인천에 오랫동안 살고 있으면서 그런 공간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기는 다 아시다시피 동양화학이라고 담장 높은

굴뚝만 있었던, 굴뚝에서 하얀 연기만 났었던
 공업화학지대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안에
 이런 녹지가 있고 아주 잘 보존돼 있는 사택들이
 있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오래된
 사택들을 품고 있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라면
 아마도 국내 보기 드문 좋은 뮤지엄파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곳에
 미술관이나 박물관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사택들이 주는 이미지가 좋아서
 앞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택들에 대한 얘기는 앞에
 여러 작가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앞으로
 미술관이 해야 될 일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8년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지금 24년이니까
 4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가시적인,
 어떻게 보면 미술관의 상징과도 같은 이슈들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이슈가 만들어지지 못했으니
 당연히 그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정해지지
 않았을테고 그리고 그 일을 진행시켜야 될
 스태프들도 여전히 빈곤한 것 같아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미술관의 어떤 방향성이 정확하고
 선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부재한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성찰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작가들도 사실 미술관의 방향성에
 대해서 물음표를 많이 달고 있는데 하물며 일반
 시민들이야 어떻겠냐는 것을 반문하고 싶고요.
 그리고 방향성이 첫 번째에 해당이 된다면, 그
 다음은 미술관이 가져야 될 게 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기에는 소장품을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품을 비전문적인 경로를
 통해서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작가에게
 기증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기존 소장품이라든지 기증품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작품을 구입을 할 때는 정말

전문가들의 집단지성 그리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필요하며, 그리고 어느 미술관보다 높은
 퀄리티의 작품을 수장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요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미술관이 가져야 될 가장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뿐만 아니라 견제하고 비평하고
 감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이 (인천미술협회 부회장)

인천시립미술관이 2028년에 개관된다는 것에
 희망을 걸고 있어요. 제가 인천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인천에 온 지 35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 활동할 당시에 주변에서
 항상 얘기하셨어요. 인천에는 미술관도 없는데
 그냥 서울로 와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인천 작가들이
 문제인가 그러면 그 외 분들의 기획 기타
 총체적인 게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저한테
 해봤는데 이견 모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술관
 건립에 기여하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사택을 보면서 이런 공간이 인천아트플랫폼 외에
 또 있구나 라고 생각하니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기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자연 그대로를
 잘 살리시고 수목이라든가 조경 나무들도 잘
 살리시면서 이게 도시 안에 있기 때문에 좀 더
 힐링이 되고 치유할 수 있는 숲이 되도록 만들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건너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이 건립되기를 너무
 고대하다 보니까 이쪽만 바라보게 돼요. 미술관
 안에 힐링 공간도 꼭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재업 (인천예총 회장)

지금 여러 말씀들을 들으면서 시립미술관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채우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한 군데 너무 많은 걸 넣게 되면 새로운 걸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립미술관에 너무 많은 걸 넣지는 않아야 또

다른 사설 미술관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꺼번에 다 넣어버리면 새로운 걸 넣을 수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또 여러 가지 거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다 넣는 것보다는 조금 비워가면서 다른 데서 또 새로운 미술관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사택을 가봤습니다만 저는 사택을 80년대도 가보고 90년대도 가봤습니다. 선교사 사택으로 사용하다가 동양제철화학의 외국에서 바이어들이 오면 이곳을 숙소로 제공했었어요. 관리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니까 여기에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대로 살려서 이걸 리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 자연도 살리고 공간을 비워놨다가 또 새로운 분야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됩니다. 한꺼번에 딱 정리를 해놓으면 거기만 국한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비워 놓고 또 필요할 때 채우고, 거기서 어떤 전시를 한다 이러면 전시공간을 만들면 되고 또 교육 공간도 할 수가 있으니 비워두고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감사합니다. 전문가 분들이시라 그런지 대체적으로 의견에 공통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선교사 사택이라는 역사적인 공간이 잘 보존됐으면 좋겠다, 너무 억지로 뭘 채우지 말고 좀 비워놓고 사람들이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규모가 아주 큰 공간이라면 불가능하겠지만 이곳은 비교적 작은 공간이니까 탄소 제로, 100% 친환경 공간을 한번 보존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도전 의식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한명숙 과장님 전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한명숙 (인천광역시청 문화기반과장)

네. 미술관 개관연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행안부 중투심이 올해 10월에 통과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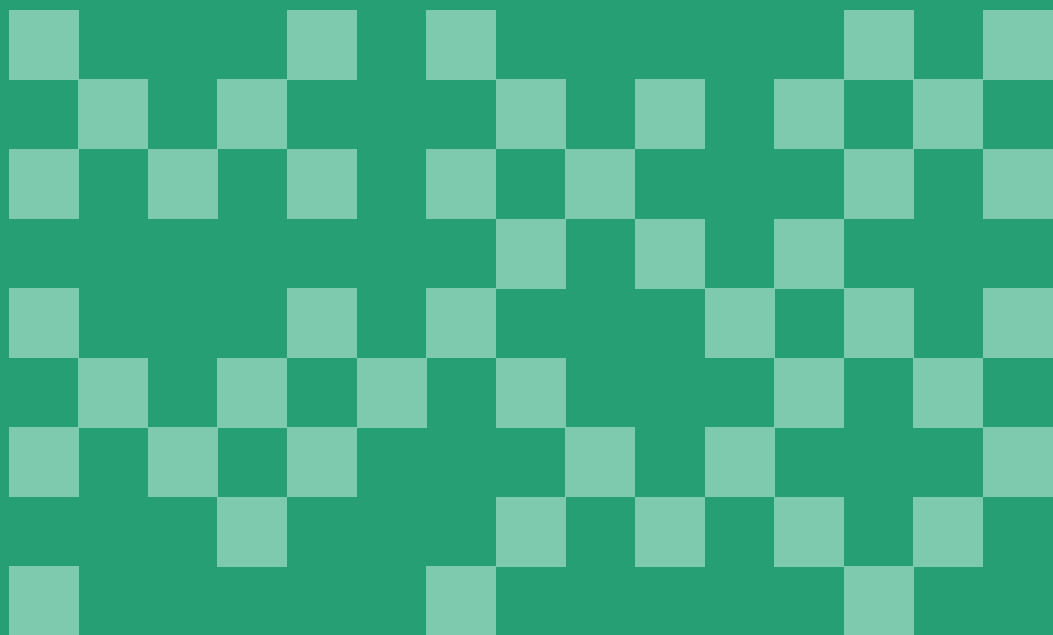
내려오면, 공사를 내년도 착공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28년도에 개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저희가 다 같이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민 공개 포럼을 통해서도 공유할 거고요. 그래서 다같이 좋은 미술관 훌륭한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감사합니다. 앞으로 3차 연구 세미나가 있고요. 10월 31일에는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개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때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연구세미나는 향후 영상 및 자료집을 통해서 시립미술관의 건립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차 전문가 연구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차 전문가 연구세미나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미술관

2024.09.10.(화)

1883개항살롱

한상정 인천대학교 교수

김복기 경기대학교 교수

김노암 전시기획자

정지은 문화비평가

이창길 개항로프로젝트 대표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 모데레이터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안녕하십니까? 인천시립미술관 건립·개관 사전홍보 프로젝트 3차 전문가 연구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업의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무소속컴퍼니 대표 임성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전문가 세미나는 국내 저명하신 미술비평가, 전시기획자, 인천 문화전문가 다섯 분을 모시고 2028년 개관 예정인 인천시립미술관의 방향성을 가늠해 보는 목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참석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발제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상정 인천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김복기 경기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김노암 전시기획자이자 휴아트&미디어랩 대표님이십니다. 정지은 문화비평가이십니다. 그리고 이창길 개항로프로젝트 대표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명숙 인천광역시청 문화기반과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명숙 과장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인천광역시청 문화기반과장)

안녕하세요. 문화기반과장 한명숙입니다. 이번 사전홍보 프로젝트 3차 전문가 연구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인천대학교 한상정 교수님, 경기대학교 김복기 교수님, 김노암 대표님, 정지은 문화비평가님, 이창길 개항로프로젝트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천시립미술관 건립·개관에 관심을 갖고 세미나 참관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천시민과 지역 예술계의 오랜 염원을 담아 28년 개관을 목표로 인천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년 개관까지 시민, 지역 미술계, 전문가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시립미술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매년 단계별 공론화 과정과 다양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미술관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말씀해 주시는 고언들은 우리 시 홈페이지와 10월 말 시민참여 공개 포럼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만들어 가면서 성공적인 미술관 개관 준비에 초석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미술관을 조성해서 글로벌 탑텐시티 도시의 품격과 인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네, 다음은 권오승 시립미술관 팀장님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승 (인천광역시청 시립미술관팀장)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시 시립미술관팀장 권오승입니다. 지금부터 인천시립미술관 건립·개관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립미술관은 미추홀구 학익동 587-53번지 일대에 기존 시립박물관 확장 이전과 함께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사업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9월 문체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통과, 2021년 6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2022년 8월 국제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2022년 12월 토문건축사 사무소 컨소시엄에 <경관의 기억>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건축 설계는 완료되었으며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사업으로 2019년 12월 시립미술관 콘텐츠 개발 학술 용역, 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 연구용역, 2023년 11월과 12월에는 시립미술관 운영 방안 연구 용역과 인천 미술사 콘텐츠 발굴 연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2차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3개년에 걸쳐 인천미술사 조사·연구,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건립과 개관 과정을 공유하기 위한 사전홍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네 감사합니다. 인천시에서는 오랫동안 시립미술관을 건립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인천시에 아직 시립미술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쉬웠었는데요. 진행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2028년 건립과 개관을 목표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문가 여러분들과 지역 작가님들 모시고 세미나를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면서 ‘디아스포라’나 여러가지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방향성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아직도 고민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자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미술관’이라는 제목으로 인천시립미술관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학술적인 측면들 그리고 현실에서 정말 미술관을 가깝게 그리고 인천을 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조언을 듣고 그것을 앞으로 미술관 건립에 많이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상정 인천대학교 교수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인천시립미술관이 시민들의 미술관, 모두의 미술관이라는 측면으로 ‘DEIA -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접근성’이라는 가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학술적으로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한 교수님의 고견 듣고 싶습니다.

한상정 (인천대학교 교수)

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문화대학원에 있는 한상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제에 대해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개념은 미국의 박물관협회에서 2015년부터 굉장히 중요한 전략으로 삼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미술관이 조금 더 지속가능한가입니다.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이유는 실제로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구체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미국의 여러 미술관에서 그런 프로젝트들을 진행해왔을 뿐만 아니라 2022년에서 2025년 미국미술관협회의 전략 프레임워크에서도 반인종주의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미술관 건립과 개관준비 과정에서부터 DEIA의
가치가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이게 단지 어떤 프로그램의 성격일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양쪽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직의 운영 원리에서부터 건축물의 건축 원리 또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전시기획, 교육프로그램의 모든 것에 들어가야 하는 원리라고 주장하는 개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것이 박물관협회의 전략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국 재무부에도 ‘DEIA’ 국이라는 사무소가 따로 있어 재정을 조절하고 조율함에 있어서도 사용하는 원리 또는 전략으로도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필요한 영역의 전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성이라고 하면 설명이 따로 필요 없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하는 것, 그리고 형평성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냥 산술적인 평등을 가지고는 형평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포용성이라는 것은 관점이 적대적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접근성이라는 것은 모두가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차원이죠. 작년에 제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케브랑리 국립 박물관에 갔는데 너무 부럽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계단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낮은 경사로라서 누구라도

접근이 가능했고, 이 낮은 경사로에는 접이식 의자가 벽에 걸려 있어서 필요할 때 꺼내서 앉아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전시 소개 공간에는 점자 속에 글이 이렇게 쪽 붙어 있었습니다. 점자 속에 글이 붙어 있는 것 자체는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점자 옆에 손때가 묻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만지고 갔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때가 묻어 있어서 ‘아, 아주 사랑 받는 박물관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DEIA’의 순서를 다르게 배열을 하면 마치 ‘이데아(IDEA)’ 같잖아요.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어떻게 보면 아주 이상적이고 다가가기 힘든, 현실에서는 이루기 힘들며,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어쩌면 그런 개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향성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또 우리가 전략으로서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랑은 좀 동떨어져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세미나의 방식, 그러니까 사전홍보 프로젝트라고 표현하는데, 결국 시립미술관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에 대해서 머리랑 힘을 모으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8년 개관이 계획되어 있지만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설계가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건드릴 수 없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천시에 있는 다양한 그리고 포용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허용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미나만 하더라도 왜 이렇게 닫힌 형태로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얼마든지 사람들을 부를 수도 있고 반대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겠죠. 그 와중에도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들끼리 토론은 할 수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는 좀 어려운 구조잖아요. 물론 나중에 그런 것들이 진행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설계가 끝나면 구조적으로 이 ‘데이아’라는 개념을 실현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는 시립미술관만

건립하는 게 아니라 뮤지엄파크라는 틀 안에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시립박물관은 이미 있는 박물관을 옮기는 거고, 시립미술관은 처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가 있다손 치더라도 일상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적극 개입해서 추진 안을 주기는 힘든 조건이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추진위원회가 매주 열리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 열리는 상황이죠. 특별한 결정 사안이 있을 때만 열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연 나중에 뚜껑을 열었을 때 사람들이 정말 박물관 그리고 미술관 두 개 다 좋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이 두 공간의 협업이 정말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뮤지엄파크라는 틀 안에서 융합적으로 정말 움직이고 있다고 느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공개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더 좋은 안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데이야’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실현할 사람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조직 구성원 자체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야지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미술관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부분이죠.

최근 인천에서 있었던, 문화예술회관을 별도로 해서 아트플랫폼과 다 같이 별도의 법인을 만들려고 하다가 무산되었던 일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인천에서 아트플랫폼이라든가 트라이보울이라든가 전시 기능이 있는 공간들을 시립미술관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풀어놓고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그냥 시립미술관은 당연히 인천시의 사업소로 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박물관이 사업소이기 때문이죠. 뮤지엄파크라는 뚜껑 전체가 사업소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전제를 하고 시작하는

이상 사실은 예견된 여러 문제들을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측면에서 여러 문제는 ‘데이야’라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전문가 세미나에서 어떤 컨셉트 자체를 다루고 싶다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아주 깔끔하게 보여줘야 하는데, 사실 제가 오늘 받은 이 자료만으로는 그렇게 하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또한 지금 건축의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이면 모르겠지만,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그 공간들이 정말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전시나 교육 또는 미래형 프로그램들이 가능하게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데이야’가 없는 것 같다고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이 훌륭한 개념을 가지고 시작하시려고 한다면, 이 개념에 맞게끔 현재 미술관의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냐를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랑 논의하는 하나의 어떤 틀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모두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지만, 형평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예컨대 박물관 100평, 미술관 100평 또는 여기에 20명 여기에 20명 이렇게 숫자를 맞추는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형평성인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박물관에는 관장님, 연구부장님, 교육부장님도 계시니 실시설계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세심한 조언을 줄 수가 있는데, 시립미술관은 과연 누가 이런 조언을 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건축설계 쪽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박물관 쪽에서는 디테일한 조언들을 주고 있는데 미술관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면 사실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언밸런스를 나중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이 시립미술관에 대한 논의를 조직 구조나 콘텐츠에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운영 혹은 이런 문제를 인천시 전체의 어떤 틀에서 한번 확실하게 풀어서 전문가들과 보다 많은 고민을 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한 공개 토론회 같은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전 자료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인천문화재단에서는 20년 전 겨우 2억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7차례의 토론회를 했더라고요. 겨우 2억을 쓰기 위해서. 물론 그때의 2억은 지금의 2억보다 좀 크긴 했겠지만, 예술육성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이 하나의 주제로 인천시와 함께 7번의 토론회를 거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립미술관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인천시와 여기 살고 있는 시민과 예술가들의 숙원 사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단지 몇 차례의, 다소 폐쇄적인 구조로 시민 모두에게 접근성을 보장하지도 않은 세미나만으로 과연 충분할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발제자 분들의 내용들을 들어보고 토론했 때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복기 경기대학교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수님은 미술전문매체 아트인컬처 편집장님으로 오래 계시면서 국내 미술계 현황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기에 인천 지역미술의 정체성과 특수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은 개항의 도시이고 이민의 근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디아스포라’가 이 도시의 하나의 정체성이고 미술관을 연구해 갈 때 중요한 주제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주와 이동이라는 제목으로 미술비평적 관점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인천시립미술관의 방향성에 대해서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복기 (경기대학교 교수)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처음으로 ‘인천 뮤지엄파크’라는 문화 벨트가 만들어진다는 사실, 또 새로 출범하는 인천미술관이 이 벨트의 박물관 옆 공간에 건립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미나 주최 측에서



“디아스포라를 넘어 ‘움직이는 미술관, 이동형 미술관’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고민해야 한다.”

‘디아스포라’라는 주제를 나한테 제안했지만, 새로운 시립미술관의 건립 정보는 주지 않았습니니다. 다소 당혹스러운데요. 실은, 애초부터 ‘디아스포라’ 주제를 놓고 세미나 담당자에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내가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글도 썼고, 미술관 전시 기획에도 가담했고,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해외 리서치도 수차례 다녀온 바 있습니다. 7월에는 ‘근대(21세기)미술관 건립을 위한 세미나’(7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근대미술의 당위성, 콘텐츠 구성, 비전을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근대의 중요한 하나의 미술 항목으로 ‘디아스포라’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인천도 지역 특성상 ‘디아스포라’와 연계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천에서 미술관이 출범하는 지금, 이 시기에는 미술관이라는 큰 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논의할 사안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디아스포라’는 부차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인천시립미술관은 당연히 ‘현대’ 미술관일 텐데, 컨템포러리 아트의 문맥에서 근대사의 ‘디아스포라’를 지금 계속 끌고 가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제목을 ‘디아스포라’에다 ‘이주’라는 개념을 덧붙였어요. 근대 개념에 더하여 현대 개념을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선 지정학적으로 보면 인천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수도 서울과 묶여 있는 메가시티 개념이 강합니다. 특히 외국인에게 인천은 서울과 코리아로 바로 통합니다. 또 미술 내적으로 한국 지역미술관의 역사와 관련해 인천의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지역미술관의 역사가 30년이 넘었습니다. 1992년에 광주시립미술관이 제일 먼저 설립됐습니다. 인천시립미술관이 2028년에 개관 예정이라면, 광역시로도 제일 늦을 뿐 아니라 다른 도시에 비해서도 상당히 뒤늦은 출발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할 주제는 결국 인천미술관의 정체성, 그러니까 인천다운 미술관의 얼굴을 찾아보자, 그런 성격이 분명한 미술관을 만들어보자는 논의 자리로 이해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미술관을 만드니까 차별화는 분명히 중요한 의제죠. 그런데 오늘 인천시립미술관의 개요 설명을 들었지만, 대체 어떤 차별화를 하겠다는 건지 잘 잡히지 않습니다. 특히 DEIA(Diversity, Equity, Inclusion, Accessibility) 개념을 내세웠는데, 이건 요즘 일반 프로젝트 제안서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겁니다. 좀 식상한데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좀 다른 의견이지만, 내 생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맥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미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천미술관을 논의하려면 조금 더 ‘문화 지리학’이랄까, ‘장소 특수성’이랄까, 이런 개념에 기초한 새로운 지역성을 찾아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미술관의 위치, 설계, 디자인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요. 이미 논의가 끝난 문제지만요. 보통 지역미술관이라고 하면 해당 지역의 종합미술관 성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남도립미술관은 전남 지역의 미술을 커버하는 종합미술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지역의 ‘백과사전식 궁전’ 같은 미술관이죠. 그런데 인천도 과연 그런 일반적인 지역미술관의 성격을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도 다른 지역에 비해 2, 30년 뒤늦게 출발하는 마당에 말입니다. 나는 과감하게 ‘역발상’을 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미술관이 존재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인천미술관이 뒤늦게 출발한 사정, 그리고 서울과의 관계에서 수도권이라는 특성을 십분 고려하면, 다른 지역에서 만들고 있는 종합미술관의 성격을 꼭 따라야 할까요? 나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인천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미술관이어서 지역성(locality)을 도외시킬 수는 없지만, 지역성과 글로벌리즘이 융합하는 글로벌리즘(glocalism) 지향의 미술관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51% 비중을 글로벌 쪽으로 치중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인천의 경우, 역사적으로 지역성과 국제성이 맞물려 있는 지역입니다. 인천의 개항이 1883년입니다. 문화교류를 상징하는 키워드로 ‘실크 로드(Silk road)’란 게 있지요. 이견 육지를 통한 교류입니다. 인천은 개항 이후 ‘시 로드(Sea road)’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 인천의 브랜드 가치는, 누구에게나 잘 알려져 있듯이 ‘스카이 로드(Sky road)’입니다. 인천을 상징하는 개념은 국내외적으로 ‘공항’이겠습니까? 공항, ‘스카이 웨이(Sky way)’, 이것이야말로 글로벌의 상징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문화 지리학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인천미술관과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스카이 웨이 혹은 시 로드. 이 안에 디아스포라, 노마드(nomad), 네트워크, 이동, 연결, 유동, 문화번역, 플랫폼, 교환, 교류 등 현대 사회 혹은 현대미술의 중요한 담론들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인천은 좋은 삶든, 바닷길이든 하늘길이든 ‘게이트(gate)’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나는 인천시립미술관이 타자와의 교섭 창구이면서 또 이동의 통로 성격을 수용하는 열린 미술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 이민사박물관이 있잖아요? 내가 그곳에서 ‘디아스포라’ 미술을 강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립미술관은 관문(關門), 게이트의 성격이 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술관이 일종의 문화의 컨테이너, 컨템포러리

아트를 담아내는 하나의 큰 그릇이나 방이나
집이랄지, 거대한 아틀리에 같은 그런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인천미술관이 뒤늦게 출발하는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21세기에 생긴 미술관이니만큼
뮤지엄파크 안에서 머무르지 않는 미술관이 될
수는 없을까요? 네덜란드의 개방형 수장고 겸
미술관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은
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중요한 길목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생각한다면,
미술관 기능이 단지 실내 공간의 화이크 큐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야외 쪽으로도
개방될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의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움직이는 미술관,
이동형 미술관 같은 획기적이고 새로운 개념의
미술관을 운영할 수는 없을까요? 정말이지,
이런 관점을 활짝 열어놓고, 미술관 설립과
관련한 일련의 세미나, 공청회,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앞서 한상정 교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좀 더 개방적이고, 보다 포용성이
있고, 접근성도 가져가면서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형평성도 고려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네 감사합니다. 10월 말에 시민들이 다 함께
들 수 있는 오픈 세미나를 할 예정이라서 그때
앞선 세 차례의 세미나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을
모두 공유할 예정이고요. 또 내년에는 더
많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암 휴아트&미디어랩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대표님은 오랫동안 전시 공간을
운영하시면서 기획자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신기술과 융합한 전시 콘텐츠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AI, 스마트
뮤지엄 등의 키워드가 언급되는 요즘인데요.
미술관의 운영 전략과 기술적인 접근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김노암 (전시기획자)

네, 새로운 미술관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매우 반갑습니다. 앞서 두 분 선생님께서 큰



**“미술관 이해관계자들이 중심을 잃지 않고 미션과
철학, 기준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한다.”**

얼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현장의
사례를 들어 현대미술관이, 현대미술 문화 또는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플랫폼이 어떤 형태와
운영 방식으로 나아가는 게 좀 더 긍정적이고
생산적이며 더 창조적이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1993년에 작가로 데뷔했는데 1998년도
사진의 해를 기점으로 사진 전시 5개를
기획하면서 큐레이터로 전시기획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을 기획하고 대안공간
아트스페이스휴도 만들고 청년 작가들도
발굴했죠. 광주비엔날레에서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라든가 소위 비정형예술 다원예술
등의 프로그램들도 기획을 했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KT&G 상상마당을 설계하고
운영했습니다. 2013년부터 문화역서울284
운영을 하기도 하면서 미술관과 융복합
기관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획을 했는데요.
실패한 프로그램도 많고 또 운 좋게 성공한
프로그램도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볼 때 시립미술관은 다른
문화기관들과 달리 대표성과 상징성을
띠고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주변에서 많이
흔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 이해관계나 영향관계의 변화 속에서 마치 우리가 파도치는 바다를 배를 몰고 가듯 흔들려요. 현실적으로 그런 건 끊임없이 벌어질 텐데, 하나의 중심을 잡는 미술기관이 성장하고 전진해 나가려면 분명한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밀고 나가려는 아주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의지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죠. 미술관 관장 또는 문화관련 시의원들, 시장, 시청 문화과 공무원들 이런 행정 쪽에 여러 파트너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술관이라고 해서 미술인들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너무나 현실이기 때문에 인천시의 문화를 만드는 인천의 시민들 그리고 거기서 유력한 오피니언 리더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 나가겠다는 의지로 중심을 잡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인천시립미술관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앞서 잠깐 예를 들었지만 전남도립미술관도 그렇고 지금 준비중인 충남도립미술관에도 적용됩니다. 부산시립미술관도 있고 서울시립미술관도 있습니다. 많은 미술관들의 사례들을 보면, 해외 사례는 사실 그 속 깊은 얘기까지 알 수는 없지만 국내 사례들을 보면 결국은 미술관이 좋은 역사를 만들면서 순항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미술관과 관계돼 있는 사람들이 중심을 잡는 어떤 강한 의지 그리고 협력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술관 추진 전략,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접근성’의 주체와 객체를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다양성을 또 누가 형평성을 누구에게는 등등, 이런 걸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막연히 개념을 던지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인천시 그리고 인천시의 미술인 여러 단체들, 유력한 작가들, 원로들, 평론가들, 인천시의 미술문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유력한 분들의 다양성과 형평성과 포용성과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누가 이 미술관을 만들어 나가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전시의 예를 하나 들자면, 2018년 1월에 평창올림픽 특별전을 문체부에서 제안해서 (구)서울역사에서 만들었습니다. 흔히 관 주도 전시들의 주된 특징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는 건 상식입니다. 더불어 과잉 의미부여와 메시지로 관객들을 피곤하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평창올림픽은 너무나 중요한 국가행사였기 때문에 콘텐츠의 약 70% 정도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지만 그래도 좀 새로운 걸 해보기로 했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그보다 딱 30년 전이죠. 1988년 서울올림픽 볼он티어들 약 50명, 모두 70~80대입니다. 그리고 2018년 평창올림픽에 볼он티어를 신청한 젊은 세대들 50명, 이들 100명의 인터뷰를 영상으로 촬영해서 상영회를 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전 대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30년 전 볼он티어들이 생각했던 국가관과 문화관, 봉사관, 제일 행복한 게 뭐가, 충실하게 산다는 게 뭐가, 1988년도 볼он티어들의 생각 그리고 2018년도, 한 세대 내지 두 세대 이후의 볼он티어들이 생각하는 국가관, 애국심이라고 할 수도 있죠. 봉사관 또 행복한 삶이라는 게 뭐가, 올림픽의 의미가 뭐가, 이런 인터뷰를 쪽 병치해 놓은 전시였어요. 제가 볼 때는 남다른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재미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사례를 매번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미술관이, 특히 공립미술관이 어떤 새로운 콘텐츠나 또는 새로운 파트너, 새로운 예술가, 새로운 형식을 작고 훨씬 유연하고 젊은 미술기관들과 동일한 속도와 유연성을 갖고 함께 가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공립미술관은 공립미술관의 체급에 맞는 유연성이 필요하고 그 체급에 맞는 콘텐츠 구성이 필요합니다. 밀레니엄 이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담론은 시장 담론이에요. ‘누가 많이 팔았다’, ‘누가 어디 유력한 해외 갤러리의 전속 작가가 됐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는 담론은 베니스 비엔날레에 누가 나갔냐, 올해

30주년인 광주 비엔날레 프로젝트에 누가 나갔나 이런 거예요. 미술담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주요 키워드와 주요 서사들이 이렇게 큰 흐름을 잡고 있어요. 인천시립미술관이 출범한다면 이러한 우리 사회와 현대미술은 기본적으로 국제문화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적인 미술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유력한 미술기관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키워드를 던지고 어떤 행보를 하고 어떤 포지셔닝을 하느냐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집중하기란 쉽지 않을 텐데요. 여러 가지 산적인 인천시의 역사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누적되었던 여러 가지 기존의 문제들, 기존의 가치들, 기존의 갈등들이 제가 앞서 말한 이런 간단하고 명료한 공립미술관이 나아가야 될 길을 계속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하는 시장 또는 부시장, 인천시의 문화 담당자들 그리고 시의원들, 유력한 미술인들, 미술 기관들, 평론가들, 교수들 이런 분들이 중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인천시립미술관에 가장 중요한 미션이 뭐냐 철학이 뭐냐 지금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될 그 기준점은 뭐냐를 계속 생각하고 만들어 나가야만, 한 10년 20년의 시간이 쌓이면서 상당히 권위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적어도 동아시아권에서 존경 받는 그런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정지은 문화비평가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정지은 비평가님은 오랜 기간 인천문화재단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문화정책, 공공미술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등 인천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정말 가깝게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 미술관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정책과 예술교육 등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미술관이 지역과 소통하고 다양하게 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업이 중요하다.”

정지은 (문화비평가)

네 정지은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쪽 자랐고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시립미술관을 준비하실 때 고민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인천 시민들의 기억 속에 미술관이 없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박물관을 간 적은 있지만 미술관은 간 적이 없었고,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미술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얘기는 해왔지만, 여전히 건립이 안 돼 있고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시립미술관이 생긴다면 그것만으로도 물론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겠지만, 인천시민들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인천시립미술관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 없는 기억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것부터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박물관과 미술관이 같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면 더 좋겠습니다. 앞에서 다양성, 통합 이런 가치들을 추진 전략으로 언급해주셨는데 저는 전략이라기보다는 방향성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시립미술관이 만들어갈 여러 프로그램이나 문화예술교육에서 당연히 가지고 가야 하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분리해서 생각한다면보다는 문화예술교육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 방향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천의 다양한 의제들과 여러 가지 이슈들을 미술관에서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미술관이 생기고 나면 다양한 협업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술관이 모든 것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실제로 인천시립미술관이 후발 주자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별개로 그 방향 속에서 지역과 어떻게 소통하고 네트워킹하고 그걸 만들어가는 방향을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인천문화재단이라든가 여러 기초문화재단들이 있고 미술관이 생기면 같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빌드업하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요. 학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미술관에 그냥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을 것이고 예술 관련한 과가 있다면 그 과하고도 어떻게 협업할지에 대한 것도 같이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영화제’ 같은 경우는 1년에 5일 가량 진행하지만 영화제가 진행되지 않는 기간 동안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영화를 상영한다든가 아니면 감독들과 만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방식으로 영화제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미술관도 마찬가지로 일 것 같아요. 전시도 중요하지만 그 전시를 보러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그리고 미술관이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도록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시립미술관 부지가 사실은 아파트 촌 사이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이 아파트의 가치를 높여주는 시립미술관이 들어온다’는 광고를 보고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술관이 그냥 하나의 뭔가 편의시설 또는 아파트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냥 하나의 시설로만 보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또 그것대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미술관이 과연 어떤 미술관이 될까 싶고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는 미술관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스럽죠. 실제 인천은 여러 문화다양성의 공동체가 모여 살고 있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미술관이 위치할 학익동과 멀지 않은 곳에 함박마을이 있고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여러 외국인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한테 미술관이 어떤 곳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이 친구들은 미술관에 한 번이라도 오면서 학창시절을 보내게 될까? 이후에 성인이 된 다음에도 이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미술관에 올 수 있을까? 과연 미술관의 존재를 알 수 있을까? 와 같은 고민도 사실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안산 같은 경우에 러시아 친구들이 사는 동네가 있는데, 안산에 경기도미술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경기도미술관을 가는 것보다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의 놀이터, 굉장히 방치된 상태의 놀이터, 역시 방치돼 있는 학교 운동장 같은 곳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그 친구들한테까지는 와 닿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그 친구들의 놀이 공간을 분석한 연구자가 말하길 그곳은 놀이 공간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생활 환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경기도미술관이라는 굉장히 큰 공립미술관이 근처에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런 공간에서만 놀고 있는 거죠. 이런 사례를 비춰볼 때 과연 인천의 시립 미술관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을 해봐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다양한 방식의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미술관이 지역의 의제와 이슈를 어떻게 담아내고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교학교를 비롯해 인천에 굉장히 다양한 층위의 친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함께 미술관이 어떤 걸 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디아스포라 영화제 초기에는 화교학교 친구들하고도 여러 프로그램을 같이 했었는데요. 개막식 때 그 친구들이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찍은 영화를 야외 광장에서 상영을 했었고
화교학교에서 모든 선생님과 학부모, 아이들과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자막이
4개 국어로 나갔어요. 중국어와 영어를 비롯해
4개 국어로 나갔었죠. 아이들이 만들었으니
만들새도 엉성하고 당연히 퀄리티가 높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이 그때 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자기들이 이 동네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지만
한 번도 한국사회에서 자기들한테 이런 식의
손을 내밀어준 적이 없었고 어떤 행사를 할 때
자기들을 초대해 주거나 함께하자고 제안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경험이 특별하고
감동적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거의 동네 잔치처럼
개막식이 진행이 됐었죠.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저는 인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립미술관이기
때문에 참고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술관이 생긴다면 이런 기존의
행사들과 잘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월 영화제 기간에 맞춰 매년 연계된 전시를
기획할 수도 있겠죠.

요즘에는 미술관에서 장터가 열리기도 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마르체가 그 예입니다.
미술관이 딱딱하고 근엄한 곳이 아니고
마당으로서, 플랫폼으로서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곳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천시립미술관이 늦게 생기는 만큼 인천
시민들한테 어떤 공간이 될지에 대한 상을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상들을
잘 담아낼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 어떻게 시립미술관을
알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먼저 제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창길 개항로프로젝트 대표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이창길 대표님이 로컬
크리에이터 씬에서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신데요.
인천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로컬씬을 형성하신

문화기획자로서 이 지역에 대한 경험과 생각,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인천시립미술관
건립을 준비하는 이 단계에서 로컬의 시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을지도 듣고
싶습니다.



“특별한 것을 해야 특별해진다.”

이창길 (개항로프로젝트 대표)

저는 개항로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이창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특별한
것을 해야 특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것을 계속 기획하면 평범해진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은 맛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10위권이고 BTS도 있고 손흥민도
있고 굉장히 맛있는 국가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 역시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맛있는 것 같습니다. 통닭집 사장님
중에 박사학위 소지자도 많고요. 국밥집
사장님 중에서 피아노 전공자도 수도룩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꿈꾸고
부르짖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술을 즐기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뉴욕에 가서 박물관을 경험하고,
런던에 가서 테이트 모던을 구경하고, 가깝게
일본에 여행 가서 쇼핑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박물관, 갤러리를 찾아보고 구경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천이라는
도시는 300만의 도시이고 인구 소멸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공향도 가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메가시티라면 급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합의를 한다는 것, 많은 사람의 의견을 조율한다는 것은 저는 옛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계 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를 하면 할수록 평범해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다양한 얘기를 계속해서 합치면 합칠수록 평균점에 도달하고 모든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의 결과물을 낸다면 그것은 평범하다 따라서 매력 없다. 그렇다면 나는 서울에 있는 미술관을 갈 것이다 라고 결론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로컬리티에 기반한 정체성인데 정체성과 주체성이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교조주의적으로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인천이 고향이고 인천에서 초중고를 나왔습니다. 인천 역사를 백제시대 때부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역사가 짧다고 생각해요. 1883년 이후부터를 인천의 역사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200년이 안 된 도시에 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정체성과 주체성이 명확하지 않다면 현재 2024년에 우리 힘으로 로컬을 만들어내고 정체성과 주체성을 만들어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잉글리시네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영국의 정체성과 주체성입니다. 이 책에는 에든버러 페스티벌이 나오죠. 에든버러 페스티벌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든 겁니다. 그전에는 에든버러 페스티벌이 없었죠. 지금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에든버러라는 도시를 예술의 도시, 평화의 도시로 인식하지만 사실상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은 얼마 안 된 일이거든요. 그러면 에든버러의 정체성과 주체성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사실상 의미 없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면 부산국제영화제 제1회가 기억이 나거든요. 처음에 부산국제영화제를 만든다고 했을 때 아마 전부 다 반대했을 겁니다. 당시에 부산에는 영화관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어엿하게 매년 영화제가 열리죠. 영화라는 주제는 부산에서

로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부산에 전 세계 배우들이 오고 예술가들이 오니까 이제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순천만의 정원도 같은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천의 한 공무원의 노력으로 정원이 만들어졌고, 세계적인 정원이 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순천하면 정원이라는 로컬리티, 정체성과 주체성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몇 년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특별한 것을 만들고 싶다고 하지만 기초 자체가 평범한 것을 주장한다면 결코 특별한 게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인천시민을 만족시키는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급에 맞게 전 세계 10위권 국가의 300만 인구를 갖고 있는 도시의 급에 맞게 전 세계 사람들이 보러 올 수 있을 만큼의 정도를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도 하지 않는 주제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욕을 많이 먹을 겁니다. 그런데 욕을 먹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00명 중에 100명이 찬성하는 것은 아주 평범한 겁니다.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아마 100명 중에 최소한 80명 정도가 욕을 해야 멋진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는 파리의 에펠탑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를 기억하고 있고, 영국 런던 템즈강에 밀레니엄 브릿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24년이 지난 현 시점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밀레니엄 브릿지를 걸어서 테이트 모던으로 걸어가죠.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아주 멋진 다리로 인식 되었습니다. 처음에 영국 시민들은 엄청나게 반대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계속해서 평범한 걸 고민하면 우리는 평범해질 것이고 인천 시민들은 가까운 서울에 있는 갤러리로 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울을 따라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서울에서 하지 않는 것들, 서울을 따라 하지 않고 우리만의 것을 해야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조금 용기가 필요합니다. 욕 먹을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모든 사람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쫄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네 감사합니다. 진짜 그렇네요. 뭐 짧다고
생각하면 짧을 수 있는 역사가 인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자유 종합토론 순서인데요.
플로우에서 궁금하신 것도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아까 미처 다 말씀 못하신 아쉬운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플로우의 질문
먼저 받아볼게요.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질문

권오승 (인천광역시청 시립미술관팀장)

이창길 대표님. 서울을 따라 하지 않고 우리만의
것을 하자고 제안하셨는데, 지금 하고 계시거나
진행하셨던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창길 (개항로프로젝트 대표)

얼마 전에 제가 ‘신발 던지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던졌어요. 어떤 건가 하면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만 시대가 맞지 않아서 다들 힘듭니다.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열심히 살지만 다들
실패도 하고 돈도 못 버는 경우가 많아요. 제
친구 중에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있는데, 이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제자들 중에서 취업 못한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공부를 못해서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고 이 시대에 대학생이 된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아무도 힘을 들이지 않고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 누구나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누구나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신발 던지기가 생각이 났고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신발을 던져서 1등에게는
개항로 맥주 선물도 주고 그 다음에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랬더니 무려 그 행사에 말도
안 되는 행사에 300명이 왔습니다. 300명이
되게 재미있게 놀았던 이 행사는 당연히 전국
아무데도 없죠. 왜냐하면 제가 혼자 생각한
거니까. 지금은 많은 지역에서 저에게 와서
신발 던지기 행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그때 300명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재미있게
노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인천이라는 곳에서
이런 것들을 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실 신발 던지기가 인천이랑 관계는 없지만
만약에 그 행사를 10년, 20년을 한다면 어엿한
인천만의 행사가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내년에는 기네스북에 한번 등재라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 행사를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만의 축제가 되고 우리
인천만이 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2024년
저희 개항로프로젝트의 슬로건은 뭐냐 하면
‘노 레퍼런스 글로벌 스탠다드 인천’입니다.
더 이상 레퍼런스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레퍼런스가 된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레퍼런스를 볼 필요 없다 레퍼런스를 보면 안
된다. 왜? 대한민국은 멋지고 인천은 멋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감사합니다. 한상정 교수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아까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좀 더 오픈된 그런 자리들을 많이 만들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예라든지 제안이 있으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에 이어주실 부분이 있으면 더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희 내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년에 어떻게 하면 시민들과 더
많이 오픈 된 상태로 만나면 좋을까요?

한상정 (인천대학교 교수)

올해는 이미 다 갔다는 말씀이시군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 걱정은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기본설계 용역이 이제 끝난 것 같고, 아마

실시설계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삼을 뜨면 사실 그 다음부터 구조 변경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전시 공간이나 프로그램 공간 등 다양한 공간들이 정말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잘 설계가 된 것인가를 한 번은 점검하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건립추진위원회 분들이 열심히 보고 계시긴 하지만 혹시나 그분들이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미처 고민하지 못한 영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별개로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제가 보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뮤지엄파크 전체에서 시립미술관 전시 공간만 따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뮤지엄파크라는 것 자체가 시립미술관 일종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거죠. 박물관과 미술관이 같이 있으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보면 공간 자체도 별개로 있으니까 사실 통합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두 가지가 통합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사실 설계부터 통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공유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제별로 모여서 자문회의나 토론회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지는 비평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인천에는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들이 있는데 여러 커뮤니티 입장에서 이 시립미술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미술관의 메인 오디언스는 미술가들이나 예술가들이나 아티스트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일반시민들의 관점을 놓치지 않아야 하잖아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는 시민들이 웬만한 거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웬만해서는 시민들의 눈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비판 의식도 굉장히 높아졌고, 미술관까지 직접 가지 않아도 놓고 공부할 거리들은 사실은

널리 있거든요. 그러면 미술관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인천시민들을 끌어들이고 같이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하고 공간 설계에 들어가야 할 겁니다. 물론 현황을 보니 공간 설계회사가 굉장히 전문적인 곳이라서 여러 측면을 고안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인천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여러가지 영역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계속 자문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 실제 현재 이 구조에서는 박물관 대비 미술관에서 좋은 의견을 넣기가 힘든 구조인 것 같습니다. 예컨대 박물관의 경우 관장님께서 보시고 이거 우리 박물관에서 한 10년 내에 이러이런 것들을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이 공간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라든가 공간의 위치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든가 동선이 정확하지 않을 것 같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굉장히 빨리 반영될 수 있겠지만 현재 관장도 없는 이 시립미술관 준비팀에서 이런 것들을 제기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지 이런 것들도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삼 뜨기 전에 꼭, 시공하기 전에 꼭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세미나를 통해 다른 지역 미술관 관장님들과 각계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실제로 향후에 미술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옛날과 똑같은 기능에서 멈출 것인가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마도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네 감사합니다. 김복기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인천이 51%는 글로벌하게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인천시립미술관이 게이트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미술관의 기능이 참 많잖아요? 건물을 지어 놓으면 미술관이 운영되는 줄 알지만, 사실은 전시, 보존, 연구, 교육, 또 최근에 와서는 레크리에이션 역할까지 맡아야 하죠. 오늘날 이른바 ‘뮤지올로지’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변모하는 미술관의 시대를 맞아, 늦게 출발하는 인천미술관이 너무 고전적인 미술관 개념의 틀에 묶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 변화를 유연하게 수용하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현재로서는 우려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관의 기본적인 기능은 충실히 다져야죠. 사실은 기본을 제대로 갖춘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문화 지정학의 측면에서 인천은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잘 살리는 데 많이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김노암 선생이 오늘날 현대미술의 담론은 비엔날레와 국제아트페어가 주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미술관이 다른 제도에 담론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미술관은 아트페어와 비엔날레와 경쟁해야 합니다. 마침 지난주가 대한민국의 ‘아트 위크(Art week)’였잖아요. 내가 그 일주일간 프리즈-키아프, 광주비엔날레 등의 행사 때문에 입국한 외국 손님치레로 아주 바빴답니다. 이 기간에 해외에 사는 한국인들도 많이 다녀갔어요. 그들의 95% 이상은 인천을 통해 출입국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 인천은 미술로 보면, 그냥 흘러가는 도시인 거죠. 세계적인 유명 작가, 컬렉터, 큐레이터, 비평가, 미술관 관계자들 모두 인천을 거쳐 한국미술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인적 물적 교류에 인천이라는 손가락 하나 더 없을 수 없을까요.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인천의 이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점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인천은 또 한반도의 지정학으로 보면 남북분단의 접경입니다. 강원도도 북한 접경이지만,

산악지역이라 문화교류의 사정이 완전히 다르지요. 이런 지정학적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년 전에 이승미 인천아트플랫폼 관장이 기획했던 프로젝트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분쟁의 바다-화해의 바다>라는 전시였는데, 인천아트플랫폼 작가들이 백령도와 연평도 등을 답사하고 ‘평화와 바다’라는 주제로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이처럼 통일 시대에 대비하는 한국미술의 미션을 인천미술관이 다른 지역보다 먼저 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현대의 ‘디아스포라’를 돌이켜 본다면, 6.25전쟁 이후에 인천은 다른 지역 사람들의 유입이 많은 곳이죠. 지금도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천을 베드타운으로 이용하는 젊은 세대로 많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성격이 다른 지역보다 좀 특수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 해야 할 일도 있겠죠.

내가 연구한 바로는, 전체적으로 인천 자체의 미술의 색깔은 약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출신의 많은 미술가가 대부분 서울로 이주해버렸지요. 그래서 서울과 멀리 떨어진 전남이나 경남 지역의 미술에 비해 인천미술 자체의 미술의 정체성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약하다는 사실을 꼭 나쁘게 풀이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특성을 인천 나름대로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 방식이 문제지요. 미술관이 인천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는 한은 지역성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또 인천을 내세우는 만큼 인천의 지역 경쟁력이랄까, 한국 내에서의 경쟁력이랄까, 또 대외적인 경쟁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네 감사합니다. 김노암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전에 스마트 미술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긴 했었는데 인천시립미술관은 스마트 미술관이 될 수 있을까요?

전 세계를 다 볼 건 없고 그냥 동아시아를 보면 우리나라는 산업적으로나 과학기술적으로 상당히 균형감 있게 발전한 나라예요. 그래서 굳이 미술 분야가 아니어도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는다면 사실 굉장히 훌륭한 과학기술적 인프라나 파트너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도 사실 상당히 성공적으로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정상적인 사회 운영을 해왔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직후에 LG 시그니처와 사이버 뮤지엄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한 11개월 정도 환기미술관의 김환기 작가의 작업 콘텐츠를 온라인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그 직후에 NFT니 증강현실이니 이런 소위 디지털 기술과 영상 기술, 내러티브 여러가지 것들이 다 종합된 것들을 다 활용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발전시켜온 IT 문화라든가 스마트 기술들이 미술관 프로그램이나 구체적인 전시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 예산만 있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일단 미술관 조직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구축해온 첨단 기술들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가 돼 있느냐 또는 여러가지 구조적으로 또 조직이나 행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그런 기술들을 바로 바로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쉬운 문제는 아니예요. 국공립 미술관들은 무거워요. 예산 운영부터 성격 자체가 무거운 조직입니다. 그런데 스마트 기술이라든가 스마트 문화는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관객들은 이미 일상 속에서 그러한 스마트 기술과 문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무거운 미술관에 들어왔을 때 그 기술만으로는 관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증강현실이라든가 가상 현실들을 미술관 전시 프로그램으로 많이 가져왔지만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기술로 전시의 완성도 내지 관객 만족도를 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합니다. 결국 스마트 기술은 거드는 역할인 거예요. 큐레이터나 테크니션, 아티스트의 다양한 아이디어나 상상력이 기술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미술관 내에 있는 여러 조직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세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많은 국공립 미술관들의 조직 구도를 보면 최근에 우리나라 미술관의 수장인 관장 직급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미술을 전공한 전문가가 아니라 행정공무원이 관장으로 옵니다. 단적으로 모 지자체 미술관들의 직급은 과장급이에요. 그리고 조직도를 보면 출장소로 잡혀 있어요. 그럼 이런 데에서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술을 빨리빨리 받아오려면 의사결정이 빨라야 되고 결재가 빨라야 되고 예산 집행이 빨라야 되는데, 미술관을 운영하는 수장 자체 직급이 그렇게 낮고 권한이 없다면 당연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겠지요.

제가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의 주 관심사가 이제 인공지능이죠. Open AI, Chat GPT, 생성형AI가 지금 시대의 기술을 상징하는데, 이 기술은 굉장히 위험한 기술입니다. 사실 우리가 SF적 상상력을 발휘하든 안 하든 우려를 많이 낳고 있는 기술이고 문화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술가들이 어떤 표현의 도구로 쓰기에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기술입니다. 미술관은 사실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 기능이 있죠.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문화적 성과들, 문화적 유산들을 미래 세대에 잘 전승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또 아시다시피 이제는 뭐 탈학교부터 해서 소위 우리가 근대 시대에 구축해 왔던 교육 제도도 지금 다 해체되고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교육 문화나 시스템이 필요한 시기에 미술관이나 박물관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 교육의 담당자로 더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립미술관, 국공립미술관이라는 이 사회적 도구, 제도적 도구에 우리가 다소 피상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AI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죠. 좋은 대화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AI를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AI에게 좋은 질문을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기술인데 그동안 우리 사회가 좋은 질문을 하는 역량을 키우지 않았어요. AI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질문을 해서 AI가 그 좋은 질문에 맞는 답을 찾게끔 하는 것인데 우리가 좋은 질문을 하는 훈련을 받아왔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굳이 첨단 기술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현대미술, 현대예술이 해야하는 것이 사실은 좋은 질문을 하는 거죠. 시대의 중요한 가치들, 문제적 가치들,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예술가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사회적 미덕입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이 우리가 돼 있느냐와 그런 문화를 우리가 인정하고 있느냐 되묻는다면 회의적이라는 거죠. 사실 좋은 질문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사회 그리고 타자들과의 공감 능력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좋은 소통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기술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텐데 그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건물을 짓고 돈을 많이 들여서 장비를 사고 한다고 해서 그게 제 역할을 하겠느냐 싶습니다. 김복기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00년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1회 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 중 상당수가 TV와 빔 프로젝트와 장비 구입에 들어갔습니다. 영상 장비나 이런 전자 장비는 1년 6개월 내지 1년이면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전에 만든 제품은 구형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예술가들은 자주 새롭게 등장하는 멀티 미디어나 뉴 미디어를 활용하고 싶어 해요. 자기의 새로운 상상력을 구현해주는 장치니까. 이렇게 매년 세계적인 작가들은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하는데 우리는 예전 2000년도 당대의 미디어 장비만 잔뜩 돈을 들여가지고 산 다음에 이후에는 쓸 수가 없어서 창고에다가 채워놨단 말이에요.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폐기할 수도 없어요. 그냥 재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과 기술이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관계를 따져보고 방법을 찾고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그것에 대해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우리가 원하는 상당히 괜찮은 스마트 기술들이라든가 이런 첨단 미디어들을 비로소 국공립 미술관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미술관 관장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행정공무원이 관장을 하게 되는데, 무슨 세계적인 미술관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감사합니다. 1차도 그랬고 2차 세미나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쟁점이 미술관의 운영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 주제나 하드웨어보다는 어떤 멤버들이 운영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며 관장님은 언제 선정해서 함께 주제를 잡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선행이 돼야 하지 않냐는 말씀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습니다. 정지은 비평가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2차 세미나 때 인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많이 모셨었어요. 미협과 예총에 계신 분들 그리고 미술대학의 교수님들, 작가님들도 참여하셨습니다. 협업을 강조해 주셨는데, 인천시립미술관은 앞으로 어떤 커뮤니티와 함께하면 좋을까요?

정지은 (문화비평가)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실제 미술관 준비하시는 팀에서 두 가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저는 인천미술이 한국미술사에서 거론이 거의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자료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자료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이라는 잡지가 계속 나왔었고 <황해미술>이 있고 <인천문화현장>이라든가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오프라인 자료들이 분명히 있으니 시각 관련한 미술관 자료들을 일단 아카이빙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아카이빙 내에서 어떤 자료들을 추출할 지에 대한 의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시공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카이브 프로젝트도 참고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시각 자료가 제가 알기로 모아지기는 했는데 개인들이 갖고 있다 보면 버려지는 경우도 있겠죠.

또 특정 커뮤니티를 호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인천시립미술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라고 했을 때, 미술관 자체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예를 들면 내가 인천에서 살면서 갤러리를 가봤다든가 동네 친구 누구 아빠가 화가였다든가 예를 들면 미술 선생님이 뭘 했다든가 하는 식의 미술관과 관련할 수 있는 기억들을 모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모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수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을 텐데 시민들과 함께 이 기억을 만들어가는 차원의 캠페인 형식을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미술과 관련한 자료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 잘못하면 그냥 사장될 수 있는 이 자료들을 좀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도 인천미술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트플랫폼도 2009년에 개관했는데 개관 전 공사 사진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미술관 같은 경우도 짓는 과정 등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과 기록하지 않는 건 굉장히 차이가 크죠. 인천시립미술관이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준비하는 과정 자체에 관한 아카이브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준비하는 기간 동안 아카이빙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누가 다시 찾아서 하기 너무 어렵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지를 갖고 진행한다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은 자료를 개관 전 가상의 플랫폼이라든가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통해 사전 오픈 행사에도 연계하고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각자의 기억을 모으고 이 기억을 어떻게 여기에 담을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미술관이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창길 대표님, 제가 로컬 크리에이터의 아버지라고 표현했는데요. 미술관과 함께 좋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 만한 파트너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인천시립미술관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창길 (개항로프로젝트 대표)

인천시립미술관은 인천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많은 도시에 가보면 그 지역에 시립 자를 달고 있는 예술관과 미술관은 그 도시를 나타내는 얼굴이고, 그 도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정하는 곳으로 여겨지죠. 글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작품으로 보여주는 것이 시립미술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를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말하지 않고 미래를 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들 둘이 있는데 제 아이들이 멋있는 곳에서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또 인천이라는 도시는 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천은 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새 것인 도시답게 미래를 말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과거의 역사를 모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예술도 미래를 말하는 곳이 돼서 많은 친구들이 인천에서 꿈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찰에 가면 특징이 있잖아요. 조용히 쉬게 되는 절이 있고 과거에 머물게 되는 절이 있죠. 부석사는 젊은 스님들이 가서서 큰 꿈을 안고 돌아가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부석사 전경처럼 인천이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인천이라는 도시가 무시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괜찮다, 우리 멋있다 정도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충분히 멋있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말하고 가능성을 말하고 그런 걸 보여주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총책임을 맡을 텐데, 그분을 멋진 사람으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인 기획이 멋있어지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들이, 클래식한
명품들이 돈도 많고 역사와 전통도 있고
스토리도 있지만 매해 크리에이터 디렉터를 뽑고
국가에 관계없이 사람을 데리고 오고,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을 책임자로 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명품이 색깔이 확 바뀌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것도 그 명품을 상징하는
하나의 걸로 인식하잖아요. 이를테면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 독특한 예술가가 들어와서 말도
안 되게 색을 입혔는데 지금은 그게 루이비통의
하나의 컬러가 됐죠. 논란도 엄청 됐지만 하나의
컬러가 됐고 서사가 된 것처럼, 시립미술관을
기획하는 누군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잘
뽑는 것이 이 일 전체 중 9할이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인천을 위해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감사합니다. 올해 저희 이 세미나가 처음으로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는 첫 프로그램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은 없으실까요?

김복기 (경기대학교 교수)

아까 이창길 대표께서 “미술관 설립...,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 반대와 저항을 이겨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쭙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전에 나 나름의 지역미술관
설립에 부딪치는 저항이랄까, 그런 부분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술관 건립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술은 기본적으로 ‘새로움’이랄까 ‘활력’이랄까,
이런 에너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실현하는 데에 있어 지금 인천미술관 건립의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인천미술관은 시가 주도하는데, 여기에는
장점도 단점도 공존합니다. 아까 김노암 선생
지적대로 공립은 사립하고 다르게 실행의
순발력이 떨어집니다. 뭘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요. 그리고 미술관장 직급이나
인력 등 여러 행정적인 문제는 이런 세미나에서

아무리 갑론을박한다 해도, 또 다른 공적인
절차와 실행의 문제가 산적해 있을 겁니다. 그런
만큼 시에서도 문화적 마인드로 미술관 문제에
접근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미술관의
실제적인 주체의 문제입니다. 인천시립미술관이
건립되면, 당연히 인천 기반 작가들을
중점적으로 끌어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미술의 지역성 정립을 당연히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원로가 관장이
돼야 한다든지, 지역 작가의 작품을 작품성과
별개로 우선 소장해야 한다든지 하는, 이른바
낡은 ‘지역 패권주의’는 경계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불거졌고, 그것이
건강한 미술관 문화로 가는 발목을 잡기도
했습니다. 내 생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
대표의 답을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저항에
부딪힐 것인지.

이창길 (개항로프로젝트 대표)

앞서 이야기했지만 시립이라는 말에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새로운
방향성을 가리키고 새로운 것을 말할 때는
언제나 많은 사람의 반대가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제공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세상에
없는 것들을 제공한다는 것은 언제나 반대에
부딪힌다고 생각을 하고, 그 수많은 반대가
명예롭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욕을 먹더라도
결국 10년 후에 여기 계신 분들이 최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욕 먹을 각오를 하는 게
좋고, 이제 우리나라 정도면 맛고 틀린 것은
없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김노암 기획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학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누군가가 리더가 돼서
움직일 테니 그 리더를 잘 뽑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김복기 (경기대학교 교수)

소장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물부터 먼저 지어놓고 그 다음에 소장품을 수집하나요?

김아림 (인천광역시청 학예연구사)

조직이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직이 구성된 후에 소장품 수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 후반 2026년까지 정할 예정입니다.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네, 김노암 선생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노암 (전시기획자)

제가 2008년도에 요코하마트리엔날레에 가서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고 왔는데요. 요코하마라는 항구도시가 그 행사를 하면서 세계 현대미술 씬에서 상당히 괜찮은 도시로 브랜딩이 됐거든요. 여기에도 지금 젊은 기획자와 평론가분들이 있죠. 우리 김복기 선생님이 우려한 것처럼 지금 지역의 그런, 패권주의라는 말은 굉장히 강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영향이 있습니다. 청년 작가들이 자기 고향을 이탈해 가지고 서울 수도권으로 오거나 해외로 나가는 이유가 젊은 작가들이나 젊은 기획자들이 기를 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 사회의 학연 지연의 줄 세우기가 사실은 지역으로 갈수록 강하죠. 인천은 좀 독특한 지역이지만. 현대미술은 그냥 쉽게 말하면 창의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뭐 이런 가치들을 지향하잖아요. 그런 가치들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으려면 역시 체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역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 예술가나 기획자들에게 많은 기회와 문호를 개방해야 되겠죠. 시립미술관의 경우, 다양한 전시나 활동이 이뤄지고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상황이 되면 해당 시민들 사이에서 이거 우리가 세금으로 우리가 낸 기관인데 애먼 사람들만 잔치를 벌이나 이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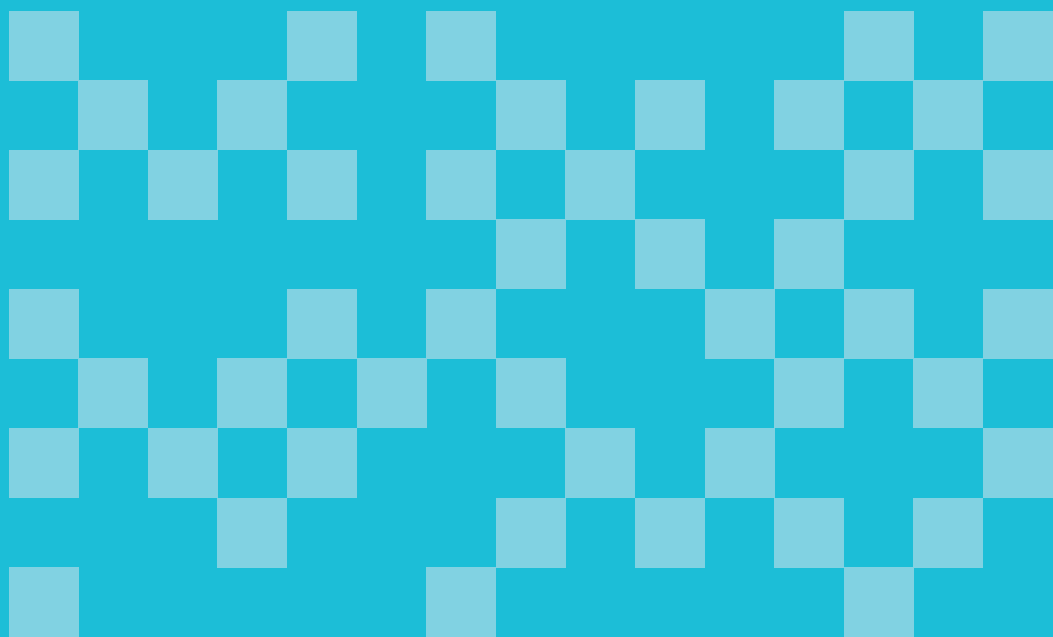
말들이 가끔 나와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사실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대구미술관이 10여 년 전에 쿠사마 야요이 초대전을 하면서 아주 급부상을 했어요.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결국은 미술관이 자기 브랜딩을 하고 상징성을 획득하고 유력한 기관이 되려면 결국은 좋은 콘텐츠 그리고 앞서 얘기한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시대에 의미 있는 발언을 한, 메시지를 주고 공감을 준 그런 예술가들이나 예술 형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초대하고 표현해야 그게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거지, 지역에 그냥 오래 계셨다고 여기서 평생 계셨다고 무조건적으로 우선돼야 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존중하지만 그것이 국가기관인 시립미술관의 설립 취지나 운영목표와는 다르다는 애깁니다. 그런 어떤 긴장과 갈등을 어떻게 잘 해소하면서 나아가느냐가 큰 관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천시립미술관 건립·개관 사전홍보 프로젝트 3차 전문가 연구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전문가 선생님들 너무 감사 드리고요. 10월 31일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 공개포럼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과정들 아카이빙하라고 조언해 주셨는데 자료들 잘 정리하고 남겨놓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가 연구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민 공개포럼

다양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술관

2024.10.31.(목)
틈문화창작지대

시민 공개포럼

다양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술관

공개포럼 발제



발제 1 인천미술사 조사·연구의 방향

신수경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회장

토론 1 ‘인천미술사 조사·연구의 방향’에 대한 토론문

조경재 프로젝트 스페이스 코스모스 대표

발제 2 글로벌시대 지역미술관의 건립·개관 사례와 변화 양상

기혜경 홍익대학교 교수

토론 2 ‘글로벌시대 지역미술관의 건립·개관 사례와 변화 양상’에 대한 토론문

차기울 인천대학교 조형예술학부 교수

발제 3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미술담론

조경재 프로젝트 스페이스 코스모스 대표

토론 3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미술담론’에 대한 토론문

정지은 성북문화재단 문화도시추진단장

발제 4 AI 시대의 미술관 전략과 기술 접근성

김노암 휴아트&미디어랩 대표

토론 4 ‘AI 시대의 미술관 전략과 기술 접근성’에 대한 토론문

염지희 2024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

인천미술사 조사·연구의 방향

신수경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회장

I. ‘인천미술사 조사·연구’용역의 추진배경

인천광역시시는 2016년 인구 300만(현재 3,016,520명) 시대를 맞은 국제도시로, 서울과 부산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도시다. 하지만 인천은 국내 특별·광역시 중 시립미술관이 없는 유일한 곳이다. 잘 알다시피 1995년 34년 만에 지방선거가 열리면서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화되었으며, 이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공미술관 설립이 붐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이미 1988년 시립미술관이 문을 연 서울(2002 서소문관 이전 개관)을 비롯해, 1992년 광주, 1998년 대전과 부산에서 시립미술관이 각각 개관했다. 2000년 들어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 개정되어 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등록 업무 등의 행정권한이 문화부 장관에서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이양되면서 경상남도(2004), 포항(2009), 제주도(2009), 대구(2011), 수원(2015), 청주(2016), 울산(2022), 전라남도(2022) 미술관이 개관하는 등 국공립미술관 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이렇게 전국 각 지역에 국공립미술관들이 들어서면서 지역 미술사 연구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천광역시시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문화예술 거점 구축을 위해 2017년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 통과했다. 이후 ‘인천뮤지엄파크 시립미술관 콘텐츠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2019),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 연구’(2022) 용역을 발주했고, 2023년 ‘인천시립미술관 운영방안 연구’와 ‘인천미술사 콘텐츠 발굴 연구’ 용역이 추진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립미술관 건립·개관 사전홍보를 위해 올해 세 차례의 전문가 연구세미나를 열었으며, 10월 2일자로 ‘인천미술사 조사·연구’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인천시립미술관 개관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타 시도에 비해 시립미술관 건립이 다소 늦게 시작되었지만, 인천시민과 지역 미술계의 숙원을 담아 콘텐츠 개발과 운영방안 등 미술관 건립 준비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인천시에서 발주한 용역을 보면 진행 순서가 바뀌었고, 비슷한 내용이 중복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기초연구가 이루어진 다음 그 성과를 바탕으로 콘텐츠 개발과 소장품 정책 연구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미술사의 뼈대를 이루는 작가와 작품에 대한 기초연구가 부재한 상태에서 콘텐츠 개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인천을 대표하는 작가가 누구인지, 인천에서 활동하는 작가가 몇 명이고, 어떤 작품을 제작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미술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 계속 나오는 것이다. 인천에 어떤 작가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인천미술의 정체성을 수립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근현대기 인천 미술가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중 하나가 인천이 서울과 28km 거리에 위치한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점이 그러한 원인 중 하나다. 미술관 등 문화시설이 서울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지역 작가들의 다수가 같은 수도권에 있는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인천은 이 지역 대학에 미술 관련 학과가 개설된 것이 1980년대부터로 타

시도에 비해 미술인을 배출할 교육기관이 다소 늦게 생긴 편이다. 이로 인해 인천에서 출생한 많은 작가들이 미술교육을 받기 위해 서울로 유학을 떠나 서울에서 작품활동을 지속한 경우가 많다. 이는 인천 출신의 작가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6·25전쟁과 산업화를 겪으며 타 지역에서 이주해서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도 다수 있지만, 이들을 인천미술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인천문화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일제강점기 인천의 전시공간 및 교육 관련 시설, 미술단체에 대해서는 인천문화재단에서 진행한 『인천미술사 콘텐츠 발굴 연구』(2023)에서 연구한 바 있다. 1990~2010년대까지 전시공간과 교육기관에 대한 조사는 『인천뮤지엄파크 시립미술관 콘텐츠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2019) 보고서에 내용이 담겨있다. 이렇게 두 연구 용역을 통해 전시공간과 교육기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1950년부터 1980년대까지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950년 이후 미술단체에 대한 연구도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인천문화사 정리를 위해서는 일제강점기는 물론 인천의 현대미술이 태동하는 전쟁 직후부터 1980년대까지 포괄하여 문화사 전반을 조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부설 근현대미술연구소는 인천의 미술가(작가, 이론가), 인천에 자리한 전시공간, 미술단체 및 교육기관, 인천 미술계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관한 자료와 작품을 조사·수집하여 인천미술사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동시대 인천미술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창출함으로써 전시기획,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인천시립미술관 개관 준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인천광역시와 ‘인천미술사 조사·연구’ 학술연구용역을 체결했다. 이 글은 이제 막 시작한 ‘인천미술사 조사·연구’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연구 방법, 기대효과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인천미술사 조사·연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소개하는 글이라 할 수 있다.

‘인천미술사 조사·연구’의 수행업체로 선정된 근현대미술연구소는 1994년 설립되어 한국근현대미술 관련 학문 연구, 조사, 발표 및 보급을 도모하여 한국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해온 전문 학술단체인 (사)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에서 학술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2022년 6월 창설한 학회 부설 연구소이다. 근현대미술연구소는 그동안 (사)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에서 진행해온 학술사업의 노하우와 전문 연구인력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각종 사업 참여를 통해 익힌 학술연구 용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인천미술사 조사·연구’ 용역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II. ‘인천미술사 조사·연구’ 학술연구 용역의 개요

1. 연구 범위

연구 범위는 발주처인 인천광역시가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1) 공간적 범위 : 인천시 전역 (시기별 인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확장 가능)
- 2) 시간적 및 내용적 범위

- ① 1단계 : 1880~1980년 인천 출생 및 활동 등 작가, 이론가 조사·연구
 - 인천 미술인명사1 : 1880~1949년 출생, 인천을 연고로 활동한 미술가 및 미술이론가
 - 인천 미술인명사2 : 1950~1959년 출생, 인천을 연고로 활동한 미술가 및 미술이론가
 - 작가별 파일 : 1960~1980년 출생, 인천을 연고로 활동하는 미술가 및 미술이론가
- ② 2단계 : 1883년 인천 개항 이후 1999년까지 미술문화사 관련 전반
- ③ 3단계 : 1883년부터 2000년대까지 변화해 온 인천미술의 형성과정, 미술 담론

2. 연구 세부 내용

‘인천미술사 조사·연구’ 사업은 2024년 10월 2일부터 2027년 10월 1일까지 36개월 동안 3단계로 진행할 예정이다. 1단계 사업은 인천미술인명사(1880~1959) 해제문 집필 및 작가 파일(1960~1980)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2단계는 인천미술문화사(1883~1999)를 분석하여 집필하고, 3단계는 근현대기 인천미술사 총론을 집필할 예정이다. 각 단계별로 추진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단계 : 1880~1980년 인천 출생 및 활동 등 작가·이론가 조사연구

1단계에는 인천미술가들을 집대성하는 미술인명사를 20개월 동안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 대상은 개항으로 근대의 문을 여는 1880년대부터 현대미술의 정착기에 해당하는 1959년까지 인천에서 출생했거나 인천을 연고로 활동하는 미술가로, 연구 대상을 선정할 후 작가의 생애와 주요 활동, 작품세계를 해제한 개요와 연보를 작성할 예정이다. 1960년 이후부터 1980년까지 출생한 미술가는 작가정보(출생연도, 출생지, 학력, 경력(수상 이력 포함), 전시이력(개인전, 단체전), 작품비평문과 대표작 30여 점을 목록화한 작가파일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1960년 이후 출생한 작가는 해제문 대신 개별 작가 파일을 작성하는 것은 현재 미술계에서 왕성하게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로,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리할 경우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2) 2단계 : 인천미술문화사(1883~1999) 분석 및 집필

2단계 사업은 10개월간 진행되는데, 우선 1단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확보한 인천미술가들의 정보 및 작품세계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1883년부터 1999년까지 인천문화사를 분석할 것이다. 이후 자료를 추가 조사하여 항목별·연도별로 목록화하고 ①인천에서 개최된 전시 및 전시공간에 대한 분석과 해제, ②인천을 기반으로 한 미술단체에 대한 분석과 해제, ③인천의 미술 교육기관 분석과 해제, ④인천국제여성비엔날레 역사 및 인천에서 발생한 미술 사건 분석 및 해제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3) 3단계 : 총론(1883~2000년대) 집필

인천은 1883년 개항된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총론에서는 인천의 역사적, 지리적 환경을 분석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인천미술의 특성을 고찰한다. 동시에 1, 2단계에서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항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인천미술의 전개 과정과 흐름을 시기별로 분석하여 인천미술의 맥락을 정리할 것이다. 또한 동시대 인천미술의 현상을 분석하여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1, 2단계 과정에서 누락된 내용을 추가, 보완하여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할 계획이다.

III. ‘인천미술사 조사·연구’의 수행 방법

1. 인천 미술인명사(1880~1980) 수행 방법

1단계 사업으로 미술인명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미술가야말로 미술창작의 주체로, 그 자체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인명사 연구로 파생되는 인천미술 관련 활동, 사건, 교류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미술인명사는 ‘인천미술사 조사·연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전체 용역기간 36개월 중 20개월을 미술인명사에 할애할 정도로 큰 비중을 두고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방법은 연구 대상을 선정한 후, 개별 작가에 대한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작가 개요와 연보 작성, 또는 작가 파일을 구축 순으로 진행한다. 구체적인 연구 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 선정

미술인명사 진행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힘든 작업은 어떤 작가를 인천미술가로 선정하느냐이다. 연구 대상 선정 기준은 인천 출생은 물론, 성장·거주·근무·학교 등 인천에 연고가 있는 작가이다. 따라서 출향(出鄕) 작가는 물론 월북(越北) 작가도 포함된다. 타 지역 출신 작가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 거주, 학교 등 근무지가 인천인 경우는 인천미술사에 미친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연구 대상 선정을 위해서 1880년부터 1980년까지 인천에서 출생했거나 인천을 연고로 활동한 미술가와 미술이론가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①1880년부터 1949년까지 출생한 인천미술가, ②1950년대생 인천미술가, ③1960년부터 1980년까지 출생한 인천미술가로 구분한 1차 작가 목록을 작성한다. 이 목록을 바탕으로 발주기관을 비롯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 대상을 선정한다.

2) 자료조사와 수집

연구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가장 먼저 해당 작가나 유족한테 공문을 발송하여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저작권 허락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동의를 요청한다. 이후 자료조사를 하는데, 작고 작가는 문헌자료를 우선 검토한 후 자료가 부족하면 자료를 소장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생존작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예비 조사를 실시한 후, 작가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이메일이나 전화, 또는 대면 인터뷰를 통해 작가의 전시 도록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다.

3) 작가 개요 및 연보 작성 방법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1880년부터 1959년까지 출생한 인천미술가에 대한 해제문을 작성한다. 해제문은 작가 정보(생애, 학력, 가족관계 등)와 연보(전시, 수상 경력 및 활동 내역), 작품 이미지 1~2점으로 이루어진다. 작가 개요에는 생애와 작품세계 전반, 시기별 작품세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서술한다. 작가 해제문은 미술사 연구물로서 전문적인 성격을 갖게끔 하되 최대한 쉽고 간결한 문체로 작성하며, 해제문 작성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여 연구원 간 상이한 문체, 용어와 인명에 통일을 기한다. 완성된 해제문은 책임연구원의 감수하에 연구원들이 교차 교정·교열하여 내용의 완성도를 높인다. 마지막으로 집필한 원고에 대표 작품 이미지를 삽입하여 책자 발간이 가능하도록 편집한다.

4) 1960~1980년 출생한 작가 정보 및 작품이미지 목록화

1960~1980년 출생한 인천미술가는 해제문 대신 작가의 출생지, 출생연도, 학력,

경력(수상경력 포함) 등 기본 정보와 작품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비평문을 작가별 엑셀 파일에 입력한다. 한 작가당 대표작 30여 점의 작품 이미지를 수집하여 작품 정보와 함께 엑셀 파일에 목록화하되, 작가에게 저작권 허락서를 양도받아 해당 저작물 이용에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한다.

2. 인천 문화사(1883~1999) 수행 방법

인천문화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의 미술문화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미술단체와 경기도 및 전국 단위의 유관기관과의 긴밀하고 유연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자문을 구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광역시 소재 미술대학 및 사립 미술관, 대안공간 등과 다각적인 협조체계 구축하여 인천미술의 다양한 면모를 파악하고자 한다. 인천문화사의 구체적인 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인천 미술문화사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인천 미술문화사 연구를 위해 1단계 사업으로 진행한 ‘인천미술인명사’와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인천의 전시공간, 미술단체, 교육기관, 미술 사건에 대한 내용을 추출한다. 이후 김달진미술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미술전시자료집』 I·II·III·IV를 비롯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간행한 『문예연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1920년~1999년) 등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인천·경기권에서 간행된 신문, 그리고 전시 도록 및 문헌자료를 통해 인천미술에 대한 자료를 조사, 수집할 예정이다.

2) 인천 문화사 관련 기초자료 목록과 해제문 작성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인천에서 개최된 전시회, 전시공간, 미술단체, 미술(교육)기관, 미술 관련 사건 등을 목록화한 후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해제문 작성 방향을 논의한다. 이후 각 항목별로 작성한 목록을 분석하고, 해제문을 작성한다. 해제문 작성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인천에서 개최된 미술전시의 목록화 및 분석

인천에서 개최된 전시회를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구분하여 목록화하고, 연대별로 그 추이를 분석한다. 아울러 구군 단위로 목록화하여 행정구역별로 전시회의 빈도수를 분석하여 특징을 파악한다.

② 인천의 미술 전시공간 목록 및 해제문 작성

인천 소재 전시공간을 시기별, 행정구역별로 목록화하여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인천의 전시공간 중 대표적인 전시공간의 위치와 이미지를 확보하여 해제문을 작성한다. 해제문에는 전시공간명, 위치, 설립 계기, 역할 등을 서술한 후 전시이력과 이미지를 삽입한다.

③ 인천의 미술단체 목록 및 해제문 작성

미술단체는 창립연도순으로 미술단체명, 창립 전시명 등을 목록화하고, 연대별로 목록을 작성하여 미술단체의 변화 양상과 특징을 분석한다. 해제문에는 미술단체의 결성 배경, 회장 및 구성원 명단과 구성원의 변화 과정, 특징을 서술하고 미술단체의 전시 이력과 리플릿이나 도록, 전시 사진 등 이미지를 확보하여 수록한다.

④ 인천 미술(교육)기관 목록화 및 해제문 작성

인천 소재 미술대학, 예술고등학교 등 미술교육 기관과 교육자 명단을 목록화하여 인천미술 교육환경을 분석한다. 인천미술(교육)기관 해제문에는 기관의 설립연도,

위치, 구성원, 특징을 서술하고 연혁과 기관의 건물이나 관련 이미지를 함께 수록한다.

⑤ 인천미술 관련 사건 목록 및 해제문 작성

3) 문화사 관련 해제문의 원고 감수 및 교정, 편집

각 항목별로 작성한 해제문을 취합한 후 교정 및 감수를 실시한다. 해제문이 완료되면 각종 표와 그래프, 시각이미지를 추가하고, 참고문헌을 정리하여 최종 결과물을 산출한다.

3. 총론(1883~2000년대) 집필 방법

1) 선행 단계 연구 결과물 분석 및 집필 방향 설정

1단계에서 진행한 미술인명사 자료와 2단계 미술문화사 자료를 분석·검토하여, 추가 조사할 대상을 선정한다. 분석한 내용과 추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문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인천미술 흐름과 동시대 인천미술의 담론 창출을 위한 연구 방향을 설정한다.

2) 인천미술의 특징과 현황 분석을 통한 담론 창출

대한민국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인천의 역사와 문화의 특수성을 분석해 동시대 인천미술 관련 담론의 핵심 주제를 파악한다.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담론 창출을 위한 주제가 보다 구체화 되겠지만, 현재 예상하는 탐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인천미술의 국제성

인천은 근대 이후 개항과 이민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증거하는 도시이다. 이는 인천미술이 대한민국 국제화 과정의 대표적 사례로서 해석될 가능성이 충분함을 시사한다.

○ 관광 자원과 전시의 결합

구한말 이후 세계와의 소통 출입구로서 중대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천은 현재도 영종도에 인천공항이 위치하는 등 국제화의 첨단기지로 기능하고 있다. 이 같은 특수성으로 인천 미술계는 오늘날 관광 자원과 전시의 결합이라는 문화의 새로운 양상을 창조하고 있다.

○ 한국의 대표적인 미술이론가의 출생, 활동지

인천은 고유섭, 이경성, 성완경, 김인환 등 한국근현대미술사를 주도한 유명 미술평론가, 미술사가들이 출생하거나 활동한 도시로, 한국 미술사에 이들의 활약이 인천이라는 도시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인천미술사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를 마련한다.

○ 민중미술의 선도지

인천은 근대 이래 대한민국의 공업화, 산업화 과정을 선도한 도시다. 그 결과 인천의 노동 현장에서 여러 미술단체가 탄생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는 사회 비판적 참여미술의 사례로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

○ 새로운 장르 예술의 대표적인 생산지

인천은 송도국제도시 건설 등을 통해 최첨단 기술이 일상에서 가장 빠르게 구현되는 미래적 도시 공간을 지향해왔다. 따라서 최첨단 기술과 미술이 융합된 새로운 장르 예술의 대표적 생산지로서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IV. ‘인천미술사 조사·연구’의 기대효과

1) 인천미술사 기초자료 구축

대부분의 자료들이 작가 개인이나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어 일목요연하게 살펴보기 어려운 인천 미술인명사 및 문화사 관련 자료들을 미술사 연구자들이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함으로써 인천미술사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2) 전시기획 및 교육 자료로 활용

이 연구를 통해 인천미술사 기초자료를 구축함은 물론, 인천의 역사와 문화의 특수성을 분석해 동시대 인천미술의 담론을 창출함으로써 향후 인천시립미술관의 전시기획 및 출판, 교육, 세미나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시대 인천미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다양한 연구 주제를 파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인천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수집의 기초자료로 활용

인천을 연고로 활동하는 미술가 중 미술사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작가와 작품을 선별하고, 각 장르별로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을 엄선하여 소장품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작가에 대한 정보 및 작품의 현황 파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수집·정리한 작가 정보 및 작품 목록은 인천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수집 전략을 수립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4) 인천시립미술관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

인천에서 태어났으나 전문적인 미술교육을 받거나 작가 활동을 위해 서울 등 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어 인천 출신인지조차 파악되지 않았던 작가는 물론, 인천을 연고로 활동하는(했던) 미술인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인천미술의 맥락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근현대기 인천문화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천미술 특유의 미학적 특징을 발견함으로써 인천시립미술관의 정체성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인천미술사의 연구 지평 확대

1단계 인천미술인명사, 2단계 문화사, 3단계 총론(인천미술 흐름과 동시대 인천미술에 대한 담론, 연표 등)으로 진행되는 사업 결과물을 총서로 발간함으로써 인천미술 연구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새로운 의제 발굴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인천미술사를 보다 심화,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6) 한국미술사 속에 인천미술의 위상 정립

‘인천미술사 조사·연구’의 성과물을 전국의 국공립미술관 및 유관 기관들과 전시 및 연구를 위한 교류에 이 자료들을 활용함으로써 인천미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국미술사 속에 인천미술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풍부한 자원을 만드는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인천미술사 조사·연구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

조경재

프로젝트 스페이스 코스모스 대표

이 연구는 인천 미술가와 미술단체, 교육기관 등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인천미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24년부터 36개월간 3단계로 진행되며, 인천미술사 연구와 시립미술관 개관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연구는 인천시립미술관 개관뿐만 아니라 한국미술사 연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연구가 타 지역 미술사 연구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다른 지역의 미술사 연구에 미칠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미술사 연구 3단계의 목표와 세부 진행 계획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미술인명사, 문화사, 총론 집필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자료 수집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히 기록에는 없는 과거에 있었던 문화공간이 현재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에서는 찾을 수 없는 자료 수집은 어떠한 방식으로 수집되는지 방법론이 궁금합니다.

수도권 내 미술가 활동과 인천미술사 간의 관계에 관한 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를 지역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로 인해 인천 출신 작가들이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시대별로 구별하여 서울과 인천과의 관계성에 관한 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는 사회적 요소에 따라 활동 범위가 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대로 보면 인천아트플랫폼의 전후, 또는 인천문화재단의 기금사업 전후에 따라 예술가의 활동 변화가 이루어지듯이 시대별로 인천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 개인의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제도)도 같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과정에서 기초연구 없이 콘텐츠 개발이 먼저 진행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기초연구가 생략된 상태에서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진 원인은 무엇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글로벌시대 지역미술관의 건립·개관 사례와 변화 양상

- 정체성 구축을 위한 전략 -

기혜경
홍익대학교 교수

미술관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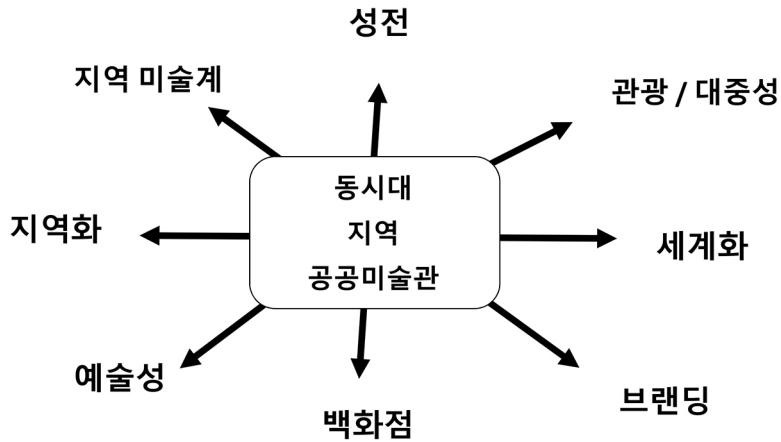
- 뮤지엄의 정체성은 그 소장품에서 출발
- 소장품 및 소장자료는 미술관의 존재기반이며, 정체성을 드러내는 바로미터
- 뮤지엄의 중요 전문직 : 큐레이터(curator)의 어원 : 보살핀다, 관리한다는 'cura-'에서 유래
- 뮤지엄의 역사적 추이
 - 18세기 : 소수의 특권층에게 한정
 - 19세기 : 국민을 위한 공간
 - 20세기 : 미술품을 통한 교육, 국가이데올로기의 구현 등
- 미술관의 역사: 소장품의 수집, 보관 및 관리업무에서 공중과 공유하는 전시업무로, 20세기 후반 들어서는 교육업무로, 1990년대 후반에 이르면 해석으로, 그리고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는 미술관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 공유와 담론창출로 그 영역을 넓혀옴

미술관의 정의?

- 2022년 프라하 세계 박물관대회 (ICOM)에서 채택된 Museum 정의
- 미술관/박물관은 유무형 유산을 연구, 수집, 보존, 해석, 전시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비영리, 영구기관이다. 미술관/박물관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어 이용하기 쉽고 포용적이어서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촉진한다. 미술관/박물관은 공동체의 참여로 윤리적,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소통하며, 교육, 향유, 성찰, 지식, 공유를 위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 "A museum is a not-for-profit, permanent institution in the service of society that researches, collects, conserves, interprets and exhibits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Open to the public, accessible and inclusive, museums foster diversity and sustainability. They operate and communicate ethically, professionally and with the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offering varied experiences for education, enjoyment, reflection and knowledge sharing."

미술관의 정의? 문화를 아카이빙하는 것은 그 문화를 재생산하는 것에 동참함을 의미한다. (Terry Smi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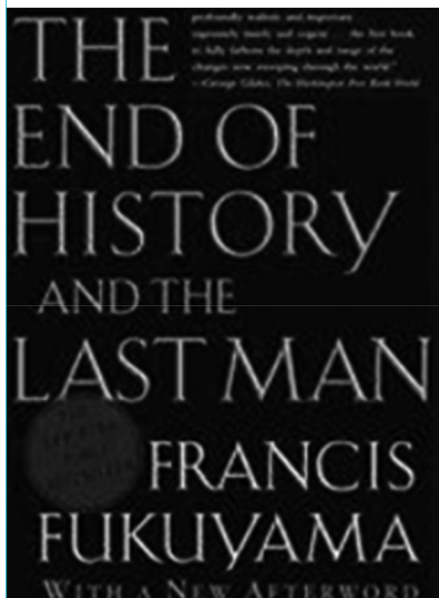
- 미술관은 단순히 과거의 개념이었던 소장품의 보존/관리, 전시, 교육, 정보공유, 담론창출이라는 미술관의 고유 활동에만 머물지 않고, 그것이 위치한 지정학적, 역사적,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축을 매개함은 물론 미래의 문화를 재생산하는 역할
- 미술관은 미술관이 위치한 해당 지역의 문화 보존과 재창출에 중요한 역할
- 미술관은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 환경은 물론 해당 사회가 지향하는 미래비전을 담아내는 것
- 인천시립미술관 전략의 전제 :
 - ✓ 인천의 역사와, 문화,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인천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
 - ✓ 신자유주의시대 지역기반의 공공미술관으로서 글로벌 미술계의 변화 및 국내 미술 생태계의 변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역 미술관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



동시대로의 진입

- 베를린 장벽 붕괴 (1989)와 구 소련연방 해체 (1991)
- 이데올로기 시대의 양대 축이었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재편되어, 글로벌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체제로
- 냉전의 종식, 역사적 코뮤니즘의 종말, 독립적 좌파정치의 와해,
-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결정적 승리
- > 프랜시스 후쿠야마 : 역사의 종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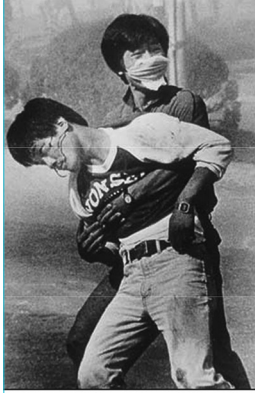
동시대로의 진입

- 프란시스 후쿠야마 : 역사의 종언
 - 2차세계 대전이후 냉전체제 속에서 이데올로기의 대치시대
 - 공산주의가 패배하고 자유주의가 승리함으로써 냉전 종식
 - 미국 등 서방 자유민주 진영의 주도로 시장경제가 세계에 퍼질 것이라는 낙관론.
- www 창시 (1989)
 - by Tim Berners-Lee
 - 웹의 창안과 첨단기술의 발달은 곧 인터넷, 휴대전화, 각종 SNS를 통해 온라인 네트워크와 정보시스템 강화
 - 글로벌 자본주의와 직접 민주주의의 확산, 새로운 인간관계, 교환체계가 가능

동시대로의 진입

- 천안문 사건 (1989)
 - 2차대전 이후 2, 3세계 국가의 독재체제에 대한 항거
 - 권위주의에 맞서는 민중의 항거가 1980년대를 거치며 세계 민중들로 하여금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각성을 유도 -> 평등의 가치에 대한 신념 확산





- 박종철 고문치사 (1987년 1월)
- 1987년 6월 항쟁 (6월 9일 이한열)
- 1987년 6. 29. 민주화 선언 (대통령 직선제, 평화적인 정권교체)
- 이한열 장례식 (1987. 7. 9.)



3당 합당(1990년)과 우루과이 라운드 (1993년 타결, 1995년 발효)



3저 호황 (1986~1988) :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 칼라 tv
- 마이카
- 컴퓨터



소비의 거리 압구정동 부상 : 통유리 카페
신세대의 등장 : 오렌지족
대중문화의 파급력 : 서태지와 아이들 (문화대통령)
글로벌 기업 프랜차이즈 매장 등장





• 미술생태계의 구성 요소

- 작가: 작품
- 공간: 신생공간 / 대안공간 / 미술관, 비엔날레
- 큐레이터: 기관 큐레이터 / 독립 큐레이터
- 시장: 화랑 / 옥션 / 콜렉터
- 비평: 평론가 / 기자
- 기타: 레지던시 / 수상제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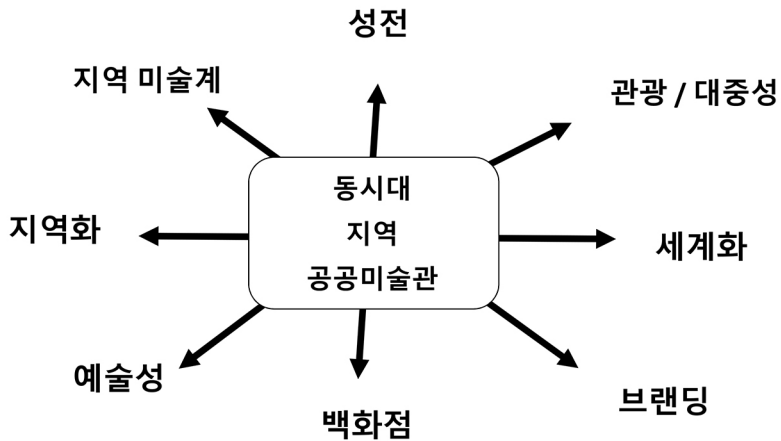
* 21세기는 마켓이 주도 : 콜렉터의 시대

미술관의 정체성 수립

-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문화의 자긍심을 높이며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지역기반 공공미술관설립
- 공립미술관 설립 1차 러시 : 광주시립(1992), 서울시립(1995), 부산시립(1998), 대전시립(1998)을 필두로, 박수근미술관(2003), 이중섭미술관(2003), 수원시립(2004), 경남도립(2004), 마산시립문신미술관(2004), 전북도립(2006), 경기도미술관(2006), 대구미술관(2011)
- 부산현대미술관(2018), 전남도립(2021), 울산시립(2022), 강릉 서울미술관(2024)
- 준비중인 미술관 : 김해 김영원 조각미술관, 경북도립미술관, 인천시립미술관, 여주시립미술관 (26년 개관예정), 양산시립미술관, 춘천시립미술관 등등 (2차 러시)
- 1차 러시는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 2차 러시는 미술이 도시 브랜드 가치제고, 도시 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대표적인 예 : 빌바오 효과)



- 빌바오 구겐하임 전경
- 1997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개관, 인구 40만의 도시 빌바오에 2007년 기준 연간 100만명 이상의 방문객 및 도시 경제에 가져온 파생효과는 2조 1000억원의 경제효과



미술관의 정체성 수립

- 미술관은 지역 미술계를 아우르고, 지역민의 예술적 감수성 고양 뿐 아니라 도시의 중요한 관광자원이자, 문화 브랜딩의 플랫폼으로 작동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해당 미술관의 브랜딩 가치가 무엇인지? 정체성을 무엇으로 구축하는가?
- 지역미술사 연구 기반 미비로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낼 만한 주제어 및 키워드를 찾는 것 쉽지 않은 당면 현실 (디아스포라, 이주, 등의 키워드 : 대표 작가는?)
- 미술관에 대한 각 주체들의 다양한 요구 + 지역 미술관이 처한 열악한 여건 + 지역 미술사 연구의 비활성화 = 지역의 공공미술관들이 해당 지역 미술사를 기술해 내는 일을 뒤처지게 하고 있는 것 (90년대 설립된 광주, 서울, 부산, 대전도 다르지 않음)
- 이러한 이유로 지역미술관의 정체성 형성은 쉽지 않은 상황

미술관의 역할

- 토니 베넷 (Tony Bennet): 전시 복합체로서(The Exhibitionary Complex)의 미술관
- 디오라마나 파노라마, 엑스포 및 박람회 등과 같은 대중 스펙타클과의 관계 속에서 뮤지엄의 탄생을 살피며, 근대이후 전시복합체로서의 미술관/박물관은 공공 디스플레이를 위해 물건이나 육체를 지휘하고 배열할 수 있는 힘에 대한 실물 교육을 행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권력관계를 인지하게하고, 더 나아가 배움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주체가 되게 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구동에 힘을 더해 왔다고 주장
- ✓ 국가라는 공동체를 규합하기 위해 국가권력과 보조를 맞추는 독보적인 문화기관
- ✓ 국가 내에서 동질한 그룹의 집단적 소속감을 부각, 공통의 문화를 가진 국민국가를 강조하는 기제
- ✓ 타 국가와는 변별되는 고유의 문화 역사를 강조하며, 과거부터 연속적으로 이어진 집합체로서의 국가를 시각적으로 가시화하는 기제
- ✓ 박물관/미술관의 역사는 바로 국가 정체성 확립의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 -> 지방자치로



세계화와 지역화의 사이에서

- 신자유주의 시대 글로벌 기업들의 적극적 행보 : 세계를 하나로 묶어내며 전통적인 국민국가체제 보다는 비즈니스 중심의 지역단위 및 도시의 역할이 증시
- 세계화를 전면에 장착한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의 보편적 세계가 지역이 갖는 지역적 특수성으로서의 '로컬리티 (Locality)'를 압도하고 지배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 미술관의 역할 변화
- 글로벌 시대의 흐려지는 경계의 문제,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가의 문제 대두
- 미술관/박물관을 통해 정체성을 구현하던 집단이 국가에서 이제는 좀더 적은 단위의 도시를 기반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세계와 공생의 길을 모색하며 지역성을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글로벌 시대의 로컬의 전략 즉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미술관의 문화논리로 제시
- 동시대 미술관은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두 개의 축이 상호 긴장 관계를 이루며 상보적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 속에서 글로벌시대에 로컬의 문화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

백화점과 성전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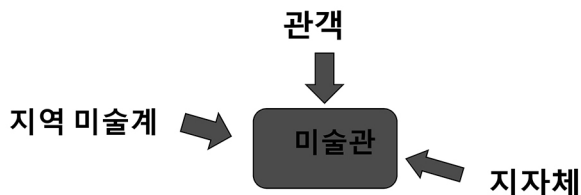
- 매체와 기술의 발달, 사회의 다변화
- 동시대 사회 속에서 미술관은 수많은 문화의 장 가운데 하나
- 매스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확산이후 미술관/박물관의 경쟁상대는 더 이상 동종의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아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영화, 오락, 게임, 테마파크 등
- 미술관은 기존의 소장, 전시, 교육, 정보 및 해석이 중시되던 공간에서 소장, 전시, 이벤트, 오락, 놀이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변한
- 과거 미술관이 그 소장품의 진열방식을 국제 엑스포 등에서 찾았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미술관은 상품 광고와 미디어를 통해 넘쳐나는 스펙터클의 가시화로부터 그 관객확보를 위한 전략을 습득하여 활용
- 동시대 미술계에서 건축, 조각, 영상, 미디어, 설치, 테크놀로지가 스펙타클의 전략으로 주로 활용

도시 브랜딩과 지역미술계

- ‘빌바오 효과나 나오시마 효과’는 아니더라도 관광에 도움, 혹은 도시 브랜딩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지자체 단위의 바람 (일반 대중이 보고 싶어하는 것 vs. 보여주어야 하는 것 : 빌바오의 경우, 세계적 유명 미술 + 스펙터클 vs. 빌바오 지역미술계) : 인천 지역미술계와 상생의 방안 마련 절실
- 미술관/박물관은 지자체와 해당 지역에 긍정적인 브랜딩 고양 효과를 가져오며, 그것이 외지인의 방문 증대로, 그리고 그러한 방문객 수가 임계치를 넘기게 되면 빌바오나 나오시마 효과로 가시화
- 그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개관과 더불어 처음 3년
- 개관과 더불어 이목이 집중되는 시기이며, 동시에 앞서 살펴본 미술관을 향한 모든 기대가 일시에 투영 되기 때문
- 어떻게 자리매김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고, 다양한 유사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시물레이션 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대중성과 순수성 (관광 vs. 예술성)

- 미술관의 건립과 운영을 통해 또 다른 ‘빌바오 효과나 나오시마 효과’에 미치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관광객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길 바라거나 적어도 해당 지역의 도시 브랜딩에 도움이 되길 원하는 지자체, 지역공동체 단위의 기대
- 미술관을 통해 보고 싶은 작품을 보며 문화향유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해당 관객의 염원
- 해당 지역을 근거로 활동하는 작가분들의 지역미술관에 대한 기대



관객의 염원

- 관객의 염원: 명품 컬렉션 (이건희 컬렉션컬렉션)과 해외 유명 작가전
- 이건희 컬렉션: 지방순회전시 개최되는 곳 마다 관객이 5배 이상 증가, 전국 투어족 등장
 - (1) 우리나라 미술사를 대표하는 작품 대거 포함
 - (2) 지역 미술관의 항시적 민원 : 이종섭, 박수근, 김환기, 유영국 등 근대기 대가들의 명품 전시 유치
- 해외 유명 작가의 전시나 유명 컬렉션 : 서울시립미술관이 주최한 《데이비드 호크니》전 및 《에드워드 호퍼: 길 위에서》
- 동시대 미술계의 평면, 입체, 영상, 설치, 퍼포먼스 등과 같은 다양한 미술의 스펙트럼과 비교할 때, 아직은 관객은 여전히 평면, 회화, 그리고 마스터피스에 집중
- 미술관은 이러한 간극을 좁혀나가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미술관은 어렵다는 선입관을 불식시켜야 함.



미술계와의 협업

- 작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술관은 정지된 공간으로 변화될 것이기에 동시대 미술관의 존립 근거에 작가의 존재는 필수불가결
- 미술관이 소장품과 전시라는 시스템 속에 작가들과 전체 미술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균형 맞추는 가
- 소장품에 한정하여 살필 때, 미술관이 지역성을 유지하면서 보편성을 획득하였는가의 문제는 해당 미술관의 소장품을 가지고 한국미술사, 혹은 전체 미술사의 문맥 속에서 지역미술사를 기술하며, 해당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지
- 보편성과 특수성, 초지역성과 지역성의 관계 속에서 미술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가능한 비율로 소장품과 전시, 프로그램 구성

동시대 지역미술관의 역할

- ✓ 글로벌한 세계 속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구현
- ✓ 해당 지역 브랜딩과 마케팅에 일조
- ✓ 세계와 교류
- ✓ 관객의 니즈에 맞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부터 잠재 관객을 미술관으로 유도
- ✓ 지역 기반의 작가들의 활동 플랫폼
- ✓ 독자적이면서도 고유한 콘텐츠 담보
- ✓ 고유한 콘텐츠와 특수성을 가꾸고 전파하는 동시에 세계적 보편성 속에 그것을 위치시켜야
- ✓ 세계화 시대의 지역 미술관으로서 '특수성과 보편성/지역성과 초지역성 사이'에서 균형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_ 전략 구축

• 인천의 특징 및 미술

- 고유섭, 이경성, 김인환, 성완경 등 걸출한 이론가들의 도시
- 개항장이자 항구도시, 38선 인접지역 : 교류, 이주, 이산의 지역
- 공단지역으로 노동미술 우세
- 국제 인천 여성 비엔날레 개최
- 비교적 미술대학이 늦게 설립 (수도권 인접 등으로 80년대 이후 미술대학, 지역작가라는 경계 모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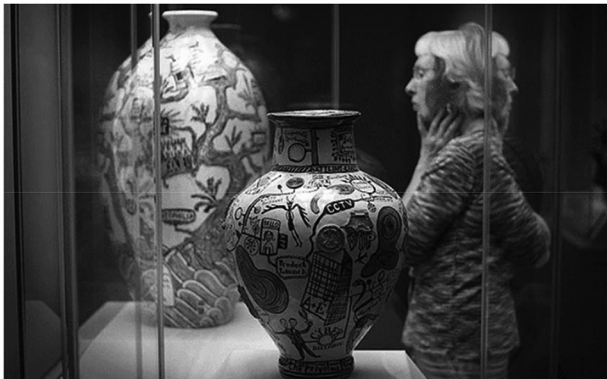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_ 전략 구축

• 인천시립미술관의 지정학적 위치 :

- 수도권 권역내의 미술관 (서울 소재의 대형 미술관의 권역과 겹침)
 - 인천시의 독자적 미술사 발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 부산 (형상), 대구 (실험), 광주 (한국화), 공주 (야투), 창원 (조각) 등
 - 국내 그 어디에도 없는 한지붕 아래 박물관 + 미술관
 - : Museum의 탄생 및 전파 과정 속에서 일본과 한국 만이 미술관과 박물관을 구분
 - : 하나의 권역을 아우르는 미술관, 박물관이 연대, 협업 체계를 갖춘다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인천만의 독자적인 뮤지엄 컴플렉스가 가능
- (1) 인천의 역사를 살필 수 있는 소장품 전시를 미술관과 박물관이 협력하여 기획
 - (2) 인천의 특성을 살필 수 있는 키워드를 통해 전통에서 현대까지를 조망할 수 있는 전시
 - (3) 작가로 하여금 박물관에 스며들기, 박물관의 유물이 미술관으로 넘어오기 등



-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시대실 (Afrofuturist period Room), 2021
- 19세기 세리믹과 Jean_Louis 가 커미션 작업한 가운
- 아프로 퓨처리즘을 근간으로 전세대의 디아스포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두고 세네갈 이주민들의 사라진 마을을 통해 미래의 해방을 탐색 (과거와 미래, 마술적 사실주의, 사변소설, 공상과학적 요소) 를 통해 대안성 모색



- 그레이슨 페리, 무명 공예가의 무덤 (The Tomb of the Unknown Craftsman, British Museum, 2011)
- The Rosetta Vase (yellow) & The Frivolous Now, both 2011



- Grayson Perry, our mother, 2009, rusted cast iron
- 전시의 주제 중 하나인 Pilgrimage를 풀기 위한 작품



- Metropolitan Museum : 과거와 현대 미술의 대화를 주제로 한 전시 새로 확장한 Met Breuer에서 자주 개최
: Unfinished: Thoughts Left Visible (2016) :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작업을 막라하며 미완성의 작업을 전시하며 '완성'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재고하게 함 (티치아노 & 싸이 톰블리)





- 로마 카피톨리니 뮤지엄, Jenny Saville : A Revolutionary Artist (2021)

미술관의 정체성 구축

- 첫 개관 후 3년, 그중 특히 첫 개관 후 1년차 (책임자 선임의 절실함 : 건축 디테일, 지역 미술사 연구, 아카이브, 개관 준비, 정체성 빌디업 등)
- 설정된 미술관의 키워드를 위한 전략 수립
- ✓ 목표와 방법으로 나누어 설정
- ✓ 어떻게 정체성을 빌드업 할 것인지 소장품, 전시, 기타 프로그램의 체계화 및 연동성
- 결정된 사항은 소장품, 전시, 교육, 홍보 등과 같은 미술관의 모든 활동과 연동
-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미술관의 정체성 구현을 위해 중장기적 + 지속적인 조사, 연구, 소장, 전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된 방향성과 그것을 향한 항구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2028년 개관을 위해 건축, 콘텐츠, 소장품 등을 총괄할 책임있는 관계자 선임이 급선무

‘글로벌시대 지역미술관의 건립·개관 사례와 변화 양상’에 대한 토론문

차기울

인천대학교 조형예술학부 교수

기혜경 선생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저의 의견을 첨부하여 기술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발제하신 미술관 관련 일반적 내용과 지역 관련 내용에 대해 공감합니다. 저는 인천시립미술관의 정체성 구축과 미술관 개관 전 사전 준비에 대해 의견을 첨부하여 기술하고 몇 개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미술관은 수집, 전시, 교육, 보존의 일반적인 형식을 넘어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이트 큐브와 오픈 에어를 넘나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세계사적 관점에서 글로벌 문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국가적으로도 지역과 중심이 해체되는 상황 속에서 로컬의 가치와 글로벌의 보편화된 가치가 충돌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인천이 어떤 방향성을 지닌 미술관을 운영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천은 근대라는 새로운 장을 연 개항의 현장이며, ‘신문물’이 신기하고 편리함으로 동시에 폭력적이고 혼란스럽게 유입된 장소입니다. 또한, 근대의 복고적 기억을 극복하고 오늘날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장소입니다.

미술관의 소장품은 그 미술관의 정체성과 철학을 보여줍니다. 미술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문제는 지역 역사를 기반으로 한 소장품 수집 방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지역성에 대한 이해, 형평성과 객관성 확보, 구입과 기증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축을 매개로 공동체가 지향하는 미래 비전과 글로벌 미술계 및 국내 미술 생태계의 변화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인천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 속에서 시립미술관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저는 인천의 사회, 문화, 환경적 특수성을 강조할 수 있는 ‘평화 도시’와 ‘생태 도시’라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남북 분단 현실과 대치의 현장에 가까운 지리적 특성은 인천이 평화 도시 개념을 실현할 유력한 후보임을 보여줍니다. 평화 도시를 상위 개념으로 설정하면, 이데올로기 전쟁과 산업화가 남긴 상흔을 체화한 집단으로서 인천의 디아스포라를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은 세계 4대 갯벌을 보유한 대도시로서 생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경기만에서 백령도에 이르는 갯벌과 염습지는 인천을 생태 도시로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평화, 통일, 환경, 생태의 개념은 인천이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화두이자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따라서 위 두 개념은 인천이 고유한 가치를 고민하며 이를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담론으로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심 있게 살펴본 부분이 시립미술관 개관에 앞선 사전 운영팀의 구성 문제입니다. 하드웨어로서의 미술관 건립도 중요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미래 가치에 부합하는 형식을 만드는 일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2027년 혹은 2028년 개관을 위해 건축, 콘텐츠, 소장품들을 총괄하는 책임

있는 관계자 선임이 급선무이고 합의된 방향성과 이를 향한 항구적 지원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를 위해 비전과 미션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어야 하고 주요 목표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개관 준비를 위한 팀장(감독) 뿐 아니라 전시기획,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마케팅 및 PR, 운영 및 관리 등 전문 분야별 인력의 모집과 선발이 우선되어야 하고 팀원은 책임과 역할이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미술관 개관 전 준비해야 할 주요 일정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타임 라인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고 연구하는 기반 조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발제 관련 질문들입니다.

〈질문1〉

인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시립미술관 설립이 매우 늦었습니다. 따라서 지역 미술계의 다양한 요구가 한꺼번에 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기 다른 욕망의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한 상황에서 이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부산시립미술관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지역 상황을 많이 겪으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균형 있게 안배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인천시립미술관이 인천의 정체성을 담아야 한다는 당위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인천의 정체성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선생님의 발표에서 인천의 역사, 문화,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과 같이, 인천 근현대미술의 현황을 보여주는 미술관, 현대미술의 다채로운 양상을 보여주는 미술관, 이주와 정착의 현장으로서 디아스포라라는 또 하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미술관, 그리고 인천에 거주하는 수많은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미술관 등의 위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현재 건립 추진 중인 뮤지엄파크 내의 미술관을 거점으로 삼고, 인천 곳곳에 시립미술관의 분관 체제를 구축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원도심 내 인천우체국에는 인천 근대미술의 발자취를 보여주고, 작고 및 원로작가의 궤적에 의미를 더해주는 근대미술 전용관을, 다문화 현상이 뚜렷한 부평에는 에스컴 부지 (캠프 마켓)에 디아스포라 속성을 축으로 하는 현대미술 전용관을, 그리고 서구나 계양구에는 어린이 미술관 혹은 미술교육을 주된 미션으로 하는 미술관을 분관 형태로 설립·운영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질문3〉

인천에 단 하나의 미술관만 운영해야 한다면, 지역성과 글로벌화된 보편성 중 어느 부분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역성에 방점을 찍는다면 전시뿐 아니라 그 전에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인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질문4〉

선생님은 오늘날의 미술관이 ‘상품 광고와 미디어를 통해 넘쳐나는 가시화로부터 관객 확보를 위한 전략을 습득하여 활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하여 미술관 건축은 어떤 요소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미술담론

조경재

프로젝트 스페이스 코스모스 대표

이 글은 미술관의 내용과 구조,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천의 지역성’이 미술관의 내용에 가깝다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는 ‘인천시립미술관의 기능(구조)’은 제가 이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I. 인천의 지역성과 미술관

먼저, 인천시립미술관의 설립은 인천이라는 도시가 지닌 독특한 지역성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으며, 이 관계는 인천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미술적 담론 형성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인천은 한국에서 중요한 해양 도시이자 국제 교류의 중심지로, 역사적으로나 현재적으로도 문화와 상업의 융합이 두드러진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인천시립미술관의 기획과 운영에 반영한다면, 미술관은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 인천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성과 미술이 상호작용하는 독창적인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1. 지역성과 미술관의 정체성

인천은 1883년 개항 이래로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개항 도시로서, 다문화적 요소가 도시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차이나타운, 개항장 건축물, 항구 도시로서의 정체성은 인천의 역사적 자산뿐만 아니라 특정한 시각적 미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인천시립미술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배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천이 서해안에 있는 해양 도시라는 점은 미술관의 공간적, 시각적 콘셉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해안의 자연경관과 조화된 전시연출 디자인이나 해양 환경을 주제로 한 전시기획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술관은 인천의 해양성과 자연적 요소를 시각 예술로 풀어내는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특성을 인천시립미술관에 직접 드러내는 것이 좋은 방향성인가는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강한 정체성은 분절된 한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개항과 해양의 시각적 정체성은 확장될 수 있는 현대미술관을 축소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정체성이 아니라 개념적인 관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은 방향성일 수도 있습니다.

2. 지역 주민과의 소통

인천시립미술관은 단순히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은 서울에 인접한 대도시임에도, 그 자체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해 왔습니다. 미술관은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요구를 반영하고,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나 지역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만의 문화적 특성을 발전시키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미술관은 지역 예술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지역 예술가 발굴뿐만 아니라 외부 예술가의 유입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인천아트플랫폼이 대표적인 좋은 예입니다. 인천아트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외부 예술가들이 인천에 거주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었고 그 계기로 예술가 다수는 인천을 주 활동 지역으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가 유입은 지역 예술에 좋은 활력소 역할을 하게 만들고 다양성을 확장시켜 줍니다. 인천시립미술관은 지역 예술가와 더불어 다양한 외부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술의 장으로 기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글로벌 미술과 지역적 특성의 융합

인천은 개항 도시로서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한 지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도시로서, 인천시립미술관은 국제적 예술 흐름을 도입하는 동시에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독특한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적 현대미술과 인천의 지역적 특성이 결합한 전시나 프로그램은 미술관을 글로벌 아트 허브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지역성과의 연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은 역사적으로 다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은 도시입니다. 차이나타운, 개항장 일대의 서양식 건축물, 일본의 영향 등은 인천의 도시 풍경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미술관은 이러한 다문화적 요소를 주제로 한 전시를 기획함으로써, 인천이 지닌 다문화적 정체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교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4. 도시 재생과 미술관의 역할

도시 재생과 문화적 허브의 역할: 인천의 오래된 개항장 지역이나 산업 지역은 재생해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인천시립미술관은 이러한 공간 재생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미술관은 지역의 과거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예술 작품을 통해, 도시의 기억과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의 산업 유산을 주제로 한 전시나, 지역 건축물과 공공 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재생과 예술이 결합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5. 공공 미술과의 연계

공공 미술과 도시 공간의 연계: 인천시립미술관은 미술관 내부의 전시뿐만 아니라, 도시 전역에 걸쳐 공공 미술 프로젝트를 확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천의 역사적 지역, 항구, 자연경관 등을 배경으로 한 공공 미술 프로젝트는 미술관이 도시 전체와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 미술 작업은 도시 공간을 예술적으로 재해석하고, 시민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립미술관은 인천의 독특한 지역성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 국제적 예술 교류, 도시 재생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인천의 역사적, 지리적 특성과 미술관의 정체성을 결합함으로써, 인천시립미술관은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예술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II. 인천시립미술관의 기능과 구조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인천이 가진 특징을 기반으로 담론화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미술관이 더 유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구조적, 기능적 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술관의 역할, 구조적 문제, 그리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술관의 역할

미술관의 첫 번째 목적은 ‘좋은 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전시’는 단지 유명한 작가의 작품으로만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마치 영화가 좋은 배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전시는 기획, 연출, 기술, 행정 등 여러 요소가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영화에서 배우뿐만 아니라 시나리오, 촬영기술, 편집 등이 중요한 것처럼, 전시 역시 작품 외에도 전시기획의 총체적인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한국 미술관은 유명한 작가의 작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작가의 명성이 전시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영화에서 유명 배우만이 작품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과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작품과 전시는 별개의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히 유명 작가의 작품만으로 전시의 질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배우로도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듯이, 미술 전시에서도 덜 알려진 작가들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질 높은 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전시 기획자의 창의성과 능력에 달려 있으며, 다양한 작가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작품을 새롭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소개할 수 있는 전시기획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좋은 전시란 단순히 유명한 작품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는 기획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전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 미술관 뼈대의 부재

한국 미술관은 관념에 많이 집중합니다. 이 글 앞부분에서 언급한 내용은 미술관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은 뼈대입니다.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기획 전반을 커버할 수 있는 미술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미술관은 현대미술 시스템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에 있는 대부분(모든) 뮤지엄과 쿤스트페어아인은 자체적인 기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뮤지엄 뿐만 아니라 극장도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시스템입니다. 영화(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화(전시)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인 겁니다. 하지만 한국 미술관과 극장들은 자체적인 시스템이 없어서 무언가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외부업체를 고용합니다. 여기서 생겨나는 문제점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까다로운 행정적 처리, 두 번째 엄청난 폐기물 생산, 세 번째 전시의 퀄리티입니다.

업체를 고용해서 한다는 건 과도한 행정적 절차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작가로 미술관에서 전시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행정적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전시할 때 유연한 판단을 못 하게 합니다. 전시는 생물과 같아서 첫 계획으로만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전시를 진행하다

보면 첫 기획과는 다른 빠른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기획한 이미지랑 실제 공간 설치 모습이 너무 다를 경우 또는 설계의 오차에서 생기는 배치의 문제점 등등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항상 해왔던 방식, 또는 똑같은 구조로 전시를 반복적으로 재생산됩니다. 리스크가 큰 연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유동적으로 생기는 문제점을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시가 끝나면 바로 연출된 가벽과 바닥재는 대부분 폐기됩니다. 독일도 행정적 절차는 한국보다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행정적 서포트가 안되면 그것을 유연하고 대처하는 방식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체적인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만들 수 있는 기능은 유동적 가변성과 저탄소 미술관을 만들어냅니다. 즉 미술관의 하드웨어 요소의 필요성입니다. 이러한 하드웨어 요소가 갖추어 있으면 전시를 통해 만들어지는 폐기물의 양을 획기적으로 축소 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다고 합니다. 미술관 정신을 논하기 이전에 몸에 관해 얘기돼야 합니다. 이는 관념과 이념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몸의 유연성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인천 시립미술관이 멋진 캐비닛 미술관이기보다는 걸은 화려하지 않지만 스스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미술관으로 운용돼야 합니다. 구조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걸 미래형 미술관이 모습이 아니라 미술관이 가져야 하는 기본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전시의 퀄리티를 향상합니다. 매번 작품만 바뀌는 같은 형식의 전시에서 벗어나 연출이 가능한 구조적 시스템은 전시를 다양한 공간적 해석을 만들어냅니다. 매번 다양한 공간적 연출은 보는 이에게 더 강한 재미를 선사합니다. 이러한 재미는 관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어려운 비평으로 작품과 작가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변화를 인식시켜줄 수 있는 전시의 연출력은 관객이 자연스럽게 미술관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한 예시로 한국 애니메이션이 기술과 시나리오가 부족해서 성공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술과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방식, 즉 편집력이 가장 약했던 것입니다. 전시 또한 공간적 해석으로 만들어내는 시각적 편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미술관의 기능성 필수조건

첫 번째는 공간 분할, 두 번째는 모듈 제작, 세 번째는 구성원 즉 사람입니다.

공간 분할은 건축 설계 단계에서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시공간 제작, 창고, 작품 적재 등 실질적으로 한국 미술관에서는 삭제된 공간이 몇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공간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이 공간에 어떤 모듈을 사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모듈이 건축 설계와 동시적으로 계획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저장공간(창고)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고 폐기물이 최소한으로 나오는 방식의 모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듈을 기반으로 공간이 분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간과 모듈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걸 다루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전시를 만들 수 있는 팀이 미술관 내에 필요한 겁니다. 현재 미술관과 극장을 보면 이러한 인력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시를 만드는 인력이 아니라 관리자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유지, 보수의 관점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4. 기능성을 갖춘 미술관의 변화

이러한 하드웨어적 구조적 시스템이 존재하게 되면 소프트웨어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운영의 순발력이 생겨납니다. 행정적 처리가 없어지면서 바로 해결이 가능하

능력을 탑재하면 기획의 방향도 적극성을 만들어냅니다. 기획의 선도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장르의 확장성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장르의 확장성은 관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실행될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장르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미술관과 극장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미술관에서도 극장 형태의 퍼포먼스 공연이 많아질 것이고 이러한 장르의 확장성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이 갖추고 있을 때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미술관의 기본 구조와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전시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통해 환경적, 창의적 측면에서 발전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술관의 필수조건이며, 특히 인천 시립미술관이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전시 기획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미술담론’에 대한 토론문

정지은

성북문화재단 문화도시추진단장

미술관의 내용과 구조에 초점을 맞춘 조경재 대표님의 발제문을 잘 읽었습니다. 대표님은 미술관의 내용을 인천의 지역성으로,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는 미술관의 기능을 구조로 제안하셨습니다. 대표님의 발제문을 읽고 서울시립미술관과 부산시립미술관, 시카고미술관의 비전을 찾아봤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사용자, 매개자, 생산자가 함께 공동의 기억’을 만들고, ‘서울형 네트워크 미술관’을 지향합니다. 부산시립미술관은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를 아우르는 문화예술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부산이 해양수도이자 국제 관광도시로 자리잡는데 기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카고미술관은 ‘모든 예술은 특정한 맥락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재에 맞는 역동적인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보며, 미술관이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인간 창의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영감을 주는 모임의 장소’로 기능해야 한다고 합니다.

언급한 3개 미술관의 비전을 참고하면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5가지의 특성 중에서 인천시립미술관이 가장 중요하게 가져가야 할 정체성과 방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천의 지역성을 미술관에 직접 드러내는 것이 좋은 방향성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개항과 해양 관련 정체성은 인천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아니며, 부산이나 군산처럼 인천의 정체성과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는 도시들과 차별화된 지점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대표님이 구도심에서 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지역 미술 담론의 현황과 민간 공간과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인천 미술 담론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시간과 과정 없이는, 이후 시립미술관이 만들어갈 ‘좋은 전시’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도권을 광역으로 사고해 서울, 경기, 인천의 교류와 협력을 높이고, 수도권 전체 미술관의 현황에 비추어 인천시립미술관의 역할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역의 고유성에 따른 역할과 수도권 전체를 바라보는 이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AI시대의 미술관 전략과 기술 접근성

김노암

휴아트&미디어랩 대표

올해 노벨문학상은 우리나라의 한강이 받았다. 매우 축하할 일이다. 그녀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이유는 인류가 이루어온 정신과 윤리, 예술과 미학이 조화롭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발전해 온 가치 기준에 부합하는 창작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는 문학이 아니어도 우리 현대미술 문화에도 적용되는 보편적 가치이기도 하다. 거시적으로나 미시적으로 오늘날 미술관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한편 우리의 관심을 모은 노벨상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분야는 과학 분야이다. 노벨물리학상이다. 올해 노벨물리학상은 머신러닝과 인공지능경망 기술을 개발한 존 홉필드(John Hopfield·91)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와 제프리 힌튼(Geoffrey Hinton·77)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가 받았다. 힌튼 교수는 컴퓨터 과학자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개발한 딥 러닝과 인공지능경망 기술이 물리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노벨 화학상은 단백질 구조 예측 AI를 만든 구글 딥마인드 연구진과 세상에 없던 새로운 단백질을 만드는 AI를 개발한 데이비드 베이커(David Baker·62) 워싱턴대 교수가 받았다. 기존에 1년 이상 걸리던 단백질 구조 분석과 예측을 단 몇 분이면 할 수 있게 되었다. 노벨 위원회는 선정 이유가 이들의 연구가 인류 이익을 위해 엄청난 성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계에서는 올해 노벨상 선정에 대해 그들이 정통 물리학자나 화학자 또는 생물학자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논쟁이 있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UCL)의 천체물리학자 조나단 프리차드 교수는 “노벨상이 AI에 대한 과대광고로 상처를 입었다....기계 학습이나 인공지능경망을 좋아하지만 이것이 물리학적 발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런 목소리는 AI 업계에서도 나온다. AI 스타트업인 페블러스의 이장원 부대표는 “물리학상을 AI가 받은 건 의외”라며 “이론을 세우고 증명하는 식의 과거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AI가 노벨상을 받은 건 너무 뜻밖의 결과”라며 “과학이라는 건 가설을 만들고 그 과정을 상세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의 AI 기술은 블랙박스처럼 결과가 나오는 과정과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말했다. 그는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덧붙였다(조선일보).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앞으로 창의적인 일에 종사하는 어떠한 분야도, 또는 그 누구도 AI와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 관계에 놓인다는 의미다.

기술발전과 미술문화

인류가 하나의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을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다. 2016년 3월, 한국의 이세돌 9단과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국이다. 인간 대 인공지능의 두뇌 대결에서 이세돌 프로의 승리를 예견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결과는 4:1 알파고의 승리로 끝났다. 그 후 AI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고, 세계적인

바둑기사들은 AI와 대국하며 바둑을 연구하고 시합에 임한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23년 5월에는 ‘인공지능(AI)의 대부’로 널리 알려진 제프리 힌턴(75) 박사가 구글을 퇴사하면서 AI 발전이 인류문명에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힌턴 박사는 미 ‘뉴욕 타임스’에 보낸 성명을 통해 자신의 업적을 후회한다고 밝히며 구글에서 사표를 냈다. 힌턴 박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AI 챗봇으로 인한 위험 중엔 “매우 무서운” 내용도 있다고 밝히며 지금 당장은 AI가 우리보다 지능이 높은 건 아니지만, 곧 넘어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힌턴 박사는 영국계 캐나다 출신 인지심리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로, 선구적인 딥러닝과 신경망에 관한 연구로 ‘챗GPT’와 같은 현재의 AI 시스템의 길을 연 인물이다. 그는 AI가 인간이 지닌 지능과는 매우 다른 종류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인간은 생물학적 시스템이지만, AI는 디지털 시스템이고, 가장 큰 차이는 디지털 시스템에선 같은 복사본이 더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AI는 개별적으로 학습하면서도 즉시 지식을 공유할 수 있어서 마치 1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무언가를 배울 때마다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이를 알게 되는 것과 같아서 챗봇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제프 딘 구글 수석과학자는 “우리는 AI 분야에서 책임감 있는 접근법을 고수한다. 이로 인한 새로운 위험 요소를 이해하는 동시에 과감히 혁신하는 법을 찾자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한다”라고 밝혔다. 이후 양과 질 측면에서 전 지구적으로 AI 기술을 인간이 어떻게 적절히 통제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 다양하고 깊은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AI가 무인 로봇(드론 등)과 결합함으로써 유통에 혁명을 일으켰으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주었던 살상 무기 분야에서도 빛나는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딥페이크에 의한 가짜 정보의 제작과 확산인데, AI가 어떤 형태로 결합하느냐, 그리고 그 도덕적 지향점이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낳는다.¹⁾

공립미술관의 건립과 현실

인천시립미술관이 준비 중이다. 처음에 어떤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렸느냐가 중요하다. 또 어떤 비전과 방향성과 추진력을 위한 시설과 인력과 조직구조 역시 중요하다. 오늘날 현대미술관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지역과 시대에 협소하게 제한받아왔던 예술적 미적 경험을 뛰어넘는 역할과 비전을 목표로 한다. 미술관은 세계 보편적인 현대미술 문화와 지역의 전통과 독자적인 문화가 긴장과 충돌과 융합의 과정이 펼쳐지는 플랫폼이다. 역사가 오래된 전통적인 미술 양식 또는 장르와 20세기 이후 차례로 등장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등장한 미술 양식이 혼란스럽지만 또한 자유분방하게 혼재되어 온

1) 2002년 6월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아랍 이민자 출신 미국인 하산 엘라히(Hasan Elahi)는 FBI에 테러 혐의로 체포되었다. 플로리다의 한 창고에 폭발물을 가득 쌓아놓고 있다는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얼마 후 폭발물 소지 혐의는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고 그는 곧 풀려났다. 그러나 FBI는 그의 무혐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그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그에게 FBI에 주기적으로 행방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하산 엘라히는 그 명령에 따르기로 하였고 이내 그는 필요 이상으로 그 명령에 충실하여 오히려 FBI 측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하산 엘라히는 자신이 어디에 있으며 그날 하루의 일상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매일 수 백장의 사진으로 기록하여 웹사이트에 올린 것이다. 현재까지도 그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그가 그날 먹은 음식과 아이스크림, 과거, 음로수, 그가 방문한 곳, 예를 들어 대학 강의실(그의 직업은 예술가이자 교수이기도하다), 화장실 등 시시콜콜한 그의 하루를 GPS를 이용해 기록하고 올리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자신을 감시할 당국의 불편함을 과도하게 덜어주고자 자신의 사생활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작업은 오히려 그 과도한 충실성으로 당국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하산 엘라히는 명민하게도 자신에 관한 정보가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정보로 만들었고, 이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이기에 가치 있는 정보를 다루는 정보당국의 활동을 무력화하는 작가의 전략이었다. 그것은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시장의 원리와 같다. FBI 당국을 빼고는 그의 사이트는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매우 인기 있는 사이트가 되었다.

현대의 예술문화 현황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런 현실을 잘 반영하고 제시하는 플랫폼을 기대한다.

국공립미술관들은 저마다의 비전과 미션이 있고 그 성공과 실패의 서사가 있다. 역사가 보다 오래된 타지역 공립미술관들과의 비교가 불가피하고, 세계 미술계에서 우리 현대미술 문화의 위상과 현실을 반영하여 높은 예술성과 공공성을 반영해야 한다. 무엇보다 새로운 미술관이 계속 개관하고 있기에 개관 초기에 우리 사회와 미술계에 깊은 인상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미술관 경영전략과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다양한 입장과 시각이 복잡한 불화와 갈등, 긴장을 낳고 또 그것이 반복되면서 본래 미술관이 지향했던 비전과 목표를 상실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립미술관은 균형감을 유지하면서 현명하면서도 유려한 정책과 운영을 요구받는다.

국공립미술관이 정상적인 체계와 구조를 갖추고 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컨센서스가 선행되어야 하고, 미술인과 시민들의 미술의 애정과 이해를 바탕으로 정부와 의회, 미술전문가그룹의 협력관계가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미술관 개관 이전, 정책 수립과 여론 수렴을 비롯한 복잡하고 어려운 준비 과정이 적어도 10년 이상 걸리는 사례들을 생각해보면, 오랜 시간 미술인들과 미술정책, 행정전문가 그룹과 정부, 의회, 시민의 이해와 협력 과정과 경험이 풍부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쌓여야 한다.

전통미술과 현대미술, 근대미술과 현대미술, 회화와 조각, 미디어아트와 인터랙티브 아트, 시민을 위해 체험과 경험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아트, 어린이 미술관, 찾아가는 미술관 등.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립미술관의 역할과 기능은 많고 넓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미술관의 인력과 조직, 예산과 정책, 운영과 관리 등 그 역량이 받쳐줘야 한다.

이러한 이상적 정책과 운영을 위한 자원은 언제나 제한적이고 부족하다. 그러므로 매번 보다 중요한 주제와 문제에 자원을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이상과 현실을 매개하고 극복하며 일정한 성과를 내는데 있어 무엇보다 뛰어난 역량을 지닌 전문가그룹과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목표에 집중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AI와 같은 기술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해진다. 전시연출과 구성을 위한 건축공간의 기술적 문제와 안전 문제를 해결하거나 세무 회계와 법무를 포함한 경영지원에 효율성을 갖출 수 있다.

현대미술 문화와 공립미술관의 역할

밀레니엄 이후 우리 사회에 미술관과 박물관이 그 수와 규모와 질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한편으로는 공공미술이 급성장한 시대였다. 공공성, 공공의 가치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실천은 진심이었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건 공공미술 문화는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그것은 현실적이지만 동시에 비극적이었다. 미술이 공공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면서 창의적 개별자로서 개인의 가치는 축소되어왔다.

과거의 미술과 현재의 미술에 대한 평가와 미적 이념은 지속적으로 변해왔다. 미술관은 지속적으로 과거와 현재, 미술과 사회를 상호반영, 상호영향을 거울처럼 반영한다. 변화된 현실을 도외시하고 과거에 형성된 미술 관념과 기준에 끊임없이 변화하고 역동하는 현재의 미술을 맞추려 한다면 시대착오적일 수밖에 없다.

새로운 작가나 작품, 전시와 비평을 만나는 것은 끊임없는 긴장과 도전의

연속이다. 현실은 그러한 도전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대미술에 관한 본격적인 담론을 찾기 어렵고, 있다 하더라도 특정 입장에 고착되거나 다소 고루한 인상이다. 이미 ‘현대’라는 말을 붙여쓰기에 ‘현대’의 역사가 오래되어 버렸다. ‘새로움’의 빠른 등장과 퇴장, 생성과 소멸의 운동이 점점 더 가파르게 빨라지면서, 더이상 ‘새로움’이 새롭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움’에 대한 담론 또한 활력이 빠져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남는 것은 현대미술에 대한 정량적 통계와 성과만이 남는 것처럼 보인다.

공립미술관은 이러한 시장의 욕망과는 일정한 안전거리를 두고서 갈등하고 고투하는 예술가 개인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야 한다. 공립미술관은 가장 사적인 세계가 가장 공적인 가치와 만나는 사건의 현장이다. 일반화를 거부하는 비정형적인 개인과 보편적인 가치와 평균적 인식이 만나는 사건의 장소이다. 창작자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미술계와 세계 미술계, 시장과의 긴장과 갈등, 화해 등 일정한 관계의 균형을 맞추면서 자신이 속한 시대와 사회의 당대성을 벗어나 미래로 나아간다.

전망

미술관은 지역의 미술 문화의 창작을 위한 플랫폼이자 연구 기관이다. 매 순간 미술관의 비전과 정체성에 대한 철학이 요구된다. 인천 경기 지역의 자연생태와 생활 환경과 지역 경제와 정치 문화 등 복잡한 현실에 대해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투여해야 한다. 서울 수도권과 지역 간의 네트워크, 민간과 공적 영역의 진지한 파트너십, 다른 층위의 시각과 의견, 경험을 더 진지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찰해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수도권 중심의 문화예술의 힘에 주변부로 점차 경쟁력을 상실해가는 지역 문화예술계의 어려운 상황은 인천지역도 동일하게 겪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의 국내와 국제 관계 이상으로 중앙과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와 역량을 비교하게 된다. 미술가들의 상당수가 해외 유학을 통해, 또는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으로 국제적 안목과 비전은 수준급에 도달했으며 이는 밀레니엄 이후 인터넷을 통한 정보화 사회가 가속되면서 국제적인 예술 활동과 동시대적으로 공감하고 참여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역의 창의적 인재들이 자신들의 예술적 창의를 시험하고 그 역량을 표현하기 위해 해외나 서울로 이동하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그에 따라서 지역 간 문화예술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창작의 자기 동력을 회복하는 데 공립미술관의 역할과 비전이 있다. 지역의 전도유망한 미술가들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지원하는데 더 많은 노력과 사례 깊은 정책이 필요하다.²⁾

2) 미혼율 증가, 출산율 저하, 고령화는 물론 1인 가구의 증가도 사회변화를 놓고 있다. 우리 사회의 1인 가구는 이미 2015년 27%에 달했다. 1인 가구 증가는 간편식의 증가와 이에 따른 영양 불균형과 다양한 건강 문제, 혼자 있는 시간의 증가로 사람들 간의 사회적 활동의 감소와 그에 따른 정신적 고립과 단명한 정신질환, 정치적 무관심 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의 충분한 재정이 확보될지도 불확실하다. 우리 사회가 저성장 사회로 진입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는 공공재원의 현실을 고려해보면 우리는 어떤 도시재생과 문화예술정책과 실천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총체적 난국을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약 30년 안에 수도권 또는 대도시와 그 주변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지역 커뮤니티가 사라질 것이다. 지역 소도시, 읍과 면에는 더 이상 사람이 없게 된다. 도시재생이란 곧 대도시 재생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인구학에서 보면 지역 소도시의 운명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소도시들은 소수의 원주민과 대다수의 여행객, 관광객으로 채워질 것이다. 남북 분단 상황을 고려해보면 군부대가 있는 지역은 그럭저럭 살아남을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이론의 여지가 없이 분명하다. 인구감소의 영향은 지역으로 갈수록 심각하다. 인구 10만 이하의 소도시들은 세수로는 줄어드는 세수로 인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만 재정을 꾸려갈 수 있지만 중앙정부의 재정도 여유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어두운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고려해야 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정해진 미래에 문화예술로 도시재생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을까?

공립미술관은 미술관과 박물관, 도서관 등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다문화, 다원사회 문화 속의 예술과 소통을 위한 다장르 간 창조적 협력이 필요하다. 장르와 장르, 예술과 비예술, 예술과 일상, 예술과 인문학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비전과 형식을 만드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다양한 네트워크 미디어와 의사소통의 기술이 필요해진다. 비근한 예로 코로나 시기 세계적으로 급성장한 회사가 온라인 기반 화상회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ZOOM 이다. 또한 일론 머스크가 7천 개 이상 쏘아 올린 스타링크 인공위성 서비스이다. 이미 80년대 이후부터 현대미술에서는 이러한 대화 형식을 가져온 의사소통 형식의 프로젝트가 많이 기획되어왔다. 또한 이러한 기획들은 과학기술 프로그램에 기반한 개념미술가들과 미디어아티스트들에 의해 확산되었다.

기획의 기본 방향은 현대예술의 흐름을 읽고 중심 이슈와 관련된 작업과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 전시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립미술관은 주요 기획전시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국 주요 미술 기관을 비롯해 기획자와 창작자들의 네트워크를 확대 지속해야 한다. 현재 전시의 형태를 띠면서도 일종의 정보와 지식과 관련된 새로운 형태의 아카이브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왔다. 기존의 아카이브 프로그램과 미디어 아카이브를 적극적으로 창작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와 워크숍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 온오프라인 상의 현대미술 아카이브 문화가 정착되어가는 시기에 공립미술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은 투자로 다른 기관과의 비교 우위를 확보하며 큰 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고 네트워크 기반 아카이브에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미술관과 박물관 대학 관련 기관들과의 공동작업을 통한 해당 지역의 현대미술 문화의 붐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러한 기획은 일관되게 전국 주요 도시의 문화예술 기관과의 사람과 프로그램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국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의적인 기획자들, 평론가들, 창작자들 그리고 전문적인 관객들의 활발한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역 문화기관과 함께 전국 주요 창작공간과 연결되어 전국의 창의적인 동시대 예술가들과 교분을 나누고 상호 자극과 격려를 받을 수 있어야 비로소 국내는 물론 세계 미술계에 의미있는 철학과 메시지를 제시할 수 있다.

한 사회의 문화 예술적 역량이란 그 사회가 한 개인(예술가)의 자유를 최대한 확대해 인정하느냐에 달렸다. 공립미술관이 국내외 주요 공립 및 민간 미술관들과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창작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실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 생각해보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등 사회경제의 현실에 변화하면서 공립미술관의 역할이 증대해 왔다. 이런 현실 속에서 창의적이어야 할 미술 문화가 AI기술과 만나 앞으로 예술과 현실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틀림없이 예술과 기술과 경제, 사회가 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는 현실은, 역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뛰어 나가는 예술가들의 놀라운 상상력과 깊은 사유에 의존하게 된다.

‘AI시대의 미술관 전략과 기술 접근성’에 대한 토론문

염지희

2024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다양한 개인적 혹은 사회적 요구들이 발생합니다. 점점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그에 비해 한정적인 자원은 미래를 고민하게 하고 ‘지속가능성’이라는 화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정적인 자원을 대신할 수 있다는 면에서 AI는 그 자체로서 혹은 모티프로써 다양한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단초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정의를 잠시 살펴보자면, 1987년 브룬틀랜드 보고서(Brundtland Report)에 등장하며 지속가능성이란 “미래 세대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바 없이, 현세대의 필요와 미래 세대의 필요가 조우하는 것”이자, 불확실한 미래에도 사람과 환경에 모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태학적 용어로서 지속가능성은 생태의 작용, 기능, 생물 다양성, 생산을 미래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로 지속가능성은 사회, 경제 및 기후,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예술의 범주에서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보다 더 인문학적인 시선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을 통해 이야기해야 할 지속가능성은 무엇이고, 미술관과 같은 예술 관련 기관의 유의미한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미래의 예술 생태계를 열어가기 위해 지금, 현재의 예술 생태계를 되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술관은 예술 생태계를 생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도적인 틀과 제약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미술관과 현재의 예술이 처한 제약들, 곧 미래 세대의 예술적 가능성을 제약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미래의 미술관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바 없이, 현재의 미술관과 ‘미래의 미술관’의 필요가 ‘조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최근 손석희 아나운서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황석영 작가가 언급한 AI에 대한 견해가 흥미롭습니다. 그는 ‘좋은 질문이 있어야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의 콘텐츠가 있어야 AI를 도구로서 잘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종종 AI 창작 ‘콘텐츠’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바라보듯 마법적인 환상과 욕망이 투영되곤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경험과 통찰에서 비롯된 삶의 연금술적인 ‘콘텐츠’가 우리에게 내재해 있을 때, AI를 활용한 유의미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노암 대표님께서 AI 시대와 미술관의 관계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모색을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으로 제시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AI 기술을 미술관에 적용하여 내부 인력과 전문성의 효율을 높이는 것, 미디어 아카이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외부 전문 기관과의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 AI 시대에 창의적인 질문을 제시할 창작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역량 강화를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교류와 협력의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하신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래의 미술관에 주어질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시스템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미술관이 질문을 생산하고 활발한 교류를 만들어 가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할 때, 살아있는 기관이 되어 지속가능성을 담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술관은 마치 영화 <인테스텔라>에 등장하는 책장의 뒤편처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4차원적인 도서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리에서 떨리는 시계바늘처럼 낮은 이미지들을 통해 마치 미래에서 보내온 듯한 기이한 메시지를 던져 주기도 합니다. 어쩌면 미술관은 AI 시대 속에서 결코 ‘정답’을 내어주지 않는 유일한 곳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 ‘좋은 질문’을 재차 질문하는 것이 미래의 미술관에 주어진 미션일 듯 합니다.

예술가의 정체성으로 딥러닝 한 AI가 도슨트와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대신한다거나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떤 현상이 만들어질까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혹은 감상자가 AI를 활용해 스스로 전시를 큐레이팅하고 미술관은 점점 가상 공간화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번 발제문에 포함된 내용 외에도 현재 AI 시대를 맞이하며 몸소 체험하시는 예술문화 전반의 새로운 국면과 변화가 있으실지, 나아가 먼 미래의 미술관을 어떤 모습으로 상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AI 시대에 인류와 공동체의 본연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치 네트워크의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미술관과 외부 기관 간의 공동작업과 교류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 공개포럼

다양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술관

참여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신수경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회장

기혜경 홍익대학교 교수

조경재 프로젝트 스페이스 코스모스 대표

김노암 휴아트&미디어랩 대표

차기울 인천대학교 조형예술학부 교수

정지은 성북문화재단 문화도시정책추진단장

염지희 2024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

변순영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좌장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사회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인천시립미술관 공개포럼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1부 발제에 대한 지정토론과 종합토론 시간으로 인천문화재단의 변순영 문화사업본부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변순영 본부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정토론 패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차기울 교수님, 그리고 염지희 2024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시기로 했던 성북문화재단 정지은 문화도시추진단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자리에 참여하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문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오승 시립미술관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변순영 본부장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변순영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2부 주요 의제 공개토론회 좌장을 맡은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변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발제를

들었습니다. 신수경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회장님, 기혜경 홍익대학교 교수님, 프로젝트 스페이스 코스모스 대표이자 설치 작가이신 조경재 대표님, 그리고 휴아트&미디어랩의 김노암 대표님 네 분의 말씀 잘 들었고요. 2부 토론에서는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님들과 관련 전문가들께서 지정 토론회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유 토론 이후에는 종합토론도 있기 때문에 사실 토론의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지정토론자 분과 발제자 분들은 가급적이면 정해진 시간 내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신 신수경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회장님이 발표하신 <인천미술사 연구의 방향>에 대한 토론은 조경재 대표님께 부탁드립니다.



조경재 (프로젝트 스페이스 코스모스 대표)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연구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질문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긴

한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1950년대에서 1989년이었나요? 그 사이 자료가 비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신 구간이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한 것들을 어떠한 방법론으로 찾아가시고 연구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신수경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회장)

‘인천뮤지엄파크 시립미술관 콘텐츠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에서는 현대 시기를 연구 했어요.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전시공간, 미술교육기관 이런 데를 연구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목록들이 있고, 그 다음 2023년에 한 ‘인천미술사 콘텐츠 발굴 연구’에서는 개항기부터 1950년 한국전쟁기까지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1950년부터 1980년대, 1989년까지는 빠져 있는 거죠. 지금 연구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 제가 볼 때는 인천미술사의 가장 빠대가 되는 작품과 작가에 대한 목록조차 제대로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문화사는 콘텐츠 개발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다루어 놔는데, 인명사 같은 경우는 2023년 ‘인천미술사 콘텐츠 발굴’ 사업을 하면서 조금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저희가 하는 건 전수조사 차원이라고 봐야 할 거예요. 전체 목록을 만들고, 그 중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작가들의 인명사전 만드는 작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가 있는지 목록조차 제대로 안 잡혀 있어서 그렇게 해놓은 거고, 저희가 인명사에서 시기 구분을 했던 건 이 연구를 할 때 작고 작가와 생존 작가에 대한 연구 방법이 달라서 그런 식으로 나뉘었다는 뜻이에요.



조경재 (프로젝트 스페이스 코스모스 대표)

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저는 인천 출신 작가가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 사회적 제도 때문에 인천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도부터 인천아트플랫폼이라는 공간이 생겨나면서 외부 작가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인천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인천이 갖고 있는 가능성에 반하고, 그리고 여기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현실적으로 재료적인 공급부터 작업실 임대, 현실적으로 작가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좋다는 걸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인천아트플랫폼을 통해서 또 외부에서 유입이 되고 그 다음 인천문화재단의 기금 사업들도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가 또 기금을 받아 활동을 하면서 더 견고하게 인천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던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와 시대별로 저는 그런 원인이 되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지점이 동시에 연구가 되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신수경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회장)

당연히 시대별로 어떻게 환경이 달라지고 했는지 연구를 하죠. 문화사의 경우는 저희가 일단 전시 자료 목록을 짚 뽑아서 정리를 해보면 파악이 돼요. 그런데 저희가 또 집중하는 건 목록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나중에 콘텐츠 발굴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작가, 사실은 아마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나는 인천 출신이 아닌데 나를 인천 미술가로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일 텐데 사실 그런 문제들이 선정하는 데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여러 차례 열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인천미술사 연구를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미협이라든지 각각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미술단체들도 있고. 각 기관의 대표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한테 자문도 듣고, 목록을 만들어서 여기 빠진 작가들을 추가도 하고, 저희가 목록 만들었어도 이분이 여기서 활동을 하는 게 눈에 띄게 보이면 뭔가 인천하고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여기에 연고만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저희 사업에서도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던 게 36개월 중에 인명사 작업만 20개월을 할 정도로 비중을 둔 거예요. 그리고 문화사가 10개월이고요. 인명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술사를 떠받치고 있는 게 미술 작가이고 작품이기 때문에 작가 연구에 어느 정도 몰두하면 문화사는 비교적 쉽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해놓은 것도 있었고 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변순영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조경재 작가님은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계기로 인천에 오셔서 인천의 환경과 여러 여건 속에서 작업을 하시면서 현재는 인천의 프로젝트 스페이스 코스모스라는 공간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죠. 작가로서의 정체성도 있지만 그 공간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의 정체성도 같이 탑재하고 계십니다. 지역에서 활동을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작가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앞에 말씀하셨던 그 발제에서 ‘어떻게’가 굉장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천 미술사에 거의 100년의 시계에 대한 미술, 인천 미술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에 대한 질문들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지정 토론이 다 끝난 이후에 청중의 질문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수경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혜경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글로컬 시대 지역미술관의 건립 개관 사례와 변화 양상>에 대한 토론을 차기울 인천대 조형예술학부 교수님께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기울 (인천대학교 교수)

네 안녕하세요. 차기울입니다. 기혜경 선생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제 의견을 첨부한 토론문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발제하신 미술관 관련 일반적 내용과 지역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편이고요.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것은 시립미술관의 정체성 구축과 미술관 개관 전 사전 준비에 대해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하고,저도 그에 대해 약간의 첨언을 하면서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저희가 인천 미술의 방향성에 관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방향성에 대해서 토론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결국 맥락을 잡았던 것이 ‘디아스포라’에 관한 거였는데, 그것이 과연 인천시립미술관이 지향해야 되는 진정한 방향성인지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토론하면서 방향성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요즘에 남북 문제도 심각하고, 제 작업실이 있는 강화도 지역 같은 경우, 제가 최근에 실제로 기괴한 대남 방송소리도 들었습니다. 강화도에서 읍은 북쪽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지않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소리가 강하게 들릴 정도니까 문제가 심각하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출발은 남북 분단이라는 문제에서 오는 것이고, 한반도가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여러 역사적인 문제점을 고려해보면 인천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평화라는 대전제 하에 존재하는 게 아닌가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평화도시로서의 인천과 생태도시로서의 인천,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는 예전부터 생각을 해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되고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선생님한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일반론에 입각하여 미술관이 가져야 되는 특성이라든지 혹은 인천 지역에 시립미술관이 건립됐을 때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지점 같은 걸 꼼꼼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역에 있는 지역 미술사 연구자들과나 공간 관련 운영자들의 의견을 제가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순차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시립미술관 설립이 매우 늦었습니다. 따라서 지역미술계의 다양한 요구가 한꺼번에 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기 다른 욕망의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한 상황에서 이를 균형있게 반영하는 것이 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선생님께서 부산시립미술관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지역 상황을 많이 겪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균형있게 안배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인천시립미술관이 뮤지엄파크라는 미술관과 박물관이 함께하는 공간의 형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유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기형적인 형태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형태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뮤지엄파크를 모태로 했을 때 지역적으로 성격이 조금 다른 형식, 인천이 오래된 역사를 기반으로 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미술관들을 세우는 것이 어떨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대 미술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상황 그러니까 현대미술하고 근대미술을 나누는 상황을 가정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디아스포라’와 관련해서 이주와 이산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을 수 있는 미술관,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미술관이나 교육을 위한 어린이미술관을 특정한 지역에 설립하는 것은 어떨겠는가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중심도 아직 생기지 않았는데, 본체도 없는데 겹가지를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인천이라는 도시가 역사도 깊고 오래된 도시이고 그리고 또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이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도 글로벌컬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지역성이란 문제와 글로벌컬이 굉장히 유사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컬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지역의 가치를, 글로벌컬이라는 것은 세계사적 보편성에,

로컬의 가치를 담는 것이죠. 세계사적인 입장이 강하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미술관을 짓게 되면 지역에 관한 문제를 중심 의제로 다루고자 하는 욕망이 매우 강하거든요. 그랬을 때 선결돼야 되는 과제 같은 게 있다면 혹시 느끼신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인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미술관이 경쟁해야 되는 것은 백화점이나 소위 얘기해서 상품 광고와 미디어를 통해 넘쳐나는 이미지화된 것과 경쟁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미술관을 그런 입장에서 오늘날 인천에 설립하고 운영해야 된다면 선결돼야 되는 과제가 무엇인지 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변순영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차기울 교수님의 토론 감사드립니다. 차기울 교수님은 사실은 대학에 계시기 이전에 저는 작가로서 먼저 만나 뵈었는데요, 아트플랫폼 개관 초기 마당 땅을 파서 거기 작업을 했었던 그 설치 작업이 너무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인천의 미술계 여러 작가 분들의 궁금한 사항까지 모두 수렴해서 질문을 네 가지로 하신 것 같습니다. 기혜경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혜경 (홍익대학교 교수)

답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정말 엄청나게 다양한 요구가 있습니다. 부산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지어진 지 20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서울시립미술관 북서울미술관 분관장으로서 미술관을 운영했는데요, 본관 관장님이 전체를 총괄하고 저는 분관만 운영하면 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크게 뭐가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부산에 내려갔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은 아 이러다 미술관이 찢어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사람의 사지를 사방에서 묶어 끄는 형벌이 있잖아요. 정말로 서로 다른

주체들의 요구들이 각각, 180도 다른 것들을 요구해 왔어요. 미술관은 공공성도 지켜야 되고, 한편으로는 세계화도 해야 되고, 또 브랜딩 가치도 갖추어야 하고, 지역미술계 작가님들하고도 연대해서 같이 나가야 되고, 지역 미술사도 챙겨야 한다는 굉장히 다양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 요구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일단은 만나서 얘기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욕구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대부분 각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입장들을 설명 드리고 미술관이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당면해 있는 문제들이 뭔지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조율하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같이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관하는 미술관은 그러한 요구와 욕망이 훨씬 더 넘쳐나는 공간이 될 거라는 점에서 조금 더 일찍 그런 것들을 받아내어야 할 겁니다. 개관이라는 이벤트를 통해 극명하게 비춰지기 전에 사전 준비 단계에서 그런 것들이 조율될 수 있는 개관 전 시스템이 행정적으로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미술관 전문가들, 큐레이터라든가 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미술관의 지향점에 대한 공감대를 같이 공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각각의 다른 요구들이 들어왔을 때 미술관 안에 있는 인력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조율하기가 더욱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내부의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고,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외부와 협업해 나가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저는 뮤지엄파크가 아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모든 걸 합친 특이한 구조가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좋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조정재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떻게’가 미술관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다 똑같은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느냐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밟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전시를 오픈 했어도 좋은 전시가 될 수 있고, 나쁜 전시도 될 수 있거든요. 열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전시를 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가 중요한데, 여기에서 뮤지엄파크의 그 특이한 상황을 잘 살려나갈 수 있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천시립박물관은 우리나라에서 국립중앙박물관과 같은 시기에 오픈한 오래된 박물관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굉장히 긴 박물관이예요. 제가 대학원 때 이경성 관장님의 조교를 했을 때가 있었는데, 관장님이 그 당시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면 인천시립박물관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시립박물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한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립미술관은 현재 조직도 없고 인력도 별로 없고 이제 막 생기는 곳이고 그다지 정체성도 아직 형성되지 않은 곳에 박물관과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있으면서 콜라보를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미술관과 박물관이 서로 협업하기 위해서는 미술관 직원들끼리 공감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박물관과 더불어서 인천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인천 문화계를 지향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공통의 비전을 만들어내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특이성만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인천이 굉장히 복 받은, 어떤 특이한 정체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분관 설립을 말씀하셨는데, 차 교수님도 이미 답은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술관과 박물관이 있는 뮤지엄파크가 안정이 되고 난 다음 그것이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을 했을 때, 이 공간 안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되겠다 혹은 다른 어떤 요소를 가지고 분관을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모자란 지점이 보일 때 그때 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일단 안정화 과정을 거치는

게 가장 선결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글로컬에서 지역의 욕망을 따르려는 선결 과제는 아까 다양한 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답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쟁 상대로서의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 미술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기업의 스펙터클함과 경쟁하기 위해서 요즘 새로 짓는 미술관들이 멀티플한 AI 디지털 룸을 만드는 게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것도 그다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조경재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좋은 전시를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이면서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눈을 돌렸던 분들도 바이럴을 타고 미술관에 오실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말로는 굉장히 쉬운데 좋은 전시를 만든다는 게 정말 모든 사람이 자기 역할을 120%씩 해 내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원론적인 말씀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변순영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시립미술관에 대한 각계의 기대가 굉장히 다양해서 일의 순서나 전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순서를 조금 바꿔서 네 번째 발제에 대한 토론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노암 휴아트&미디어랩 대표님이시자 전시기획자께서 발표하신 <AI 시대의 미술관 전략과 기술 접근성>에 대한 토론을 염지희 2024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님께 부탁 드리려고 하는데요. 염지희 작가님은 인천의 작가이시고, 인천에 살고 계시면서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인천문화재단 아트T의 참여 작가이시자 지역에서 젊은 작가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염지희 작가님의 토론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지희 (2024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

네, 안녕하세요. 시각예술가 염지희입니다. 김노암 대표님의 발제문에서 미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화두와 AI에 대한 화두가 함께 접목이 된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표님께서 AI와 미술 간의 관계에 있어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중에서 미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미래의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이 요즘 자주 회자되고 있지요. 그래서 정의를 한번 다시 살펴봤어요. 미래 세대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바가 없이 현 세대의 필요와 미래 세대의 필요가 조우하는 것 인데요. 저는 인천에서 활동하며 지금 현재도 인천아트플랫폼에 입주하여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아트플랫폼을 연결지어 이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인천시립미술관의 건립이 추진되기 이전에 인천에서 유사 미술관으로 기능했던 곳이 인천아트플랫폼입니다. 미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인천아트플랫폼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인천아트플랫폼은 유사 미술관, 미술기관으로서 기능을 해왔지만, 작년에 인천아트플랫폼의 주요 기능이었던 레지던시의 존폐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요구와 이해관계가 중첩되다 보니 현재 인천아트플랫폼은 수많은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들을 수용하는 포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비단 인천아트플랫폼 뿐만이 아니라 여타 다른 지역의 기관에서도 레지던시의 존폐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인천아트플랫폼의 주요 기능이었던 레지던시 기능은 굉장히 축소된 상황이고, 안정적인 지속이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에 비추었을 때 어떤 기관이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시대가 변화하고 요구사항이 달라지면서 지속가능성의 한계에 부딪히며 지속가능성의 정의와 이해에도 차이가 생기고 그 의미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차후 인천시립미술관이 건립이 됐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미술관의 지속가능성과 예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지속가능성이라는 건 또 다른 차원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미술관과 같은 예술 관련 기관들이 유의미한 지속가능성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지점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더불어 대표님께서 함께 만들어가는 미술관이 되기위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과 미술관의 운영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과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신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력의 유연함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적인 조직에 속한 미술관과 같은 기관이 가진 불가피한 한계와 네트워크 및 커뮤니케이션의 간극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대표님께서 조금 더 첨언해 주실 이야기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변순영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염지희 작가님의 토론이었습니다. 지금 염지희 작가님께서서는 김노암 대표님의 발표에서 지속가능성을 화두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서 김노암 대표님의 발제에서 사실 가장 최상의 미술관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자원은 언제나 제한적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도 좀 뼈 아프게 느끼기도 했는데요. 염지희 작가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화두 부분에서 이제 AI 시대라는 부분들, 그리고 미래의 미술관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운영하고,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서 AI가 어떤 해답이나 활로의 계기가 될 수 있는지 등등을 질의하신 것 같고요. 김노암 대표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노암 (휴아트&미디어랩 대표)

AI는 사실 도구죠. 도구이기 때문에 잘 쓰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과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 쓰임에 여러 가지 양태라고 할까요?

모양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미술계에서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아까 염지희 작가님이 질문한 것처럼 인천아트플랫폼에 여러 가지 기능의 변화라든가 뭐 역할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천의 문화적 상황, 문화에 대해 갖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술가의 입장, 작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인천아트플랫폼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작가 입장에서 그냥 자기 작업 잘하면 됩니다. 사실 작가가 인천아트플랫폼을 마치 AI처럼 도구를 활용해서 잘 쓰면 되는 거고, 제가 인천 문화의 그런 그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앞서 인구 얘기도 나왔지만 300만의 도시에서 여러 문화예술 기관들의 건립과 운영,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 사회는 창작자들이 많은 역할을 떠안고 있어요. 정책 단위에서 풀려줘야 될 문제조차도 작가들이 떠안습니다. 작가들이 홍보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페이퍼작업도 해야 되고 정산도 해야 되고 e나라도움도 해야 되고 너무 과제가 많아요. 실제로 작가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은 두 가지죠. 시간과 창의성인데, 이 두 가지에 집중할 환경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성공하는 작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두 개의 자원을 얼마나 경제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경영하느냐가 좋은 작가라고 우리가 결과를 보게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천아트플랫폼의 존폐 문제를 가지고 창작자들이 너무 많이 논의하는 것은 소모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나 맥락이 여러 가지 데이터나 아카이브 등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과거죠.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에 작가가 뭔가를 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과거 문제, 또 정책 단위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너무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너무 소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간다는 것은 이것이 어떤 형태로 유지하는 게 낫느냐 아니면 문을 닫는 게 낫느냐 기능을 바꾸는 게 낫느냐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어떤 합의점을 가면 될 문제지 창작자와 예술가가 자기의 예술보다 더 긴급하게 고민할 거리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외부의 입장에서 그 동안 논의를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인천아트플랫폼이 언급되는 부분은 아마 이 지역 작가들의 어떤 인식의 강도나 세기가 시급성을 느끼는 건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시각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코컬리티, 지역성 얘기할 때 사실은 지속가능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냐 하면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지속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죠. 좌우로 외풍을 받게 되고 어떤 상수보다는 변수에 의해서 너무 많이 흔들리게 되니까. 그래서 인천시립미술관이 인천 문화, 인천 미술 문화 또는 미래지향적인 시각문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기관 인프라로서 중심을 잡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목표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더 많은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바라보는 그 방향이 다르잖아요. 시선의 방향이 다르고 미술관에 대한 정의도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학습이 참 많이 돼 있고 많은 데이터가 과잉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많은 데이터나 정보가 꼭 반드시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바둑 용어도 있잖아요. 너무 심사숙고하다가 약수 둔다고, 그럴 리스크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충분히 많은 국공립, 시립, 도립미술관들의 선례들이 있다고 봅니다. 성공 사례도 있고 실패 사례도 있고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왔고 어떤 리스크들이 발생하는지 이미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립미술관이 좀 뒤늦게 건립이 되더라도 그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장점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어떤 모델을 만들어 인천시립미술관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고 지속 가능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는데, 어쨌든 간에 AI라든가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들은 다 도구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악 같이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순영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러 화두를 또 추가적으로 던져 주셔서 이후 종합토론 때 질문이 나오면 다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종합 토론의 마지막 순서로 프로젝트 스페이스 코스모스 조정재 대표님이 발표하신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미술 담론>에 대한 토론으로 성북문화재단 정지은 문화도시추진단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참석을 못해서 사회를 맡으셨던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님께서 토론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네, 대독하겠습니다. 미술관의 내용과 구조에 초점을 맞춘 조정재 대표님의 발제문을 잘 읽었습니다. 대표님은 미술관의 내용을 인천의 지역성으로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는 미술관의 기능을 구조로 제안하셨습니다. 대표님의 발제문을 읽고 서울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시카고미술관의 버전을 찾아봤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사용자, 매개자, 생산자가 함께 공동의 기억을 만들고, 서울형 네트워크 미술관을 지향합니다. 부산시립미술관은 시간예술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를 아우르는 문화예술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부산이 해양수도이자 국제관광도시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시카고미술관은 모든 예술은 특정한

맥락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재에 맞는 역동적인 재해석이 필요하며 미술관이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인간 창의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영감을 주는 모임의 장소로 기능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급한 세 개의 미술관의 비전을 참고해 보면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다섯 가지의 특성 중 인천시립미술관이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할 정체성과 방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천의 지역성을 미술관에 직접 드러내는 것이 좋은 방향성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개항과 해양 관련 정체성은 인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산이나 군산처럼 인천의 정체성과 유사점이 있는 도시들이 있고, 이 차별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의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대표님이 구도심에서 공간을 운영하고 계시면서 느끼는 지역미술 담론의 현황과 민간 공간과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인천 미술 담론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시간과 과정 없이는 이후 시립미술관이 만들어갈 좋은 전시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을 광역으로 사고해서 서울, 경기, 인천의 교류와 협력을 높이고, 수도권 전체 미술관의 현황에 비추어 인천시립미술관의 역할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역의 고유성에 따른 역할과 수도권 전체를 바라보는 이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대표님의 생각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변순영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임성연 대표님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조경재 작가님 토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경재 (프로젝트 스페이스 코스모스 대표)

답변 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네요. 제가 동인천에서 작년부터 프로젝트 스페이스 코스모스라는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어떤 가능성이 탑재된 공간이긴 합니다. 실제로 거기에 목공실이 있고요. 그리고 꽤 큰 창고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를 만들어낼 때 그리고 전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보를 딱히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올해 관객 수는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한 것 같아요. 관객이 들어올 때마다 다른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굉장히 다르게 연출이 되어 있고, 색감과 벽체부터 어떤 때는 골목길처럼 만들어져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넓은 하얀색 공간 혹은 굉장히 어둡게 만들어 분위기적으로 달라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작품 위주로 뭔가를 만든다기보다 정말 전시다운 전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저는 전시라는 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냥 문화인 것 같습니다. 문화는 작가가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작품이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들이 많이 형성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해서 계속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당장 바로 앞에 어떤 효과가 없을지라도 이게 축적되고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인천아트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저의 의견은 조금 다른 게 무엇이나 하면 저는 그것을 도구로 바라보지는 않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산이었고요. 저한테는 충분히 문화적으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존재했었고요. 이제 그런 콘텐츠가 좀 다르게 변형되는 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천이 갖고 있는 어떤 명확한 정체성은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도 조금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미술교육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지금 현재 미술관의 형성과정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무엇이나면 시각 작가들이 미술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 방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에 대체적으로 딱딱하게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미술관은 조금 열려 있죠. 그렇지만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에서 어린애들이 아주 멋진 자동차를 만들어 가져와요. 그러면 부모님이 보고 감탄을 합니다. 우와 엄청나게 멋진 걸 만들었구나. 그런데 과정은 그런 겁니다. 키트를 사요. 그냥 1만 원짜리 키트를 사서 모두 다 똑같이 완성된 형태로 만들고, 거기에 색깔을 칠해서 가져오는 형태입니다. 미술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유동적으로 뭔가 자유롭게 어떤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형상을 만들고. 그게 꼭 아름다울 필요는 없거든요. 가끔씩은 러프해져도 되고, 어쩔 때는 굉장히 흐트러져도 되는데 항상 완벽하고 완벽한 마감,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를 지향하다 보니까 방과 후 수업에서 키트 사서 만드는 것처럼 항상 규율적으로 만들어진 규칙 속에서 이것들을 구조를 만들어 그냥 그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형식인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인천이라는 곳은 굉장히 기능적인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데군데 지역마다 다 각각의 특성과 기능성을 아주 면밀하게 내포하고 있는 지역성을 갖고 있고요. 그 기능성이 미술관에 탑재될 수 있을 때 인천만이 가진, 인천시립미술관에서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전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순영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조경재 작가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해 주신 네 분의 토론자분들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객석에서 끝까지 경청해 주시는 청중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종합토론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청중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들을 이 시간 통해서 질문하실 수 있고요. 생각하시는 동안 저희가 이번 공개포럼을 진행하기에 앞서 받은 사전 질의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인천시의 권오승 시립미술관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전 질문이 들어온 두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인천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인천시립미술관의 활성화 방안 마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의는 인천시립미술관의 정체성 정립 관련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입니다. 굉장히 굵직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그럼 인천시 권오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오승 (인천광역시청 시립미술관팀장)

간략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발제자분들, 토론자분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체성이라는 것을 수립하는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정체성이 단기간에 결정될 사항도 아니고, 또 확립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정체성을 만들어가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자 및 전문가분들, 지역미술계, 그리고 또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들을 거쳐 만들어가는 단계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오랫동안 고민하고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전문가 연구세미나와 공개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방안을 여쭙어 주셨는데요. 활성화 방안이라기보다는 시립미술관을 성공적으로 개관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2019년도에 시립미술관 콘텐츠 개발 학술 용역을 했고요. 또 소장품 정책 연구용역, 시립미술관 운영방안 연구용역, 미술사

콘텐츠 발굴 영역 등 여러 연구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현재 인천 미술사 조사연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립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순영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네 권오승 팀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늘 이 공개포럼은 현재 유튜브 라이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권오승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내년에도 이런 공개포럼과 토론의 자리를 계속 이어나갈 거고, 인천시립미술관이 소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다양한 지역미술계가 계속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을 축적해 나가는 과업을 시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들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팀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런 자리들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객석에 계신 청중분들께서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스태프분들께서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 가능하시면 성함과 어떤 분이신지 소개도 간략하게 해 주시면 답변에 도움될 것 같습니다.



김천권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오늘 발표, 그리고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에서 명예교수로 있는 김창권입니다. 제 전공이 도시개발, 그리고 도시재생입니다. 그래서 요즘 도시개발과 재생 이슈 중 하나가 문화예술 기반 인프라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인천시립미술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인천하면 항만도시 그리고 공업도시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인천 하면 아마 외부에서는 그런 쪽의 이미지로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시립미술관, 문화 인프라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인천이 가진 기존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들도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발표에도 나왔지만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뮤지엄 만든 다음 빌바오라는 도시가 엄청 성장했거든요. 오늘 얘기 나온 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미술관이 그냥 미술관이 아니고 지속가능성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산자 중심에서의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천시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립미술관을 만들면서 충분히 포함이 됐느냐,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인천뮤지엄파크가 어디에 만들어지고 있는지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시립미술관이 들어설만한 공간인지요. 기혜경 교수님께서 부산시립미술관 관장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아마 미술관 자리로 보면 제일 좋은 데가 부산인 것 같아요. 거기는 벅스코가 있고 그 옆에 컨벤션 센터도 있고 그래서 미술관과 그 주변 지역이 같이 클러스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인천시립미술관을 지금 부지에 만들어 가지고 과연 인천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나 그리고 미술관이 지속가능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속가능한 공간이 되는가. 다 아시겠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이 어디 있습니까? 청계산 자락에 있습니다. 세상에 현대미술관을 산 밑에 비밀 기지처럼 만든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 하나일 겁니다. 정말 외부에서 보면 이 나라는 참 아주 특이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할 겁니다. 어떻게 미술관을 이런 데다 만들 수 있지 그런데 그런 작업을 인천에서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천에 땅이 없으면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아요.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 기 교수님께서 홍콩에 M+뮤지엄을 보여주셨는데, 인천에도 내항 쪽에 보면 미술관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공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신포동이란 연결해서 보면 아마 문화예술 클러스터가 잘 형성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아마 인천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돼서 장소 선택을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이 틈문화창작지대일 겁니다. 주변 지역과 관련해가지고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뮤지엄파크

인천시립미술관이 지금 거기에서 과연 지속가능하고, 인천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미술관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논의는 생산자 중심으로만 여태까지 얘기가 됐고 소비자 중심이나 시민 중심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시립미술관은 공공의 공간이 돼야 되고 시민들에게 사랑 받는 공간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기혜경 교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제가 여쭙보고 싶습니다.



기혜경 (홍익대학교 교수)

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중에 부산시립미술관이 위치가 가장 좋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부산시립미술관 건립 당시에는 그곳이 허허벌판이었습시다. 옆에는 비행장이 있어 고도 제한에 걸려서 건축물을 위로 못 올리고 설계했을 정도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20년이 지나면서 해운대 지역이 개발되고, 센텀시티와 벡스코가 들어오면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뭔가 문화 클러스터가 형성된 것 같이 보이는데요. 제가 부산시립에 가서 6개월이 채 안 됐을 때, 관광공사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부산에 영화의 전당이 있고 벡스코가 있고 시립미술관이 있는데 이게 걸어서 혹은 버스나 대중교통으로 링크가 안 된다. 하물며 관광버스가 이 지역을 도는데 그것조차도 링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버스를 직접 타보시고 어디에 사람들이 내리고 어디를 더 들려야 되고 어디는 빼야 되고를 한 번 시뮬레이션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게 미술관이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도시개발 차원에서 문화 영역이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다면, 오시는 관광객들이 도보 혹은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그 권역이 같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인천뮤지엄파크 건립부지가 현재 약간 허허벌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대를 거는 것은 것은 선교사

사택 활용이라든가 또는 주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다고 들었는데, 향후 링크가 걸릴 수 있는 다른 문화시설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천시립미술관 혼자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20년을 기다리자고 부산처럼 얘기하기에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클러스터 형성이 안 되는 위치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변순영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답변 감사 드립니다. 사실 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 없는 구구절절한 사연과 또 이전에 인천시립미술관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일례로 아까 토론자의 발언에서 언급이 되었던 인천아트플랫폼 같은 경우도 1999년에 처음 논의가 되고 2000년도에 행정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면서 거의 10년이 걸려서 개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트플랫폼도 12개의 필지들을 예산이 있을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몇 해에 걸쳐서 그 부지를 매입하면서 운영했고, 그것도 1999년부터 했기 때문에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일대를 다 매입하는 데 한 230억 정도 들었거든요. 아마 지금 시작한다면 그 예산으로는 턱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자원의 한계들이 있고,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 없는 부분들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혹시 객석에서 질문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창 (화성시청 학예연구사)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성시립미술관 건립추진단 학예사 홍영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천시뿐만 아니라 구리시, 광명시, 화성시에서도 왔고, 이 외에도 평택시, 여주시, 충주시 등 여러 시립미술관들이 추진 중인 상황인데요. 기혜경 교수님한테 여쭙보고 싶은 것은 이 도시들의 시립미술관들은 지역

미술사나 대표 작가 군이 인천에 비해서 기반이 확실히 약합니다. 한국 미술사에서 지역 미술사의 중요성을 표출하는 시립미술관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하셨었는데, 이 약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고,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김노암, 기혜경, 신수경 선생님 세 분한테 짧게 여쭙보고 싶습니다. 조경재 선생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했던 내용인데, 인천과 경기, 수도권의 네트워크, 그리고 아카이브와 미술사적으로 어떤 형태로 협업들이 이루어지면 좋을지 특히 인천이나 이외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는 다른 시의 공무원과 건립 추진 학예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교류하면 좋을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새로운 시대, 요즘 초등학생들은 교육이나 관람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젊은 기획자 젊은 행정가들을 위한 교육, AI에 대한 접근 방식이나 정책 등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세 분의 의견을 한 번씩 들어보고 싶습니다.



변순영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질문이 굉장히 많고, 별도의 자문회의를 통해서 얻어가야 될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 얻어가시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기혜경 교수님과 신수경 회장님 그리고 김노암 대표님 세 분께 질문해 주셨습니다.



기혜경 (홍익대학교 교수)

휴식시간에 광명시에서 오신 학예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광명시는 인천보다도 더 서울 권역 안에 있기 때문에 지역 미술사를 따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사 자체가 거의 서울, 경기 위주 미술사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할을 해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콘텐츠에 포커싱하는 미술관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여주와 이천의 경기도자미술관이라든가 지역

미술관이 이런식으로 특징점을 살려나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뮤지엄을 건립한다고 했을 때, 다 아트 뮤지엄으로만 갈 필요는 없습니다. 뮤지엄의 다양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남들이 안 하는 거를 해야 보러 오거든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이는 미술만의 정체성이 아니라 문화 전반에 대한 정체성을 미술관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근의 지역들과 연계하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아까 인천 같은 경우 강화 접경 지역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음주 경기도 DMZ 지역 향후 방향성에 대한 토론회에 참여합니다. 경기도에서 만든 DMZ 조직위원회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에 미술로 무엇인가를 더 넣기보다는 DMZ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측면, 재생, 그리고 평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살려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관광 자원화 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 해달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에코뮤지엄, 저먼 그린벨트를 결합한 한국식 버전의 오픈에어 뮤지엄 개념을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인천의 강화도도 그 권역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천도 경기도와 콜라보를 통해 휴전선 일대, 그 다음 민통선을 전후한 DMZ를 관광 자원화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가진 것을 가꾸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에 같이 조인하시는 방식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수경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회장)

저는 미술관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전략은 제대로 연구를 해본 적이 없고요. 제가 각 지역에서 미술사 아카이브 구축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 충청남도를 할 때와 충주시를 할 때는 규모 차이가 엄청 있죠. 그러다 보니 지역의 장점들도 있고, 특징도 있고, 충남 같은 경우 15개 시군을 한다고는 했어도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당진에서도 뭔가 열심히 하고 있네 해서 나중에 추가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치밀하게 연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치밀하게 찾아서 연구하고 그러다 보면 생각지 못한 작가들이 나오고, 그리고 제가 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건 예를 들면 인명사전에 한 200여 명 있는데 그것을 보고 나서 “충남에 이렇게 유명한 작가가 많았어?” 이런 얘기를 듣는다든지, 그러니까 생각 못했던 거죠. 충남 출신이라는 걸 몰랐던 작가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보고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문화사를 하고 보니 “예전에 목원대 조각회가 있었는데 그 조각회가 언제 없어졌는지 몰랐는데 우리가 이것 통해서 다시 만났다. 그래서 다시 전시를 하기로 했다”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나 조직들이 그냥 잊혀지고 있고, 어느 순간 잊혀졌는데 언제 없어졌는지도 몰랐던 조직들을 저희가 찾아서 정리해주니까 또다시 만남의 장도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일단은 지역미술사 같은 경우는 촘촘하게 연구를 해서 그 특징을 잡아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막연하게 정체성 정체성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준비하고 연구하고 나서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순서가 거꾸로 된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 저희가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대전이 절반이에요. 대전시립미술관이 먼저 생겼고, 그래서 그 구역을 정할 때 대전시가 충남도청 소재지였는데 나중에 직할시가 되면서 빠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기점 이후의 것은 대전시립미술관에서 하니까 거기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던거든요. 어쨌든 초반에 인천이 서울에 의지해서 서울에서 많은 작가들이 활동하듯이 충남도 마찬가지예요. 전시를 하면 한 70~80%가 대전에 와서 해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그 나름대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나중에 점점 각 지역마다 단체도 생기고, 또 공간도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체도 저는 특징이라고 보거든요. 그 시도가

어떻게 형성돼 나가는지에 따라서 지금 이런 문화 형태들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연구가 기반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노암 (휴아트&미디어랩 대표)

저는 현장 기획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문화라고 생각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한 70년 정도 쌓이면 전통이라고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채 안 된, 7~80년 정도 반복되어 쌓인 어떤 문화적 행위가 전통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게 한 70년 정도 평균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각 지자체마다 문화력을 서로 경쟁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무언가 생기지는 않죠. 있으면 참 좋겠지만 없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치밀하게 연구해도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미술관을 접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 주어진 상황에서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로베이스라면 제로베이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이 주목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공기관의 한계가 남들이 안 하는 걸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이것을 하느냐라고, 근거를 제시하길 원합니다. 근거가 없죠. 새로 하는 거니까. 우리 사회가 공공기관이 혁신적으로 새로운 문화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선례가 없는 기획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개방된 조직이나 그러한 문화를 갖추지 않으면 끊임없이 벤치마킹하게 되고 과거를 반복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최근 이슈가 된 풍피두 센터를 한화가 가져오니까 부산에서 또 가져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부유하구나. 우리나라가 돈이 많습니까. 사오는 거죠. 또 하나는 참 쉽게 기획을 한다. 그것은 기획이 아니라 쇼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쇼핑을 기획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자체에서 규모가 크든 작든 문화 공간을 정책적으로 입안하는

것 등의 일이 우리에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는 의미있는 문화공간 만들기 어려울 거예요. 미술관이 됐든 아트센터가 됐든 처음에는 건립할 때 참여했던 정책 담당자들이나 관계자들은 승진을 할 겁니다. 성과를 냈으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10년, 20년 쪽 지속될 때 계속 바톤을 이어 받아서 담당자들이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장이나 큐레이터, 또는 작가, 아니면 그 담당 지자체나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자체 전체의 어떤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 포용력 이게 다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린 그걸 한 번 보면 그 한 건을 가지고 그 지자체의 문화력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굳이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지자체 실무자들이 와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뭐 어쩔 수 없죠.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현실적 조건이라면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이게 뭐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분명한 것은 모든 지자체가 좋은 걸 갖고 있지는 않다. 단적인 예로 강릉하고 파주가 울곡 이이를 갖고 싸우죠. 서로 문화제를 합니다. 이응노 선생 관련해서도 서로가 진짜라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나쁘다고만 보지 않고 그만큼 이제 관심도 많고, 중요하다는 방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것을 부정적이고 갈등의 방식으로 가지 말고 경쟁을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에너지를 돌리면 좋지 않겠는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변순영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네. 답변 감사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라이브로도 질문이 들어와 있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지성 작가님 말씀 부탁 드립니다.



도지성 (전 인천민족미술협회 대표)

저는 지금 미술관의 성격 그러니까 그 개념이 ‘디아스포라’로 이제 정해져 있는 건지를 권오승 팀장님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런 전문가 토론을 많이 하면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워 나가야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결국은 그 미술관을 소비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이나 구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변순영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청중들 중 세 분 정도가 질문을 하겠다고 하셔서,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질문을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분은 지금 ‘디아스포라’라는 미술관의 방향성이 확정이 된 것인지와 시민들이 시립미술관에 바라는 요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관련 계획이 있느냐를 질문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실 분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질문 다 듣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태 (인천문화재단 전략기획팀 과장)

저는 인천문화재단에 근무하고요. 지역 미술사 연구를 하고 있는 박석태라고 합니다.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가 열렸죠. 그 때 뮤지엄파크 조성사업과 아트센터인천 2단계 조성사업이 검토 결과 반려로 판정되서 다시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반려된 이유가 2021년 첫 중앙투자심사 당시 기존 시립박물관을 매각하고, 사업 규모를 재검토 하라는 권장이 들어왔는데 시에서는 2027년 이후 부지와 건물 매각을 본격화하겠다 그리고 사업비 일부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거를 잘 해결하겠다고 하는 대안을 내놓으셨는데 이번에도 아쉽게 반려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다시 심사에 대한 재신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게

우리가 미술관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같이 공감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보면 박물관하고 공동 운명 형태로 지금 묶인 상태죠. 아까 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특이하기 때문에 한편 또 해결해야 될 전제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물관과 일종의 공동 운명체라고 한다면, 내년 초 심사 때 다시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것으로 보시는지 혹은 그때도 만약에 반려가 된다면 대안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쭙보겠습니다.



변순영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지금 중투심 결과에 대해서 이제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셨고요. 세 번째 질문까지 해서 청중 질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강형덕 (회화작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양화를 하는 강형덕 작가라고 합니다. 미술관의 기능은 뭐 다양한 게 있겠지만요. 저는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작가이다 보니 미술관이나 갤러리 전시의 환경이나 컨디션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설계와 구조에 관계된 거니까 아무래도 권오승 팀장님께 드리는 게 될 텐데요. 아까 조경재 대표님께서 발제에서 미술관의 첫 번째 목적은 좋은 전시를 만드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미술관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좋은 작품의 소장과 전시가 중요한 축을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 건데, 사실은 전시장의 환경이나 컨디션이 중요한데, 우리 미술인들이 약간 고생하는 지점이 하나가 있어요. 모 예술회관인데 거기가 소전시, 대전시 다 해서 연면적 1700제곱미터니까 대략 5백여 평이 넘는 웃도는 전시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큰 공간에 작품을 반입·반출할 수 있는 로딩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짐작되실 거예요 작가분들은. 500여 평이 넘는 전시실에 로딩독이 없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냥 전시실 입구로 들고 뛰고 눈비라도 올라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싶어서 리모델링을 한다길래 찾아 갔어요. 담당자를 만났는데 혹시나 그 리모델링에 이 로딩독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아니면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게 가장 좋고 구조적으로도 더 적절할 것 같다고 했더니 그 담당자 말씀이 그런 계획은 없고 뭐 바닷가 벽 천장을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는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더 이상의 말씀을 드리면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으니까, 오늘 팀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런 설계와 구조에 관계된 기능들을 잘 점점을 하셔서 그런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어떠신지요?



변순영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세 가지 질문을 인천시 권오승 시립미술관 팀장님께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디아스포라’라는 시립미술관의 정체성 방향에 대한 확정 여부에 대한 것, 시민이 시립미술관에 기대하는 바와 요구들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 계획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얼마 전 중앙투자심사에서 인천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한 부분이 반려가 되었는데, 이후 실행 계획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술관의 설계나 건축 구조에 대해서 실제 작가들이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당부를 같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인천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에 대한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채팅창에서도 질문이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수집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과 인천시립미술관의 전시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인데, 사실 저희가 지금 건립에 대한 시일이 아직 많이 남은 상태라 소장 계획과 전시 방향을 지금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혜경 교수님께서 국립현대미술관부터 서울시립미술관, 그리고 부산시립미술관 관장으로서 지역의 공공미술관 소장품 계획에 대해 경험하시고 숙고하신 바가 있을 것 같아서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의 수집 방향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튜브 라이브로 질문해 주신 인천시립미술관의 전시 방향은 시민의 관람 주권에 대한 부분들이 바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발제에서 미술관의 핵심은 좋은 전시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해 주신 조경재 작가님께서 작가적 관점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 걸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오승 팀장님께서 앞선 청중 분들의 세 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권오승 (인천광역시청 시립미술관팀장)

먼저 ‘디아스포라’를 말씀하셨는데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22년 4월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연구용역에서 세 가지 수집 범주를 제시를 했는데, 그 중 하나가 미술관 특화 전략으로 ‘디아스포라’를 제시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소장품 이런 것들은 모두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게 될텐데, ‘디아스포라’ 담론도 포함이 됩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게 확장할 수 있는 개념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걸 다시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세 번의 전문가 연구세미나와 공개포럼을 지역 전문 전문가, 지역미술계, 시민들까지 대상으로 해서 이 사전홍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로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검토해서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투심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의 컨설팅 과정을 거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중투심

심사를 올렸는데요. 애석하게도 아시다시피 잘 안 됐습니다. 반려가 됐습니다. 내년 1월 다시 보완을 하고 행안부 재정정책과 찾아가서 나름대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검토하고 보완해서 심사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년에 떨어질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질문은 사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려하신 바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 1월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씀 드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전시,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진짜 잘해서 잘 만들고 싶고요. 2023년도에 시립미술관 전시공간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안을 채우려면 건축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 용역을 실시할 겁니다. 기획전시설 네 군데, 뉴미디어실이라고 해서 (구)OCI 본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가 타 시도의 사례를 방문해서 보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하 주차장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많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원론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전화를 주시면 진행되는 사항들을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순영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이어서 라이브로 들어온 질문인 인천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수집 방향에 대한 제언을 기혜경 교수님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혜경 (홍익대학교 교수)

비치된 책자에 수록된 건축 설계 도면을 보시면 전시실로 화물 엘리베이터가 바로 올라가는 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품 전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미술사가 연구가 안 된 상황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국공립미술관들이 평면 작품 장르와 그 외 장르 비율이 6대 4 정도로 가져갑니다. 그 다음은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한국 미술사의 보편성과 지역 미술사의 특수성 사이에서 공공미술관으로서 지역작가 소장품을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비율이 지역 대비 보편적인 작가군, 전국의 미술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작품을 한 45%대 55% 정도 비율로 가지고 가면 그 지역의 미술사를 쓸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미술사를 쓴다고 했을 때, 한국 미술사 안에 이게 인천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지라는 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 보편성 안에서 인천 작가들만의 특수성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 비율은 미술관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통상적으로는 4대 6이나 5대 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어떤 지향점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신수경 회장님도 인천의 국제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미술관에서 일하면서 보니 서울시립미술관도 국립현대미술관도 해외 미술계 소장품 포션이 4%를 넘지 못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 3천점 중에서 10%가 해외 미술 소장품이었는데, 거의 아시아 쪽 미술이었습니다. 전임 미술관장님께서 미술관 바로 앞 백스코에서 아트페어가 열릴 때마다 아시아 작가들 작품을 굉장히 많이 사셨어요. 제가 가서 소장품들을 확인했는데, 깜짝 놀라면서 봤던 작품들 중 중국이나 일본의 유명하고 비싼 미술 작품들이 꽤 많았었어요.

전 관장님께서 사실 때는 2~3천만원으로 사셨는데 지금은 20~30억 하는 작품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소장품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믿어주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산시립 같은 경우는 부산 미술사를 소장품을 가지고 쓰면서도 우리는 아시아에 특화된 해양성, 아시아 권역을 바운더리로 하는 특징의 미술관으로 가겠다는 비전이 있습니다. 소장품의 10%가 아시아 미술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천명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아직 소장품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한다고 했을 때, 신수경 회장님 연구팀에서 만들어내는 특성화, 이것을 어떤 포션으로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를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전문가를 신속히 투입해서 소장품 전략을 세우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변순영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이어서 인천시립미술관의 전시 방향에 대해서 조경재 작가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경재 (프로젝트 스페이스 코스모스 대표)

현대미술 전시의 형태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템포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저는 서태지 세대거든요. 서태지가 앨범을 한 번 내고 활동을 쫓 하고 잠적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쫓 하고 또 한 몇 개월 후에 다시 나타나는 형태로 활동했는데, 지금의 BTS를 보면 정규 앨범을 내고 그 사이 사이에 멤버들이 아주 짧게 짧게 자기들의 싱글들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도 비슷한 형태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템포가 굉장히 빨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큰 규모의 어떤 기획전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아주 개별적으로 참신한 기획전들이 그 전시와 연동되게끔 뭔가 기획이 계속 만들어졌을 때, 관객들은 한 번 전시장에 와서 전시를 보고 그냥 가는 개념이 아니라 언제 와도 새로운 게

있다라는 인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현대미술관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행정적 시스템 속에서는 1년 치의 계획을 짜고 그거에 맞는 한 달 반 두 달 간의 어떤 기획을 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아니라, 굉장히 유동적으로 빨리빨리 뭔가 템포 있게 끊어서 전시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기획의 선도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절차가 없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말한 그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뒷받침하면 능동적이면서 아주 쇼트한 전시의 형태들, 그리고 퍼포밍적인 것들은 요즘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것을 하는 시간에 맞춰서 관객이 와서 그걸 보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면 좋은 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순영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답변 감사 드립니다. 오늘 사실 더 궁금하신 사항들도 많겠지만, 지금 4시간 가까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면서 경청해 주신 객석에 계신 청중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그리고 앞으로 인천시립미술관에 제안하시고 싶은 바는 이런 의견들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인천시립미술관 건립·개관 사전홍보 프로젝트 웹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요. 사전홍보 프로젝트 웹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인천시청 김아림 학예연구사의 이메일 주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메일로 언제든지 의견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발제자, 토론자분들께 다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연 (무소속컴퍼니 대표)

네. 오늘 인천시립미술관 건립·개관 공개포럼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해 주신 전문가분들께

감사 드리며, 포럼에 참석해 주신 관객과 시청자 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인천시립미술관의 개관을 준비하며 이러한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공개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영상 및 자료집을 통해 제작되어 인천시립미술관 건립·개관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인천시립미술관 사전홍보 프로젝트를 위해 구축한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개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인천시립미술관
건립·개관 사전홍보 프로젝트
INCM-PROJECT

주최·주관

인천광역시청

운영

무소속컴퍼니

만든이

사업총괄

한명숙, 권오승

사업기획

김아림

사업협력

장경옥, 임경미

프로젝트매니저

최정은

모더레이터

임성연

에디터

이윤지

매니저

윤정인

그래픽/웹디자인

데이워크

www.incm-project



incm_project



incmproject



INCM-PROJECT



2024 인천시립미술관
건립·개관 사전홍보 프로젝트
INCM-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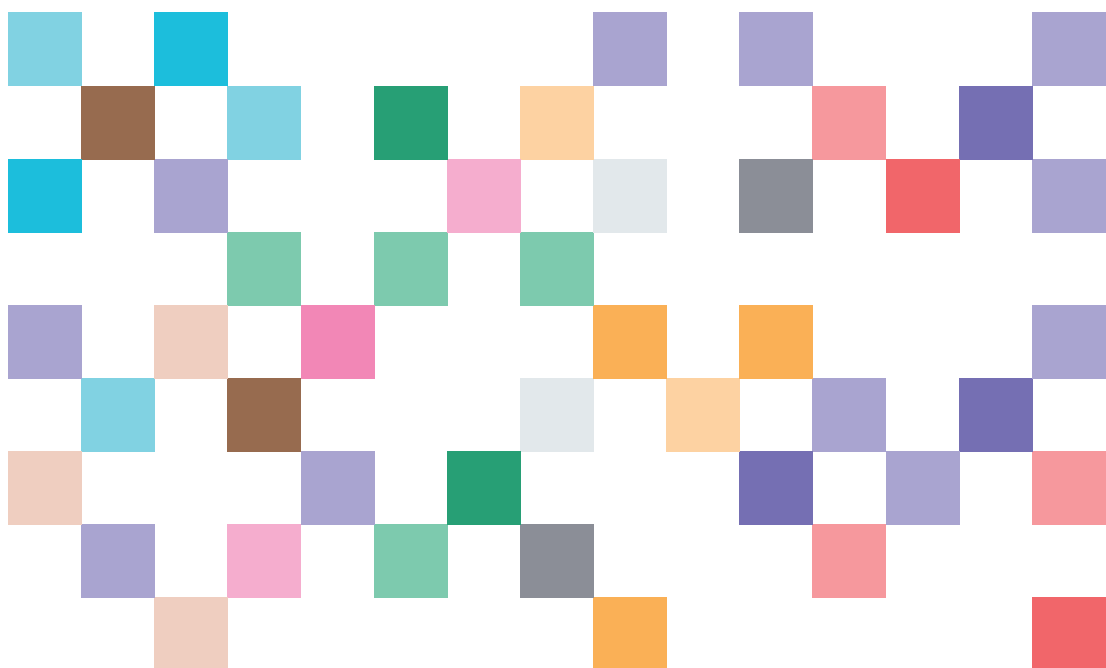
발행처
인천광역시청

발행일
2024년 12월 16일

문의
인천광역시 문화기반과
시립미술관팀 김아림 학예연구사
alim0200@korea.kr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각 저작자에게 있으며,
본 발행물의 저작권은 인천광역시청과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 2024 Incheon City Hall Cultural Infrastructure Division. All Rights Reserved.

ISBN 979-11-91060-29-4 (03600)



9791191●6●294 ●36●●

